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027-01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서 규 용 | 제60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연설문집

서규용 제60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연설문집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Photo Story

서규용 제60대 농림수산물부 장관 연설문집

제60대 서규용 농림수산물부 장관 취임식 (2011. 6. 2.)





양파재배지 현장시찰(1) (2011. 6. 3.)



양파재배지 현장시찰(2) (2011. 6. 3.)



강정보 현장방문 (2011. 6. 4.)



부산공동어시장 시찰 및 어업인 간담회 (2011. 6. 4.)

Photo Story

서규용 제60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연설문집



송림 독높이기 현장방문(1) (2011. 6. 4.)



송림 독높이기 현장방문(2) (2011. 6. 4.)



농산무역 방문 (2011. 6. 11.)



'한벌꿀' 브랜드 출범식 (2011. 6.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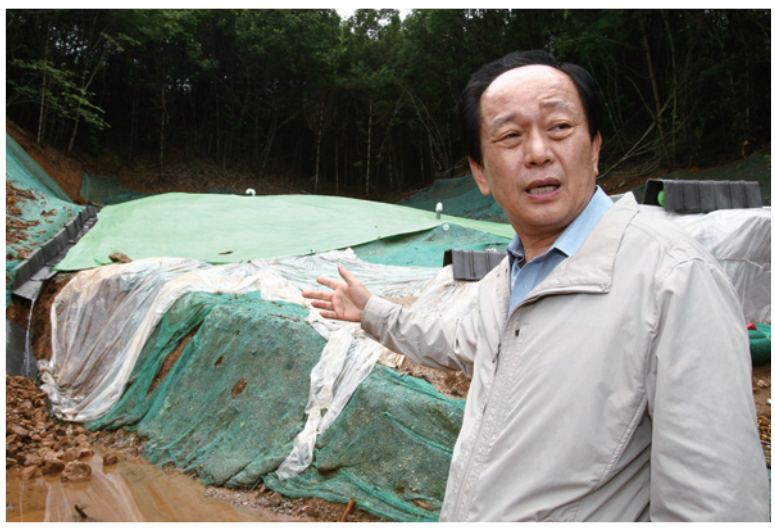
고랭지배추 재배포장 시찰(1) (2011. 7. 2.)



고랭지배추 재배포장 시찰(2) (2011. 7.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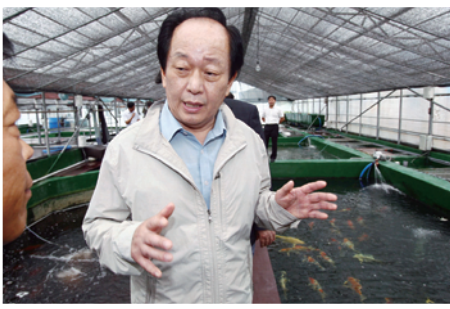
재래시장 물가점검 (2011. 7. 8.)



구제역가축 매몰지 현장점검 (2011. 7. 9.)

Photo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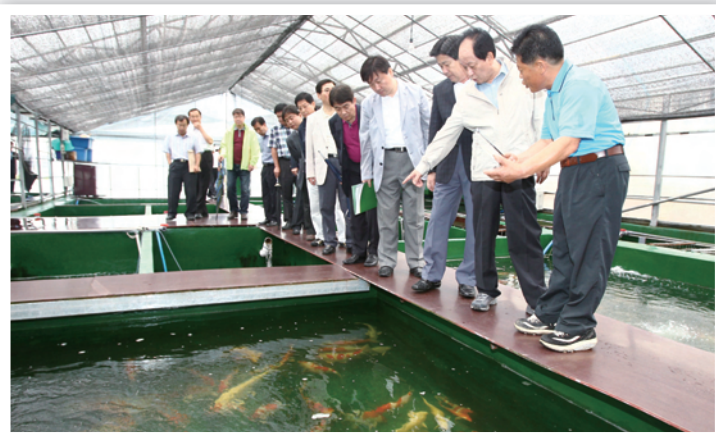
서규용 제60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연설문집



진천 관상어 양식장 방문(1) (2011. 7. 9.)



진천 관상어 양식장 방문(2) (2011. 7.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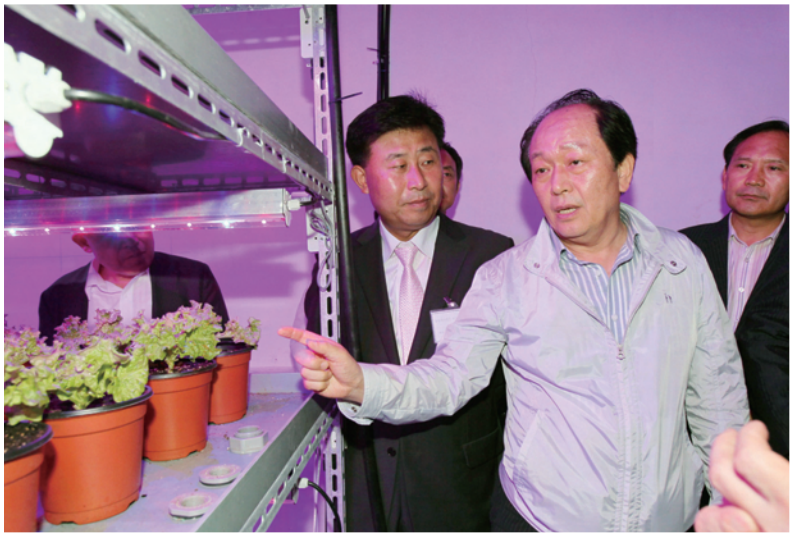
진천 관상어 양식장 방문(3) (2011. 7. 9.)



고당도 과실 생산시설 과원 방문 (2011. 7. 16.)



호우피해농가 일손돕기 (2011. 7. 18.)



LED식물공장 방문 (2011. 7. 23.)



철갑상어 양식장 방문 (2011. 7. 23.)



조생종 벼 작황 점검 (2011. 8. 13.)



갯벌참굴 양식장 방문(1) (2011. 8. 20.)



갯벌참굴 양식장 방문(2) (2011. 8. 20.)

Photo Story

서규용 제6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연설문집



재래시장 협약식 (2011. 8. 25.)



농식품수출 홍보대사 위촉식 (2011. 9. 6.)



노량진수산시장 방문 (2011. 9. 7.)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방문 (2011. 9. 10.)



제1회 바다목장 수증촬영 및 낚시대회 (2011. 9. 23.)



이동주조 방문 (2011. 10. 1.)



상주농협 수출배 선과장 방문 (2011. 10. 8.)



벼베기 일손돕기 (2011. 10. 15.)



4대강 새물결맞이 (2011. 10. 22.)



구제역상황실 점검 (2011. 10. 31.)

Photo Story

서규용 제60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연설문집



수산물가공 수출업체 방문 (2011. 11. 26.)



배추생육상태 점검 (2011. 12. 3.)



구제역 AI 예방을 위한 전국일제소독의 날 실태점검(1) (2011. 12. 7.)



구제역 AI 예방을 위한 전국일제소독의 날 실태점검(2) (2011. 12. 7.)



팜랜드 준공식 (2011. 12. 7.)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 협약식 (2011. 12. 19.)



다문화가족 간담회 (2012. 1. 7.)



농식품부-행안부 간 국제개발 협력사업 활성화 양해각서 체결(1) (2012. 1. 19.)



농식품부-행안부 간 국제개발 협력사업 활성화 양해각서 체결(2) (2012. 1. 19.)

Photo Story

서규용 제60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연설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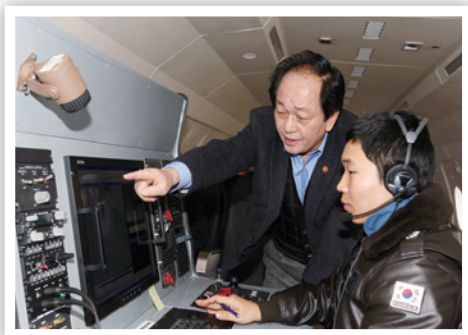
전통시장 방문 (2012. 1. 19.)



안성 도드람 LPC 방문 (2012. 1. 21.)



어업지도 및 단속현장 방문(1) (2012. 1.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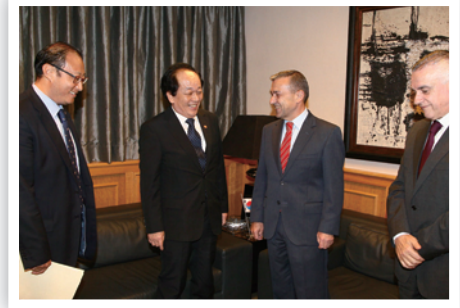
어업지도 및 단속현장 방문(2) (2012. 1. 21.)



마드리드 퓨전 환영만찬 (2012. 1. 23.)



김치버스 참가단 격려 (2012. 1. 24.)



스페인 라스팔마스 주지사 면담 (2012. 1. 24.)



인제 황태마을 방문 (2012. 2. 11.)

Photo Story

서규용 제60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연설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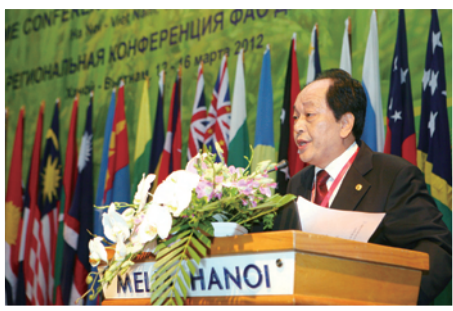
중소기업·농어촌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기술설명회 (2012. 3. 7.)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장관 면담 (2012. 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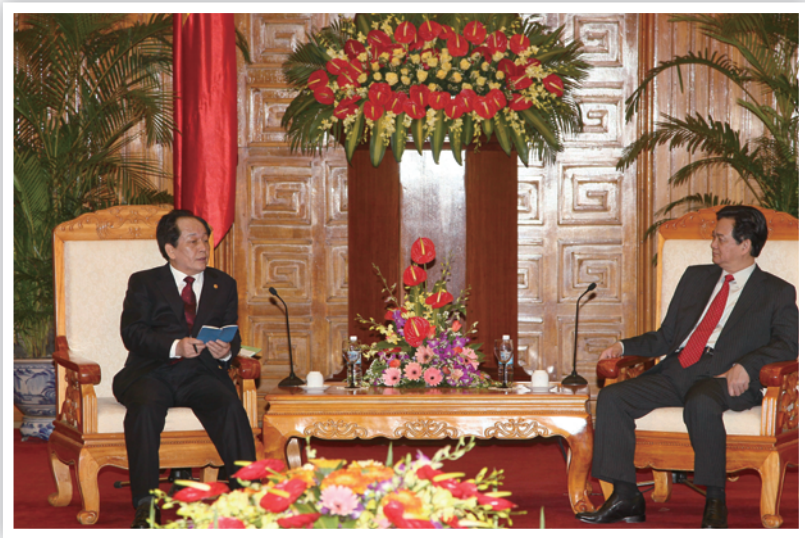
FAO 각료급회의 기초연설(1) (2012. 3. 15.)



FAO 각료급회의 기초연설(2) (2012. 3. 15.)



FAO 각료급회의 기초연설(3) (2012. 3. 15.)



베트남 총리 예방 (2012. 3. 15.)



FAO사무총장 면담 (2012. 3. 15.)



캄보디아 농수산부장관 면담 및 업무협약 (2012. 3. 15.)



미술랭스타 한식당 공로패 수여 (2012. 3. 17.)



일본 한인거리(신오쿠보) 방문 (2012. 3. 17.)

Photo Story

서규용 제60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연설문집



어업인의 날 (2012. 3. 30.)



한중 양자회담 (2012. 4. 14.)



한중일 농업장관회의(1) (2012. 4. 15.)



한중일 농업장관회의(2) (2012. 4. 15.)



한중일 농업장관회의(3) (2012. 4. 15.)



봄배추 나눠주기 및 소비자직거래 장터 (2012. 4. 16.)



범부처 IT융합 협력 업무협약 (2012. 4. 17.)



2012 상주농업기계박람회 (2012. 4. 19.)



농협안심한우 1호점 개점행사(1) (2012. 4. 19.)



농협안심한우 1호점 개점행사(2) (2012. 4. 19.)

Photo Story

서규용 제60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연설문집



수입쇠고기 검역현장 방문(1) (2012. 4. 27.)



수입쇠고기 검역현장 방문(2) (2012. 4. 27.)



수입쇠고기 검역현장 방문(3) (2012. 4. 27.)



수입쇠고기 검역현장 방문(4) (2012. 4. 27.)



2012 대한민국식품대전(1) (2012. 5. 8.)



2012 대한민국식품대전(2) (2012. 5. 8.)



2012 대한민국식품대전(3) (2012. 5. 8.)



미국 BSE 현지조사 결과 브리핑 및 담화문 발표(1)
(2012. 5. 11.)



미국 BSE 현지조사 결과 브리핑 및 담화문 발표(2)
(2012. 5. 11.)

Photo Story

서규용 제60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연설문집



귀농귀촌 토크콘서트 출연 (2012. 5. 19.)



연평도 방문(1) (2012. 5. 18.)



연평도 방문(1) (2012. 5.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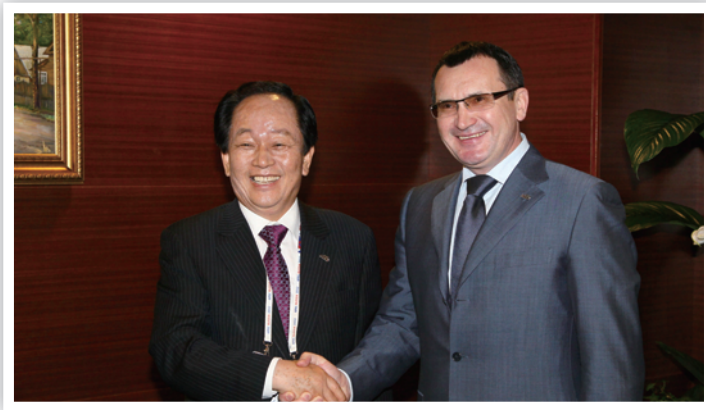
식사랑농사랑 대국민 프로포즈 (2012. 5. 25.)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2012. 5. 31.)



한·러 농업협력 업무협약 및 양자회담(1) (2012. 5. 31.)



한·러 농업협력 업무협약 및 양자회담(2) (2012. 5. 31.)



한·러 농업협력 업무협약 및 양자회담(3) (2012. 5. 31.)



카잔 시설재배현장 (2012. 5. 31.)

Photo Story

서규용 제60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연설문집



한식 홍보행사(주러시아 한국대사관) (2012. 6. 1.)



우유홍보대사 위촉식 (2012. 6. 7.)



녹색커튼으로 더위를 줄이세요 캠페인 (2012. 6.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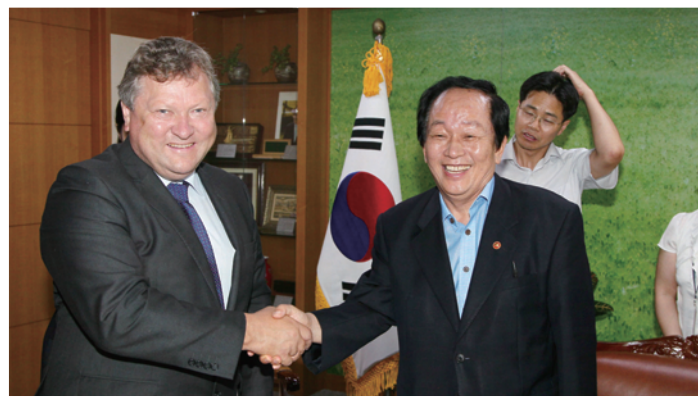
강화도 가뭄극복 현장방문 (2012. 6. 25.)



농산물 가격동향 점검 (2012. 6. 29.)



중소기업중앙회 장재리마을 1사1촌 협약식 및 간담회 (2012. 7. 5.)



카지스 스타르케피시우스 리투아니아 농업장관 면담 (2012. 8. 7.)



호세 그라지아노 다 실바 FAO사무총장과 식량위기 등 논의 (2012. 8. 13.)

Photo Story

서규용 제60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연설문집



전남지역 적조 및 황토살포 현장방문 (2012. 8. 17.)



CJ 인천대두유공장, 인천사료공장 방문 (2012. 8. 18.)



영동 와인코리아 방문 (2012. 8. 25.)



영동 컨츄리 와이너리 방문 (2012. 8. 25.)



태풍 블라벤 피해현장 방문 (2012. 8. 30.)



벼백수 피해현장 시찰(1) (2012. 9. 1.)



벼백수 피해현장 시찰(2) (2012. 9. 1.)



전북 태풍피해지역 방문 (2012. 9. 1.)



배추모종 나누어주기 (2012. 9.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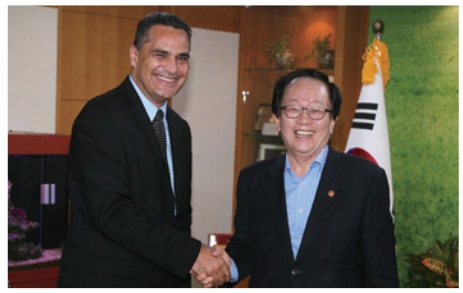
양평축협 한우승아지 경매장 방문(1) (2012. 9. 8.)

Photo Story

서규용 제60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연설문집



양평축협 한우송아지 경매장 방문(2) (2012. 9. 8.)



주한 뉴질랜드 대사 면담 (2012. 9. 12.)



수산물사랑 남산걷기대회 (2012. 9. 16.)



태풍대비 상황실 점검 (2012. 9.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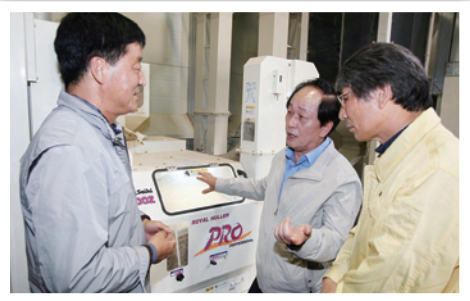
귀농귀촌센터 개소식 및 교육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2012. 9. 25.)



농식품수출 홍보대사 위촉식 (2012. 10. 2.)



구제역·AI 방역대책 상황실 현판식 (2012. 10. 4.)



승당가공영농조합법인 방문 (2012. 10. 6.)



벼베기 행사 (2012. 10. 18.)



2012 국제농기계기자재박람회 (2012. 10. 30.)

Photo Story

서규용 제60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연설문집



제17회 농업인의 날 행사 (2012. 11.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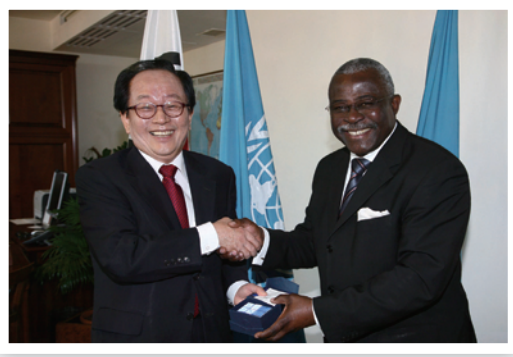
순천농협 남도김치 가공공장 시찰 (2012. 1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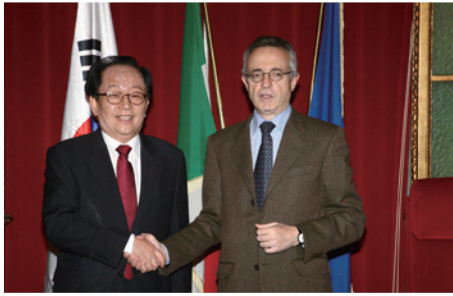
오이 시설하우스 시찰 (2012. 11. 10.)



대한민국 인삼축제 (2012. 11.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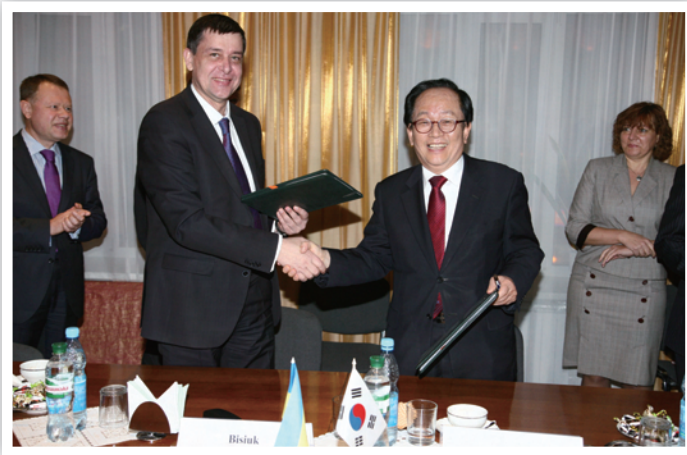
카나요 F. 느완제 IFAD 총재 면담 (2012. 11. 26.)



이태리농업부장관 면담 (2012. 11. 26.)



FAO 사무총재 면담 및 업무협약 (2012. 11. 27.)



우크라이나 농업정책부 차관 면담 (2012. 11. 28.)

Photo Story

서규용 제60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연설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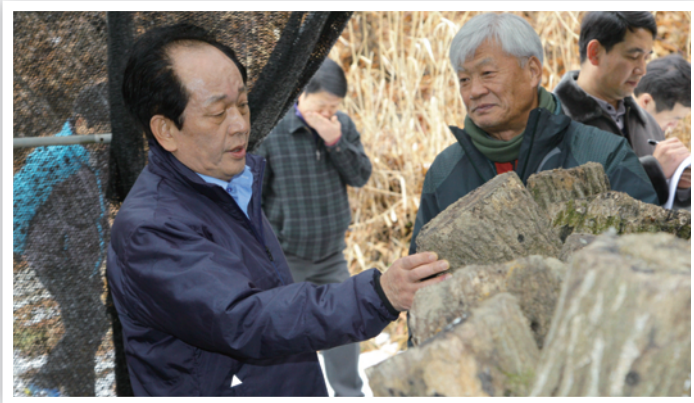
세종청사 입주식(1) (2012. 12. 10.)



세종청사 입주식(2) (2012. 12. 10.)



세종청사 입주식(3) (2012. 12. 10.)



농식품부 사진블로거 남성영 농가 방문 (2012. 12. 15.)



호반육묘장 방문 (2012. 12. 15.)



옥천 송이버섯 농장 방문 (2012. 12. 29.)



보은축협 생축사업장 방문 (2013. 1. 5.)

Photo Story

서규용 제60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연설문집



대농바이오영농조합법인 방문 (2013. 1. 16.)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수동골권역 방문(1) (2013. 2. 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수동골권역 방문(2) (2013. 2. 2.)



미국 농무부 장관 면담 (2013. 1. 31.)



내몸애푸드 방문 (2013. 2. 16.)

제60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임식 (2013. 3. 11.)



Contents

I 취임 · 신년 · 이임사

취임사 2011. 6. 2.	08
신년사 2012. 1. 1. / 2013. 1. 1.	16
이임사 2013. 3. 11.	29

II 연설문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기초연설문 2011. 5. 31.	36
전국 치어방류 행사 격려사 2011. 6. 15.	39
제1회 세계 수협 의 날 치사 2011. 6. 16.	41
G< 포럼 오프닝 축사 2011. 6. 29.	44
한계저수지 독농이기사업 격려사 2011. 6. 30.	47
제1회 녹색식생활교육박람회 격려사 2011. 7. 1.	50
OIE 광견병 국제컨퍼런스 만찬 환영사 2011. 9. 8.	53
제4회 한우의 날 영상 격려 메시지 2011. 11. 1.	55
2012 마드리드 퓨전 연설문 2012. 1. 23.	57
2012 수산전망대회 축사 2012. 2. 3.	60
제1회 국제식품클러스터 포럼 축사 2012. 2. 21.	66
무궁화 1호 취향식 치사 2012. 2. 22.	69
제31차 FAO 아태지역 총회 연설문 2012. 3. 12.~3. 16.	71
IPPC 60주년 축하 영상 메시지 2012. 3. 19.	74
제13회 농수산물식품 수출탑 시상식 및 수출전진대회 기념사 2012. 3. 20.	76
「농기계조합 50년사」 발간 축사 2012. 4. 24.	79
2012 대한민국식품대전 개막식 치사 2012. 5. 8.	81
제9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격려사 2012. 10. 10.	83
제18회 세계농업기술상 시상식 축사 2012. 11. 20.	86
도농교류 농촌사랑대상 시상식 격려사 2013. 1. 17.	89

Contents

Ⅲ 인터뷰

농가자립 위해 3조 보조금 손질 2011. 6. 20. 매일경제	94
농협의 계약재배 50%까지 확대 다신 농산물값 파동 없게 할 것 2011. 6. 27. 조선일보	98
한미 FTA와 쇠고기 수입 협상 별개... 신뢰회복이 먼저 2011. 7. 4. 서울경제	102
지구촌 식량위기 우려... 식량 자급률 높여야. 곧 대책 발표할 것 2011. 7. 9. 세계일보	108
쌀-고추-쇠고기 제외안하면 중국과 FTA협상 시작 안해 2011. 7. 13. 동아일보	112
이틀에 한번꼴로 농촌 방문... 農政의 답은 현장에 2011. 7. 29. 문화일보	116
올해 우수 소비자가 인상 자제 2011. 8. 10. CBS라디오	130
농산물이 물가폭등 주범 몰려 억울... 비중 8.8%뿐인데 2011. 8. 16. 서울신문	138
FTA는 농가에 위기이자 기회 수출농업으로 돌파 2011. 12. 5. 파이낸셜뉴스	142
2012년 주요 추진 정책 2012. 1. 3. KBS라디오	149
'농협 지원 5조' 공짜 돈 아니다... 2012. 2. 27. 서울경제	157
한·중 FTA 협상서 모든 농산물 제외하는건 불가능하다 2012. 2. 29. 한국경제	166
귀농·귀촌 대책 2012. 3. 12. KBS라디오	170
농어민 지원대책에 54조원... 더 이상 '아스팔트 농업' 해선 안돼 2012. 3. 15. 조선일보	176
Food exports to reach \$30b by 2020: minister 2012. 4. 2. 코리아헤럴드	180
농사가 3D업종이라고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2012. 4. 14. 조선일보	184
광우병, 학습효과로 큰 혼란 없었죠 2012. 5. 28. 서울경제	189
춧불 두려워 쇠고기 수입 중단 있을 수 없어 2012. 5. 30. 동아일보	193
美 쇠고기 검역 중단할 수 없었다 2012. 6. 5. 한국일보	196
다함께 잘사는 선진 농어촌 기틀 마련에 정책 역점 2012. 6. 14. 아주경제	199
소통이 농정 신뢰 회복의 지름길 FTA 농업발전의 디딤돌 될 수도 2012. 7. 15. 세계일보	206
농어촌에 새바람 일으키는 색깔 있는 마을 5000개 조성 2012. 10. 31. 중앙일보	212
세종시와 업무여건 개선, 불편 크게 줄어든 것으로 기대 2012. 12. 10. PBC라디오	215

IV 기 고

오감만족 농어촌 여름휴가 2011. 6. 22. 문화일보	222
생명산업이 주도하는 시대가 온다 2011. 10. 11. 매일경제	225
4대강과 함께 달라진 농어촌 2011. 11. 10. 서울신문	228
글로벌 식량위기의 시대... 농업에 투자하라 2011. 11. 17. 동아일보	231
'스마일재능뱅크'를 아십니까 2011. 12. 12. 중앙일보	234
農漁業 경쟁력 강화 기회다 2011. 12. 26. 문화일보	237
보약이 쓰다고 버릴 것인가 2012. 2. 17. 중앙일보	240
맞춤형 교육으로 귀농 지원 2012. 2. 20. 매일경제	243
새로운 농가월령가를 준비하며 2012. 2. 24. 농민신문	245
첫 한중일 농업장관회의가 남긴 것 2012. 4. 16. 매일경제	248
일본의 한국농업 배우기 2012. 5. 11. 동아일보	251
오감만족 농어촌체험마을 2012. 6. 28. 문화일보	254
추사 김정희의 또 다른 유산 '향토산업' 2012. 8. 28. 한국경제	257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해답이다 2012. 8. 31. 매일경제	260
농업 융복합산업에서 미래를 2012. 9. 19. 동아일보	263

V 친 서

우리 한우에 대한 사랑이 계속되기를 2011. 6. 10.	268
시 방역 관련 서한문 2012. 2. 5.	270
제1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성료 감사 서한(일본) 2012. 4. 20.	271
제1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성료 감사 서한(중국) 2012. 4. 20.	272
'미국 소 BSE' 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2012. 5. 11.	273
국가식품클러스터 서한(해외) 2012. 7. 18.	276
김치, 막걸리 대중 수출지원 서한 2012. 8. 29.	279
추석 명절에는 우리 농식품으로 사랑과 정성을 전하세요 2012. 9. 3.	282
설 명절에는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식품으로 사랑과 정성을 전하세요 2013. 1. 21.	284

Contents

VI 현장소통

안동 구제역 매몰지 방문 2011. 6. 3. 안동	288
부산공동어시장 방문 2011. 6. 4. 부산	289
새만금 사업현장 방문 2011. 6. 11. 전북	290
성주 · 고령 물폭탄 현장 찾아 2011. 7. 12. 경북	291
고추재배농가 방문한 농림부장관 2011. 9. 3. 충북	293
노량진 수산시장 방문 2011. 9. 7. 서울	294
서 농림, 인천공항 검역상황 점검 2011. 9. 7. 인천	295
우리수산물사랑 남산걷기대회 2011. 9. 18. 서울	296
충북, 대청호에 토종어류 등 125만마리 방류 2011. 9. 30. 충북	297
도시농부가 된 어린이들 2011. 11. 11. 경기	299
농업 “대박나길” 2011. 11. 11. 경기	300
결혼이주 여성들과 전통행사 2012. 1. 7. 경북	301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2012. 3. 7. 서울	302
수출딸기 작목반 파이팅! 2012. 3. 10. 경기	303
농진청에 들어선 ‘귀농귀촌종합센터’ 2012. 3. 12. 경기	304
버섯농가 시설 둘러보는 서규용장관 2012. 3. 31. 경북	305
서규용장관, 구제역 매몰지 관리실태 점검 2012. 4. 7. 경기	306
공동선언문 서명한 한중일 농업장관 2012. 4. 15. 제주	307
봄배추 모종 나눠주는 농식품부 장관 2012. 4. 16. 서울	308

서울시청 광장에 개장된 양파·대파 직거래장태 2012. 4. 16. 서울	309
대한민국 귀농귀촌 페스티벌 개막 2012. 5. 4. 서울	310
2012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개막 2012. 5. 8. 경기	311
헌화하는 서규용 장관 2012. 5. 18. 인천	312
꽃게잡이 어업인 격려하는 서규용 장관 2012. 5. 18. 인천	313
충남 가물지역 방문... “용수대책 마련” 2012. 6. 9. 충남	314
평창서 집 고쳐주기 봉사... 대학생들과 재능기부 활동 2012. 7. 23. 강원	317
9세 농민, 농식품부 장관에게 감사편지 2012. 8. 8. 강원	319
‘폭염 비상’ 축산농가 찾은 서규용 장관 2012. 8. 8. 경기	321
적조현장 찾은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2012. 8. 10. 전남	322
향토제품 잔치... 농어촌산업박람회 2012. 8. 30. 경기	323
서규용장관, 벼 백수피해 현장 방문 2012. 9. 1. 전북	324
고창서 ‘제9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열려 2012. 10. 10. 전북	325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천안서 개막... 외국 바이어 몰려 2012. 10. 30. 충남	327

VII 부 록

서규용 장관 주요일정(농정일지)	332
-------------------	-----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I. 취임·신년·이임사

취임사 | 08

신년사 | 16, 24

이임사 |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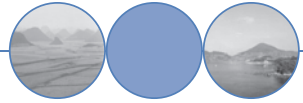
2011. 6. 2.

취임사

존경하는 전국의 농어업인, 식품산업관계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농림수산식품부와 유관기관 가족 여러분!

29년간 몸 담았던 농림수산식품부에 돌아와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농식품산업과 농어촌의 발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꼭 이루어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그동안 애써주신 유정복 장관님의 노고와 업적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취임 직후부터 쌀값 안정과 배추·무 수급불안 해결, 그리고 구제역·AI 등 많은 현안에 대응하면서 농림수산식품 주요 정책들을 추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건설'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일찍이 우리 농어업이 어렵지 않았던 시기는 없었습니다만,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와 FTA 등 수많은 난관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잘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앞에 놓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농림수산식품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농림수산식품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업의 장래는 ‘사람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젊고 창의적인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특성화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창업 초기의 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농어업인들에게는 특화된 기술, 경영중심의 교육을 통해 변화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EU와의 FTA발효에 대비해서 현재 추진중인 국내 보완대책을 면밀히 점검하여 보완하는 한편, 우리 농식품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경영체를 전문화·규모화하여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마련하고, 국가별·지역별로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중점품목을 선정하고, 차별화된 수출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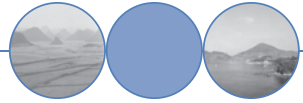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농협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을 착실히 준비하면서,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농협의 경제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여 농식품분야의 미래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식품산업은 기초 인프라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김치·우리술 등 전통·발효식품을 과학화·산업화하여 국내외 소비기반을 넓혀나가는 한편, 한식의 세계화를 통해 우리 문화와 음식을 세계에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2008년부터 추진해온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변화된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과제들을 새롭게 발굴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 제1의 IT 강국으로 발돋움 했듯이, 농림수산식품 분야도 R&D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효율성을 높여 농어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종자·생명산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53조원에 달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지만, 우리 업체들의 규모는 영세하고, 전문인력도 부족하며, 생명자원의 확보·관리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민간육종기반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종자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생명자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명자원을 산업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적이고 자율적인 자원관리시스템을 조속히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연근해 어업은 어구 사용량 조정, 어선 경영규모 적정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정 수준의 어선세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체계적인 자원관리와 바다목장 등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노후기관·노후장비의 개량을 지원하여 에너지는 물론, 어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고, 환경친화적



인 어구를 보급하여 조업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양식산업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입니다. 참다랑어, 넙치, 전복, 갯벌 참굴 등을 고부가가치 전략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고, 장기간 양식에 따른 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품목별로 어장 재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수협은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하고, 수산물 유통·가공 등 경제사업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어업인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양산업은 안정적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해외 수산협력을 강화하고, 어업 쿼터 확보를 위한 국제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둘째,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농장·어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잔류농약 등 위해요소를 사전에 중점관리하고, 안전성 조사 및 위생감시를 한층 강화하여 유해식품 유통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그동안 전문단지 조성 등 생산인프라 구축의 성과를 바탕으로 생산자단체를 조직화·규모화하여 친환경 농산물 유통을 보다 효율화하고, 가공산업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농식품 인증제도는 소비자들이 우수한 농식품을 쉽게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표시방법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세대의 건강과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녹색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농식품의 학교급식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어업인의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고, 농어촌을 일터·삶터·쉼터로서의 역할이 조화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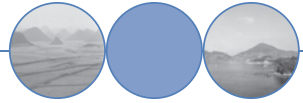
직접지불제는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안전장치이면서 환경·지역 등 농어촌이 지닌 유·무형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농가소득안정지불제를 도입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복지·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 등 농어촌의 공공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고령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 등 농어촌의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강화하겠습니다.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이 지닌 체험, 관광, 휴양, 환경 등 잠재적인 자원을 발굴하고 차별화하여 활력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스마일 농어촌 운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넷째, 가축질병, 수급불안, 재해 등 농어업분야의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제역을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시설기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축산관계자의 방역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강화 하겠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배추·양파의 가격안정을 위해 자율적인 물량감축, 정부수매, 소비촉진 등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채소류의 근본적인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관측을 정밀화하여 농업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농협 등 생산자단체와 재배농가간의 계약재배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쌀값 급등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올해 수확기 벼 매입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쌀을 적기에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가격이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곡물가 급등에 대응하고, 국민들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옥수수, 밀, 콩 등은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해외에 대규모 농장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업은 기후와 가장 밀접히 연관되는 산업인 만큼 기후변화에 더욱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빈발하고 있는 이상기후에 대응하여 기후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품종개발·작목전환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기상재해 등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재해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I 취임사

농림수산식품부와 유관기관 가족 여러분!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문화를 함께 만듭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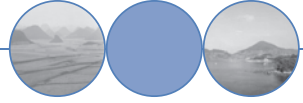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을 찾아 정책고객인 농어업인, 식품산업관계자와 국민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공직자는 ‘개인보다는 조직, 조직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은 남보다 ‘솔선수범’하고 강한 열정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전국의 농어업인, 식품산업관계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농림수산식품부와 유관기관 가족 여러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저의 개인 신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나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저로 인해 농어업인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으로서 오로지 농림수산식품정책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만이 농어업인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건설’, ‘국민과 농어업인의 뜻을 섬기는 농림수산정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업인, 식품산업관계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 농림수산물식품 조직을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2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서 규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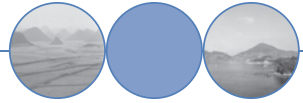
2012. 1. 1.

신년사

존경하는 전국의 농어업 경영인과 식품산업 관계자 여러분!
관련 단체 임직원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농림수산식품 소비자와 농어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신묘년이 저물고 ‘용의 해’인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용은 ‘용기’와 ‘비상’, 그리고 ‘희망’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하늘을 나는 용처럼 올 한해 여러분 모두가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펼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 공직자들은 우리 농림수산식품산업이 처한 도전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선진 농림수산식품산업 진입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의 농어업 경영인과 식품산업 관계자, 그리고 관련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급격한 환경의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 EU와의 FTA로 인한 시장개방의 확대는 우리 농어업과 식품산업에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우리 농림수산식품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빈번해 지면서 농어업 생산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어족자원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이변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생산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일부 농수산물의 수급이 불안정하였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농수산물 수급불안을 근본적으로 막고, 농어업 경영인에게는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마련하며,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농어촌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어촌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과 농어업 경영인의 소득안정도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는 베이비 붐 세대가 농어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올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농림수산식품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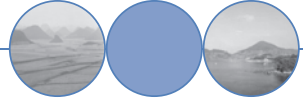
먼저, FTA 파고를 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사람, 기술, 그리고 시설’이 경쟁력의 근본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높은 수준의 기술과 현대화된 시설이 결합되면 선진 농어업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창업 활성화를 통해 매년 2,500명의 젊은 농어업 경영인을 양성하겠습니다. 농어업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도농가와 교수진이 1:1 창업 멘토링을 실시하고, 젊은 창업 농에게 농지와 시설·운영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농어업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10조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의 지원방식을 효율적으로 바꿔 보다 많은 농어업 경영인이 선진국 수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어업 경영인이 필요로 하는 시설자금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 수출 100억 달러 시대를 열기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중국, 일본, 아세안 등 세계최대의 농식품 수출시장이 있으며,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세계인의 식탁을 우리 농림수산식품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수출 확대를 위해 인삼, 김치, 소스류, 양식 수산물 등 수출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국가별로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여 해외시장개척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젊은 전업농어업 경영인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 수출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하고, 영세·고령농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교육·의료·복지·문화 등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고령농업인을 위한 농지연금과 경영이양직불제를 확대하며, 여성농어업 경영인의 권익향상과 다문화가족 정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미래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연구개발(R&D)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성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생산환경 제어, 발효·저탄소 식품가공 등의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우수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로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부터 10년간 4,911억원 규모의 Golden Seed Project를 추진하여 수출용 종자를 개발하고, 민간종자연구단지 조성 및 방사선 육종센터 건립 등을 통해 종자산업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식품산업을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동력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식품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국가식품클러스터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육성과 기술개발을 통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식품기업이 안정적으로 국산 농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산업과 농어업이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양식산업은 수산업의 미래입니다. 갯벌참굴, 해삼, 광어, 전복 등 10대 양식 전략품목을 육성하여 2020년 수산물 수출 100억불을 달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관·학·연 연구클러스터를 구성하여 맞춤형 양식·가공기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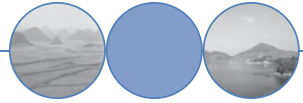
개발하고, 외해·갯벌 등 4천ha의 신규어장을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갯벌 양식어업육성법’을 제정하여 방치된 갯벌의 체계적인 이용·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어업을 1차 산업에서 2·3차 융복합 산업으로, 단순 생산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변모시켜 나가야 합니다. 동식물·미생물 등 생명자원을 산업화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말·낙시·관상어 산업 등 유망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농·수협개혁을 통해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수급 및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협을 농산물 생산량의 50%를 책임지는 전문협동조합유통회사로 발전시켜 나가고, 농업인은 생산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농산물은 전국 5대 권역에 유통·물류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게 될 도매물류센터를 설치하고, 쌀은 농협중앙회와 조합이 공동으로 전국단위의 전문판매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은 생산, 도축, 판매를 계열화한 대형패커를 육성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쌀은 농가의 적기 출하를 유도하고, 수확기에 합리적인 쌀값 형성을 위해 농가와 산지유통업체간 수탁거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원예농산물은 표본 재설계 등을 통해 농업관측을 보다 정밀하게 하고, 배추·무 등 수급 불안이 심한 품목을 중심으로 농업인과 농협의 계약재배를 확대하는 한편, 정부의 수매·비축 물량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은 한우 암소도태 및 돼지 종돈공급을 확대하고, 우유의 전국단위 수급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수산물은 산지의 물량수집, 상품개발, 마케팅 등의 기능을 수행할 거점유통센터를 신규로 건립하고, 비축물량을 2011년의 2배 수준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고, 농어업 경영인의 소득을 향상시켜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귀농·귀촌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확대·개편하여 귀농·귀촌에 필요한 정보·상담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농지·어선·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지원과 농어촌 주택구입 시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함께 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과 연계하여 2015년까지 마을단위 공동경영체 5천개를 육성하겠습니다. 농어촌의 고령화·공동화에 따라 마을단위로 공동경영을 활성화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마을 고유의 자원을 활용하여 농어업 경영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쌀 들녘별경영체,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등 공동영농·영어를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물을 가공·상품화 할 수 있도록 파일럿 플랜트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여행코스 개발 및 농어촌 관광등급제 도입 등을 통해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밭농업, 어업분야에 직접지불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친환경농업직불제의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등 직접지불제를 확충·내실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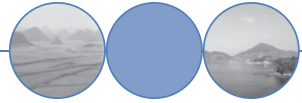
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농어업 경영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장치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식탁에 고품질·안전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소비자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 농수산물 위해요소의 사전 예방체계를 내실화 하고, 도축장·중금속 오염지역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농어업 경영인, 소비자, 식품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농식품 인증제도 개편 및 원산지 표시제도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인 식량확보를 위해 자급률 향상이 시급한 품목을 중심으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민간의 해외농림어업개발을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동남아·동유럽 등에 43천ha 규모의 대규모 신규 농장개발을 추진하고, 대체어장 개척, 수산시설 투자 등 해외 수산자원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업자원 확보와 공적개발원조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해외농어업자원의 효율적·안정적 이용기반을 확보하고,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 및 아프리카·아시아 지역의 사막화 방지와 식생복원을 위한 산림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품종·재배기술 등 적응역량을 강화하고, 숲가꾸기, 바다숲 조성 등을 통해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농어업 경영인과 식품산업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농림수산식품 관련 단체 임직원과 공직자 여러분!

올해에는 세계경제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들 합니다. 우리경제도, 농림수산식품산업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농어업 경영인과 식품산업인, 그리고 공직자들이 힘과 슬기를 모은다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현장농정을 통해 정책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공직자들은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결하는 한편, 더욱 낮은 자세로 농어업 경영인과 식품산업인,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업 경영인과 식품산업인 여러분도 행복하고 풍요로운 농어촌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 규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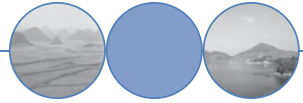
2013. 1. 1.

신년사

존경하는 농어업인과 식품산업 관계자 여러분!
농림수산식품 관련 단체 임직원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농림수산식품산업과 농어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희망찬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난 해는 연이은 세 차례 태풍으로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많았고, 국제 곡물
가 급등, 한·미 FTA 발효 등으로 대외환경이 크게 달라진 시기였습니다. 정
부는 현장 농어업인들이 처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소비자의 식탁을 책임진
다는 자세로 일해 왔습니다. 농어가의 부채·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은
행,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일상화되고 있는 기상이변에 대응하여
재해보험과 지원 대책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식품산업을 육성하
여 4년만에 농식품 수출을 2배 이상확대하였으며, 농협·수협이 협동조합 본
연의 역할인 경제사업에 충실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 수출을 늘리고, 세계 농어업 강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농어업인과 식품산업 관계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해도 우리에게 많은 도전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국제곡물 등 원자재 가격도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첫해로 국민들의 다양한 기대와 요구를 반영해서 앞으로 5년간 농정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하는 시기입니다. 농림수산식품 공직자 모두가 농어업인, 농어촌, 농림수산식품산업, 소비자를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정책방향에 주안점을 두어 역량을 결집해 나갑시다.

먼저, 농어업인이 안정된 소득을 올리고, 경영위험에 보다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직접지불제와 농어업재해보험이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경영안정 수단으로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이후 동결된 쌀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현재 운영 중인 직불제를 점검하면서 저탄소, 동물복지 등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빈발하는 재해에 대비하여 재해보험과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사전예방에 충실하도록 생산기반 정비, 시설 등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사료, 비료, 농약 등 투입재 가격을 안정시키고, 업체와 농어업인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돕겠습니다.

둘째,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농어촌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도록 힘쓰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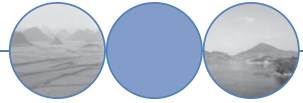
도시와는 다른 농어촌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의료 등 농어촌 맞춤형 복지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를 확충하여 농어촌에서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도시 학생들도 찾아오는 특색 있는 소규모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노후된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주요 권역별로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농어촌이 갖고 있는 다양한 향토자원, 특산물, 전통·문화유산을 상품화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가치가 농어업인과 농어촌에 되돌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귀농·귀촌 인구에게 신속한 정보제공, 정책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정착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셋째,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준비를 위한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미국, EU 등 농어업 강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수출 농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유리온실, 양식장 등 시설현대화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품종과 기술개발을 위한 R&D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산업과 농어촌의 미래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능력과 비전을 갖춘 젊은 인재들이 농어촌에 모여들 수 있도록 농지, 자금 등의 지원을 개선하고, 교육·컨설팅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생명공학·정보통신 기술을 생



산, 가공,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탄소 흡수원이자 휴식의 공간인 산림 조성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산림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 확대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우리 식품산업이 세계 속에 자리잡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천하겠습니다.

식품산업은 농어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토대입니다. 국가 식품클러스터에 세계적인 식품기업들이 모여들고,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R&D를 통해 세계 식품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과채류, 양식 수산물 등 수출 전략품목을 집중 발굴·육성하고, 한식을 통해 우리의 우수한 식문화를 세계에 널리 전파하겠습니다.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농림수산식품산업 발전의 근간입니다. 친환경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자원이 순환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생산방식과 기술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식량안보, 농식품 안전성, 식생활 교육·영양개선 등을 국가적인 아젠다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 행정은 현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농어업인과 소비자, 정부가 함께 정책을 만들고, 고쳐나가면서 현장과의 간격을 좁혀 나가겠습니다.

현장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서 농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농어업인과 식품산업 관계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농림수산식품 관련 단체 임직원과 공직자 여러분!

‘상생과 통합’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농림수산식품산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 수요자, 현장전문가와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각 계의 다양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채널을 만들겠습니다. 농어업인과 식품산업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정부가 혼연 일체가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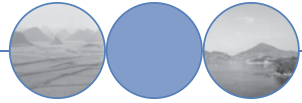
뱀이 구태의 허물을 벗고 매년 새로 태어나듯이 계사년 새해를 맞아 우리 모두 ‘일신 우일신(日新 又日新)’의 자세로 함께 전진해 나갑시다.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첫 해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농림수산식품 공직자 모두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한다는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길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농림수산식품산업이 발전하고 농어촌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시 한 번, 새해를 맞는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 규 용



2013. 3. 11.

이임사

존경하는 농림수산식품 공직자 가족 여러분!

이제 저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내려놓고 여러분께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제가 대과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모두가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매진한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농어촌, 농식품 산업이 처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분 한분 각자의 자리에서 열과 성을 다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취임하면서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을 건설하자는 신념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호흡해 왔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은, 저에게 힘들고, 고된 순간도 있었지만 매 순간 참으로 가슴 벅차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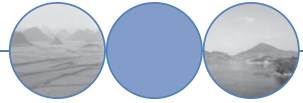
미국 캘리포니아 젓소농장에서 광우병이 나왔을 때, 국회에서 ‘수입중단이 나 검역중단을 하라’고 요구했는데 ‘그런 짓 왜 하느냐?’고 대답해 신문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저는 광우병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과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 원칙과 소신에 따라 당당하게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청계천 광장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촛불시위에 참가하면서 매일 살얼음판 같은 하루하루를 지날 무렵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의 격려 전화와 칼럼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여론이 바뀌면서 광우병 대응을 흔들림 없이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농촌은 물론이고,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안긴 2011년 구제역과 AI 발생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상황실을 설치하고, 전국을 점검하고 또 점검 하면서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굶은 날씨에도 여러분과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정성껏 현장을 살펴주었고, 제 간절한 기도 역시 통했는지 2012년에는 구제역과 AI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4년 만이라는 전례 없는 가뭄발생으로 농수산물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상황실을 설치하고 선제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잘 대응했지만, 기상 관측이래 처음으로 3차례 큰 태풍이 발생하면서 쌀마저도 모자랄 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고 RPC 벼 매입 조절, 정부 비축미 공급 등을통해 간신히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 배추파동 당시 배추 한 포기에도 만오천이나 이만원 하던 것을 상시



비축제를 실시함으로써 포기당 오천원 이하에서 유지하였고, 배추밭을 갈아엎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값이 쌀 때 사 비쌀 때 팔아주는 상시 비축제가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현장을 돌아다닌 거리가 31,618km 정도 되니, 거의 지구 한 바퀴(40,120km)를 다닌 셈입니다. 현장을 돌아보는 것이 제게는 큰 보람이자 중요한 업무였고, 어느덧 몸에 밴 습관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농어민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을 시책에 반영하였습니다.

한·미 FTA 비준 당시에도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정부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농어민과 소통함으로써 한·칠레 FTA에 비해 수 십배 높은 파고를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수산분야에 대해서도 진심어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적으로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수산분야에 직불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10대 전략품목 육성, 양식시설 현대화, 비축물량 증대 및 산지 거점유통센터 육성 등을 위해 작년에 비해 2013년도 예산을 8.1%나 늘렸습니다.

2012년 3월 미국에 남해안의 굴 수출 길이 막히자마자 대응반을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토록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교부세를 긴급히 지원받아 오염원관리 조치를 마무리함으로써 마침내 올해 2월에 미국 FDA로부터 굴 수출을 재개하라는 공식적인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차질 없이 해냄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의 '농어업도 산업으로 경쟁력을 길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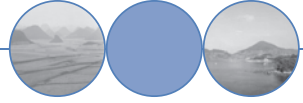
살아남을 수 있다’는 농정철학을 성실히 이행하고, 우리 농어업을 선진 농어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초를 다졌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남습니다. 업무에 대한 열정 때문에 여러분을 독려했던 것이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사이에 거리감을 갖게 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제가 여러분에게 소원하게 한 점이 있었다면 사적인 감정에서가 아니라 대의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널리 헤량해 주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농림수산식품 공직자가족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면 어려운 농어업인들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언제쯤 우리 농어업을 선진화 할 수 있을까?’ 하는 꿈을 꾸어 왔습니다.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저는 이제 우리 농어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농어민과 가슴을 맞대고 대화하며 소통한다면, 선진 농어업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대한 열정, 타이밍과 현장감, 그리고 신뢰’가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이러한 점들을 깊이 유념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제 막 새 정부가 힘차게 닳을 올렸습디만, 정부 조직개편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계속되는 현안 때문에 떠나는 제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 농어업, 농어촌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을 응원하고, 미력하나마 우리 농어촌·농
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동안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
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3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 규 용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II. 연설문

-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기조연설문 | 36
- 전국 치어방류 행사 격려사 | 39
- 제1회 세계 수협 의 날 치사 | 41
- G< 포럼 오프닝 축사 | 44
- 한계저수지 독농이기사업 격려사 | 47
- 제1회 녹색식생활교육박람회 격려사 | 50
- OIE 광견병 국제컨퍼런스 만찬 환영사 | 53
- 제4회 한우의 날 영상 격려 메시지 | 55
- 2012 마드리드 퓨전 연설문 | 57
- 2012 수산전망대회 축사 | 60
- 제1회 국제식품클러스터 포럼 축사 | 66
- 무궁화 1호 취향식 치사 | 69
- 제31차 FAO 아태지역 총회 연설문 | 71
- IPPC 60주년 축하 영상 메시지 | 74
- 제13회 농수산식품 수출탑 시상식 및 수출전진대회 기념사 | 76
- 「농기계조합 50년사」 발간 축사 | 79
- 2012 대한민국식품대전 개막식 치사 | 81
- 제9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격려사 | 83
- 제18회 세계농업기술상 시상식 축사 | 86
- 도농교류 농촌사랑대상 시상식 격려사 | 89

2011. 5. 31. | 러시아 카잔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기조연설문

먼저, 전통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도시 카잔에서 APEC 장관회의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러시아 관계자 및 APEC사무국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의 기아 인구는 9억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향후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곡물 생산량을 50~70%, 특히 개도국은 100%를 더 늘려야 합니다.

인구의 증가와 생산성의 정체가 교차되는 시점에 APEC이 식량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과제도 균형 있게 선정된 것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지역 내 생산성 증대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생산 및 생산성 증대 관련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반투자, 농업기술개발, 품종개발, 자원의 적절한 활용, 동식물 질병예방이 중요하고 기후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후변화의 위험을 감안할 때 기후변화 적응은 농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한 열쇠가 됩니다. 기후변화 적응은 한 국가의 노력으로 달성하기 불가능하므로, APEC 회원국의 협력과 관련기구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합니다.

둘째, 무역촉진과 식량시장 개발 관련입니다.

인류 행복증진을 위한 식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식량안보는 식량이 필요한 시점에 자유로이 이동되고, 가격변동성이 적을 때 훨씬 수월하게 달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식량 수출국은 수출금지, 수출제한 및 과도한 수출세 부과 등의 조치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업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적극적 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식품안전과 품질향상입니다.

인류의 행복은 풍부한 식량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품질 높은 식량에도 달려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환경오염에 따른 농업여건의 악화와 동식물 질병은 큰 도전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APEC 회원국이 친환경유기 농식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동식물 질병 예방을 위한 수단과 통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더 큰 진전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넷째,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식량공급 관련입니다.

전 세계 식량수급 상황을 보면 국가별로 불균형이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개도국 및 식량 부족국의 안정적 식량확보 방안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KOPIA 및 AFACI를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한민국을 포함한 APEC 회원국의 기술이전 효과가 지역 및 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실천적 노력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관리, 불법조업에 관한 것입니다.

인류의 미래식량의 원천은 바다가 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자원의 남획과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고갈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해양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APEC 회원국은 해양어업실무그룹(OFWG), 지역수산관리기구(RFMO) 등 양자 및 다자 파트너십을 활성화하여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식량안보에 관한 카잔 APEC 공동선언이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좋은 성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1. 6. 15.

전국 치어방류 행사 격려사

어업인 여러분!

존경하는 김두관 경상남도지사님, 이주영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허기도 경상남도의회 의장님, 박완수 창원시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창원·마산·진해시가 하나된 자율통합 도시 창원시에서 수산자원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꿈을 담아 ‘전국 치어방류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산자원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비전과 자원을 조성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최근 국제식량농업기구인 FAO에서는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바다 자원이 감소되면서 지속적인 가격상승을 경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연근해 어장도 빠르게 환경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수산업의 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산물은 건강 식품으로 인식되고 있고 꾸준히 소비가 늘어나고 있어, 여건 변화에 대응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지금까지 수많은 파도를 헤쳐 왔듯이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나라는 육지 면적에 비해 약 4.5배에 달하는 바다를 소유하고 있고, 어업인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인 수산자원은 잘 관리하면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율갱신자원’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수산자원관리 정책추진과 더불어 수산자원의 주인인 어업인 여러분 스스로가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풍요로운 바다를 영원히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전국 치어방류 행사를 통하여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한 수산물 공급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어업인 여러분 스스로도 가장 소중한 재산인 수산자원 관리에 노력하여 미래에도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수산업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전국 치어방류 행사를 준비하신 사단법인 한국해산종묘협회 회원 여러분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6. 16.

제1회세계 수협의 날 치사

수협중앙회 이종구 회장님과 ICA 찰스 굴드 사무총장님과 세계의 수협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해걸 의원님! 그리고 일선수협 조합장님을 비롯한 국내외 수산업 관계자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수협중앙회와 ICA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회 세계 수협의 날’ 기념식이 성황리에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서 축하의 인사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 ICA : International Cooperative Association(국제협동조합연맹)

* 주요 참석 인사(200여명)

- 국외 : ICA 사무총장(찰스 굴드 / 미국), 수산위원회(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의원 등 9명

- 국내 : 국회 위원, 회원 조합장, 한국협동조합협의회 등

존경하는 국내외 귀빈여러분!

저는 수산업은 국가 경제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60여년 전 6.25라는 전란을 겪은 우리나라가 좁은 국토와 미약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유례없는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수산인들의 노고가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봅니다.

1958년 수산물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5.3%를 차지하는 외화 가득원으로서 향후 우리나라가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된 주요 기반이 되었다고 봅니다.

* 1958년 수산물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16.7억불)의 25.3% 차지(4.2백만불)

* 2010년은 우리나라 총수출(3,635억불)의 0.4% 차지(15억불)

그런 의미에서 수협중앙회는 수산인들의 중심에 서서 그런 시대적 역할을 감당해 왔으며,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업인들과 함께 수산의 미래를 개척하는 중심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수협중앙회가 2009년부터 ICA 수산위원회 위원장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것은 전세계 수산업과 어업인을 위해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1회 세계 수협의 날'을 통해 수산업 협동조합의 이상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각국 회원 상호간 우호를 증진하길 기대합니다. 더불어 과거 협동조합의 성과를 고찰하고 미래의 협동조합의 역할을 모색하는 새로운 발전방향도 논의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는 전 세계 협동운동의 확산과 더불어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세계 수협인과 참석자 여러분!

오늘이 세계 수산업의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1회 세계 수협의 날’ 행사 주제가 “미래 세계 수산을 위한 회원의 전문성과 경험 공유”라고 들었습니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 ‘정보와 지식’은 그 사회의 핵심적인 가치 창출의 원동력입니다. 특히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 수산 자원 고갈 등 전 세계 수산업이 당면한 위기는 혼자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는 각국의 수협이 공동 번영이라는 공통의 미래 목표를 설정하고, 각자가 보유한 경험적 가치를 활발하게 공유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ICA 수산위원회 위원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한국의 수협중앙회가 그 가교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것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세계 수협의 날은 세계의 수산인들이 상호부조의 협력정신을 바탕으로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 나아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정부도 수협과 함께 지속가능한 어업, 안전한 수산물 공급,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세계 수산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식량 역군으로서 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1회 세계 수협의 날 행사를 축하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6.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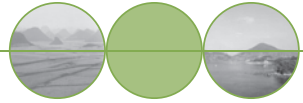
G & LT 포럼 오프닝 축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Green & Life Technology 포럼 오프닝 기념식에 참석하여 주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화동 차관님을 비롯하여 대학, 연구소,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G< 포럼은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는 정례적인 논의의 場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우리 부 최초의 과학기술포럼입니다.

농업이 1차 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2차, 3차 산업이 융복합된 첨단산업으로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첨단과학기술의 접목과 타 분야와의 활발한 교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G< 포럼은 경제·사회분야, 타 과학기술분야,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과 농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OECD는 2030년 경에 다가올 바이오경제시대에는 고품격의 먹거리를 공급하고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을 이끄는 농업이 중심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이러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열쇠가 바로 농림수산물품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임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제역, AI 등 국가적인 재난상황 발생 시 정확한 과학적 논거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전문조직체로서의 역할도 농과위를 중심으로 한 포럼을 통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부는 농림수산물 산업이 효율적인 R&D 추진 등 과학기술 정책으로 튼튼한 기초체력을 다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에 ‘과학기술육성법’을 제정하고 장관 심의자문기구로 ‘농림수산물 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과학기술의 중장기계획인 ‘농림수산물 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수산물 기술기획평가원’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설립하는 등 R&D추진의 발판이 되는 여러 가지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최근에는 R&D 외연확대와 성장동력 산업육성을 위한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골든씨드 프로젝트’, ‘생명자원소재산업화기술개발’, ‘기후변화대응 R&D’ 등 대형 R&D 사업 기획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부 R&D정책의 변화 속에서 앞으로 G< 포럼을 운영하게 될 ‘농림수산물 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6월23일)를 통과함으로써 법적 심의기구로 격상됨에 따라 실질적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과학기술정책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농과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농과위 설립 2주년을 맞이하는 시점과 맞추어 발족하는 G< 포럼을 통하여 현안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우리 농업의 현실에 밝은 희망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농진청, 산림청, 산하 연구기관, 타 분야 전문가님들의 많은 조언과 주제발표가 포럼을 통하여 이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포럼을 시작으로 금년 8월, 10월, 12월 두 달에 한번 씩 G< 정기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시고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초청강연을 허락해 주신 김화동 차관, 이무하 원장, 김용환 대표, 구희진 전무께 감사드리고 오프닝 포럼 강연을 통해 우리 농업의 나갈 길에 대한 좋은 말씀을 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6. 30.

한계저수지 독높이기사업 격려사

존경하는 충청도민과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농업분야 4대강 살리기 전체 사업지구 중 처음으로 한계저수지에서 독높이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준공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행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이시종 도지사님, 변재일 국회의원님, 김형근 도의회 의장님, 이종운 청원군수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많은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사명감으로 애써주신 농식품부 관계자 여러분과 오늘 행사를 준비하여 주신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저수지 독 높이기 사업은 노후화된 저수지 독을 높여 홍수조절용량을 키워 수해를 경감하고, 부족한 농업용수와 농촌지역의 생활·공업용수 등 다양한 용수로 공급되어 미래 영농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비영농기에는 남는 물을 하천에 공급하여 수질개선과 하천경관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물이 4대강으로 흘러들어 새 생명으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준공식이 열리는 이곳 한계저수지는 인근에서 가장 청정지역에 위치한 고요하고 맑은 저수지로서, 청주를 비롯한 많은 인근지역 주민들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1978년에 만들어진 30년이 넘는 노후화되고 용수가 부족한 저수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독 높이기 사업을 통해 제방이 보강되고 담수능력이 크게 증대되어 앞으로 가뭄과 수해 걱정을 덜게 되는 안전한 시설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계저수지 생태공원은 저수지 북쪽의 선도산을 넘어 청주 상당산성 쪽으로 가는 등산 및 자전거 하이킹 코스와 연결되어 있어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쉼터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수탑도 팔각정으로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만남의 장소로서 활용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한계저수지가 명실상부한 지역주민의 자랑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지역주민 및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농림수산식품부는 한계저수지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4대강내 독 높이기 96개소 모두를 완공하여 수해 및 한해로부터 안전한 영농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올해말에는 4대강 인근 농경지 140지구 약 8,000ha에 준설토를 성토하여, 저지대 상습 침수지를 문전옥답으로 재탄생시키고 인근 농민에게는 새 희망과 비전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계저수지 독 높이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준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일처럼 협조해 주시고, 뜻을 함께 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주민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업분야 4대강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살기 좋은 농촌, 잘 사는 농업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지역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여러 난관을 헤치며 땀과 열정을 바쳐온 농어촌공사와 시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와 성과에 치하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계저수지 독 높이기 준공식에 참석하여 주신 충북도민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7. 1.

제1회 녹색식생활교육박람회 격려사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올바른 식생활 문화 정착을 위한 ‘제1회 녹색식생활 교육박람회’ 개최를 전국의 농식품인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행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이재오 특임장관님, 김영진 국회의원님, 김춘진 국회의원님, 정재돈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많은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사를 준비하여 주신 황민영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상임대표님, 하영제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높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잘못된 식습관으로 비만과 당뇨병 환자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오래전부



터 식생활 지침서를 개발·보급하고, 텃밭을 조성하여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건전한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대 이상 성인 10명중 3명이 비만 상태이며, 당뇨병 환자가 국민 10명중 1명 수준으로 과거보다 크게 증가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연간 6천억원이나 발생하고 있어 건전한 식생활 교육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올바른 식문화 형성을 위한 녹색식생활교육 사업은 2009년 제정된 ‘식생활 교육지원법’을 토대로 2010년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식생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5년간 시행할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범국민적 민간캠페인 전개를 위해 농어업, 교육, 식품영양, 소비자단체 등 2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가 발족하였고, 15개 시·도에 지역네트워크를 결성하여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에서의 올바른 식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여러 기관과 지역에서 시행중인 다양한 녹색식생활 사례를 어린 세대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자리에 모두 모아 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제1회 녹색식생활교육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단 개발 보급을 확대하고,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

승·발전시켜 한식을 세계화하는 정책적인 노력과 친환경 식품의 생산과 소비를 권장하는 합리적 식생활교육 확산 노력을 앞으로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올바른 식생활 교육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학부모, 교육 관계자 등 모든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번 ‘제1회 녹색식생활교육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가정, 학교, 지역에서의 식생활교육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박람회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9. 8.

OIE 광견병 국제컨퍼런스 만찬 환영사

친애하는 베르나 발라(Bernard Vallet) OIE 사무총장님,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해 주신 국제기구, EC 및 각 OIE 회원국 대표단과 내·외 귀빈 여러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광견병 국제 회의가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오늘 만찬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 뵈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인류는 어느 때보다도 바이러스와의 힘겨운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악성 전염병은 한 나라의 사회적 혼란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광견병의 경우 지구상 25억 인구가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람과 애완동물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이의 근절을 위해서는 수의학, 의학, 환경생태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각 국가의 광견병 방역 상황을 공유하고 국가 간 협력사항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 해보는 한편, 광견병의 공중보건학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에서 달라진 위상과 책임에 걸맞게 가축 질병 근절을 위하여 OIE 등 국제 협력기구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더욱 더 견고히 유지하여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광견병국제회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회의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고국으로 무사히 돌아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11. 1.


제4회 한우의 날 영상 격려 메시지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민족산업인 ‘한우의 날’을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한우인과 소비자단체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구제역 발생과 한우가격 하락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한우산업을 지켜내고 계신 우리 한우인 여러분에게 큰 격려를 드립니다. FTA 등 시장 개방 확대로 인해 한우산업에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몰려오더라도, 그동안 우리 한우인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저력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부는 한우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명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우인 여러분과 지혜와 힘을 모아 대책을 마련하여 꾸준히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제4회 한우의 날’ 뜻 깊은 축제의 장에서 한우인 여러분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한우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1. 23. | 스페인 마드리드

2012 마드리드 퓨전 연설문

내외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스페인의 아름다운 도시 마드리드에서 세계적인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2012 마드리드 퓨전'에 초대해 주시고, '한국의 맛'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한국 전통의 새해 첫날, '설날'입니다. 제가 한국말로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날이 되면 떨어져 사는 가족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한국 전통 음식들을 먹으면서 새해를 축하합니다. 말하자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일행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에 가족을 '버리고', 여러분을 만나러 온 것이지요. 그만큼 오늘 저희는 이 만남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멋진 장소, Casino de Madrid에서 한국 음식을 여러분에게 대접하게 되다니, 정말 멋진 일입니다!

한국의 드라마와 대중음악을 통해 한국 대중문화, 한류가 현재 세계 곳곳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이번 '2012 마드리드 퓨전'이야말로 한국 음식을 세계무대에 널리 알리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오늘 수산물, 채소, 나물, 고기 등 다양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은 김치와 같은 다양한 발효식품과 수산물, 소스가 매우 유명합니다.

현재 세계는 더 맛있는 음식, 더 건강한 음식, 더욱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점이 마드리드 퓨전 같은 세계적인 음식 축제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며, 이런 의미 있는 행사에 한국 음식이 동참하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속담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누구를 만나든, 얼마나 길게 만나든, 만남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옷깃만 스치는 게 아니라, 한 테이블에서 함께 만찬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우리가 정성으로 준비한 각각의 특별한 음식들을 기쁜 맘으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음식과의 만남이 앞으로 여러분이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음식을 앞에 두고 말이 길면 안 되는 건 동서양이 마찬가지로이겠지요?
배고프시죠? 그래서 저희가 따로 Press Kit를 준비했습니다. 역시 아름답네
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궁금하신 내용은 이것을 차분히 살펴보시면 많은 도
움이 될 것입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의 이 만남을 소중한 계기로 한국 음식의 맛과 멋이
유럽은 물론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2012 수산전망대회 축사

오늘 수산생명산업 미래와 한국 수산업 전망을 주제로 한 '2012 수산전망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 우리 수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수산물 소비는 증가하는 데 비해 수산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FAO 등 국제기구는 국제 수산물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휘시플레이션(fishflation)의 도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까이 중국의 수산물 소비 증가는 우리 수산업에 거대한 시장이라는 기회인 동시에 연근해에서 조업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을 예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제적 수산업 환경과 글로벌 시장 변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과제는 결국 미래 예측과 대응, 경쟁력 확보로 압축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수산기업·대학·연구기관 등 각계에서 우리 수산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리더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수산생명산업의 미래와 올 한 해 수산업을 전망하고 발전 방향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수산업은 '97년 전면적인 시장개방 이후에도 개방의 흐름을 잘 이겨내 왔습니다. 연근해 생산량이 크게 위축되지 않았고 양식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수출액도 '07년 12억불 수준에서 4년만에 2배가 되어 '11년 수산물의 수출액은 23억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우리 수산업의 앞날에도 넘어야 할 많은 위기가 있고 이와 동시에 우리 수산업계의 꿈을 펼칠 기회 또한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수산업계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큰 흐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FTA 등 시장개방과 글로벌 경쟁의 흐름입니다.

수산업도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생산주체, 기술력, 품질과 위생수준, 마케팅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산업에 자본과 인력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경쟁력 있는 수산업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두번째, 안전·위생·품질·웰빙트렌드 등 소비자와 국민의 기대, 시장의 흐름입니다.

수산물이 웰빙트렌드에 맞는 단백질공급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인당 수산물소비량이 2010년 약 50kg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증가율이 57%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축산물소비량 증가율이 6%인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수산업계는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유통시스템 구축에 한 뜻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바이오 경제시대의 도래입니다.

지구상 생물의 90%가 해양생물로서 다양한 신소재 개발 등 수산생명산업의 미래는 무한합니다. 생명산업 안정적 원료의 확보라 할 것입니다. 수산양식의 생산성 증대, 수산생명자원 기술의 개발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산업을 둘러싼 세 가지 큰 흐름을 정확히 읽고 여기에 맞춰 우리 수산업 발전 방향을 맞춰 나간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수산업은 반도체나 자동차 못지않은 고부가의 수출전략산업, 미래 효자산업으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우리 수산업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여섯 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미래 수산업의 생존을 위한 '차세대 신수산 성장기반 구축' 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 핵심내용은 우리 수산업의 전반에 걸쳐 근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FTA 등 시장개방에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생명산업, 어선조선산업 등으로 수산업의 범위를 넓히는 등 향후 10년 후를 대비한 발전전략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방에 대응한 한·미 FTA 추가보완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이상 노후된 해면 및 내수면 양식시설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금리 1%의 양식시설현대화 자금을 신설, 지원하겠습니다. 2017년까지



총 1,200개소 양식시설의 현대화를 목표로 올해 220개소를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의 어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육지에서 50km 떨어진 도서 1,415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연간 49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부터 육지에서 8km 떨어진 도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간 2,000만원까지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하고, 어업용 면세유 적용을 10년간 유지토록 하며, 농사용 전기료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성장 잠재력이 큰 갯벌참굴, 해삼, 광어, 전복 등 10대 양식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2020년까지 전체 수산물 수출 100억불을 달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외해·갯벌 등 4천ha의 신규어장을 개발하고 민·관·학·연 연구클러스터를 구성하여 맞춤형 양식·가공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갯벌양식어업육성법’을 제정하여 방치된 갯벌의 체계적인 이용·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고소득 품종 양식을 확대하기 위해 전복, 김 등 신규 어장개발이 금지된 8개 품목의 개발 제한을 전부 해제하고 양식품목 자율선택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양식산업 발전과 규모화를 이끌어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거점 위판장과 연계, 상품개발·마케팅 기능을 강화한 수산물거점유통센터

(FPC) 2개소를 신설하여 생산자단체의 판매사업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며 노량진수산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내에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제수산 협상 역량 강화 및 ODA 확대를 통한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인 이용 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협상 인력·조직 보완을 위해 국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산협상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협상 대응력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상 가이드라인,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미래 수산업을 이끌어갈 정예 인력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현대화를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어선원 복지를 확충하여 젊은 인력이 연근해어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위해 어선 톤수제한 완화, 연근해 업종재편 등 어업제도도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턴제, 창업연수 지원 및 어촌정착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확대 등 신규유입 촉진 프로그램을 개발·보완하고, 10대 전략품목별 산업화와 수출확대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우리 수산업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식량산업을 뛰어 넘어, 글로벌 경쟁력으로 세계 수산시장을 공략할 수출전략산업,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여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수산업계, 학계, 연구기관과 수산단체가 함께 힘을 모읍시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가 우리 수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 2. 21. | 팔래스호텔

제1회 국제식품클러스터 포럼 축사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입니다.

‘제1회 국제식품클러스터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발표를 맡아주신 미래학계의 석학이신 하와이대 짐 데이토 교수님, 캠든 BRI 연구소 최고 책임자 마틴 홀 박사님, 스웨덴 푸드네트워크 CEO 로타 토너 박사님 그리고 신동화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세계 식품시장의 규모는 2010년 5.1조 달러에서 2020년에는 6.4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에 2017년까지 수출 200억 달러를 목표로 하는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 최초로 부처 명칭에 ‘식품’을 추가하고, 건강식이자 웰빙음 식인 ‘한식’을 세계에 적극 알린 결과, 농식품의 수출 증대와 한식 인지도 제고라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기업인, 학계, 전문가 모두 합심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정부는 미래 식품산업을 이끌어 갈 핵심 사업으로 2015년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전북 익산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토지 보상에 들어가는 등 산업단지 조성절차를 본격 진행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품질안전센터, 기능성 평가센터, 패키징 센터 등 3대 R&D센터를 설치하여, 기능성제품의 생산 주기를 현재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하는 등 ‘기업하기 가장 좋은 산업단지’를 만들겠습니다.

이 산업단지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서지만 특히, 기업들이 시제품을 생산·시판할 수 있는 최첨단 파일럿플랜트를 구축하여, 네덜란드 등 선진국 수준의 시제품 생산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1급수의 생활용수를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스웨덴과 같이 기업·연구기관들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혁신 네트워크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포럼과 같이 세계 석학들이 식품산업의 미래와 클러스터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신 미래학계 석학이신 김 데이토 박사님 등 발표자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2. 22. | 부산항 5부두

무궁화 1호 취항식 치사

오늘 정말 경사스러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악천후의 거친 바다에서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전국의 수산인 여러분과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2012년 흑룡의 해, 임진년 오늘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1호'의 취항을 함께 축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가어업지도선 건조를 위해 애쓰신 동해어업관리단 직원, 공사감독자와 삼원중공업, 감리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취항하는 무궁화 1호는 황천에서 안전항해가 가능한 복원성능과 자동항법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갖추고 25일간 항해가 가능한 선박으로 우리나라 어업현장 최 일선에서 우리 어업인의 안전조업 지원과 수산자원 보호 임무의 첨병 역할을 다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 바다는 주변 연안국과 총성없는 전쟁으로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중국 어선들의 횡포와 무허가 조업으로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이고 우리 어업인들의 생업이 심각하게 위협받기도 하였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수산인 여러분!

귀중한 식량자원의 보고인 우리 바다를 지키고 가꾸어 후손에게 풍요로운 어업의 터전을 물려 줄 수 있도록 모두 합심하여 노력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무궁화 1호 취항이 해양환경 오염과 어획자원의 고갈 등 어려운 환경 극복을 위해 수산인, 정부기관,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취항하는 ‘무궁화 1호’는 어업인의 안전과 불법조업의 사전 예방을 위한 파수꾼으로, 풍요롭고 안전한 바다를 위해 어업인 여러분과 함께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어업환경 변화속에 적극 대응하여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안전의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어업감독공무원 모두 깊이 명심하여 임무에 임하시길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수산인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취항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무궁화 1호의 안전운항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2. 3. 12. ~ 3. 16. | 베트남 하노이



제31차 FAO 아태지역 총회 연설문

의장님, 사무총장님, 독립이사회 의장님, 장관님, 존경하는 대표단, 신사숙녀 여러분, 역사적인 도시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제31차 FAO 아태지역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연설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2010년 9월 27일에서 10월 1일 경주에서 열린 제30차 FAO아태지역총회를 주최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지역총회에는 28개국 대표단과 19개 옵저버가 참석하였으며 자국의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의장을 맡았습니다.

권고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최종보고서가 총회 사무국(Conference Secretariat)에 의해 모든 아태지역 회원국에게 배포되었으며, 이러한 권고사항에 대한 행동계획이 고위급회의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비록 총회 사무국이 배포할 전체 연설문에 있는 주요 권고사항을 요약하여 보고하지만 이 점에 관해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총회에서 아태지역에 관련된 다수의 정책과 기술적 사안이 면밀히 논의되었으며, 차기 2년간의 활동을 위한 우선순위에 관한 권고를 사무국에 제공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향후 10년 동안의 지역우선 과제 프레임워크(Regional Priority Framework)와 아태지역 지역사무소를 재구성하여 확인된 우선순위를 효율적으로 이행하도록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지역총회는 즉각행동계획(IPA)의 이행과 관련한 진전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지역사무소의 전문적 역량 강화를 통해 효율성 및 생산성을 한층 제고시키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태지역총회가 역점을 두는 부분은 국가사무소에 대한 충분한 전문적 지원의 제공을 확보하는 것과 조직 내부 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 기타 UN산하기구 및 기타 개발파트너와 효과적으로 연결된 지역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이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일부 진전이 이루어진 점과 신임 사무총장님의 다섯 가지 우선 과제 중 하나가 동 주제라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사무총장님의 동 목적에 관한 행보에 총회 회원국의 전적인 지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지난 제30차 FAO 아태지역총회가 제36차 FAO총회에서 승인된 FAO 개혁 행동계획에 따라 아태지역이 FAO Governing Bodies의 부분을 구성하게 된 이후 열린 첫 지역총회라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제 FAO 거버넌스 내 지역총회의 역할이 변화하여, 지역총회의장이 차기 지역총회까지 의장직을 지속하게 되며, 세계 수준의 FAO Governing Bodies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인 동시에 제30차 아태지역총회의 의장의 대표자는 2010년 11월 29일에서 12월 3일 로마에서 개최된 FAO 이사회 제 31차 세션의 주요 권고사항을 요약 발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장관이자 제 30차 아태지역총회 의장의 대표자는 2011년 6월 25일에서 7월 2일 로마에서 개최된 제31차 FAO총회에서 주요 권고사항을 요약 발표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FAO총회는 제 30차 아태지역총회의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지역총회가 계속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FAO의 활동에 정책적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2. 3. 19.

IPPC 60주년 축하 영상 메시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IPPC 설립 6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한국에서는 60회 생일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 IPPC의 60회 생일에 제가 축하 인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자유무역 확대, 여행의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발,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병해충의 출현 등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의 위험이 확대되고 IPPC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IPPC는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의 제정 및 이행과 Capacity development 활동을 통한 자연자원의 보호와 농작물의 안전생산 및 무역 촉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 동안의 IPPC의 성과는 UN/FAO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와 무엇보다도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입니다.



지속적인 IPPC의 역할 강화와 국제적인 공조체계 확대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활동계획 수립과 이행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올해부터 2019년까지 중장기 계획(strategic framework)으로 수립한 병해충 확산 방지를 통한 안정된 식량공급, 환경 및 생물 다양성 보존, 무역 촉진 기여 그리고 이러한 계획들을 수행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능력 개발 과제가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은 IPPC 발전을 위하여 회원국간의 정보교류, 협력증대 및 지역 식물보호기구의 활동 강화 등 IPPC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매년 ‘국제기준(안) 마련을 위한 아시아지역 워크숍’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신탁기금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IPPC의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은 개도국과 선진국의 경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보기 드문 나라입니다. 이러한 발전 경험이 IPPC를 비롯한 국제기구 활동에 보다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IPPC 설립 60주년을 축하드리면서, IPPC가 자연자원 보호와 농작물 안전생산의 임무를 더욱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3. 20. | aT센터

제13회 농수산물식품 수출탑 시상식 및 수출전진대회 기념사

반갑습니다.

농식품 수출 증가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농식품 수출 노력을 격려해 주신 대통령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는 매우 뜻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우리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이 77억불이라는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불과 4년만에 두 배가 증가한 비약적인 발전이었습니다. 인삼 등 신선 농산물이 수출 10억불을 상회하였고, 김 등 수산물도 20억불을 돌파하였습니다. 국가별로는 일본 수출이 사상 최초 20억불을 넘어섰으며, 중국과 아세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향후 유망시장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올해도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식품 수출이 국가 전체 수출 증가율을 앞서고 있습니다만, 올해 수출목표인 100억불을 달성하려면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식품 수출은 단순히 상품을 해외에 파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우리 농어가의 소득을 높여주며 판로확보를 통해 농어가가 안정적으로 고품질 제품의 생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우리 농식품을 세계시장에 선보임으로써 자긍심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식문화와 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한 상품 수출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77년 국가 수출 100억불 달성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무역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된 것처럼, 우리 농림수산분야에서도 올해 100억불을 기필코 달성하여 온 국민에게 희망과 자부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농식품부는 시장의 요구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양식과 시설원예 분야의 높은 생산기술력 등 강점은 적극 활용하고, 물류인프라와 시장다변화 등 미흡했던 분야에는 지원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스타품목 육성입니다. 수출이 유망하고 농어가소득 기여도가 높은 25개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출지향형 R&D를 확대하여 전략품목을 추가로 발굴·육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출선도조직과 협의회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선도조직을 육성하여 수출창구를 단일화하고 수출업체 자율기구인 수출협의회를 통해 과당경쟁을 방지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고품질 농식품을 생산·수출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 확충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10년간 10조원 규모로 양식이나 원예 분야 등의 시설 현대화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러시아 등 유망시장에 해외 수출전진기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입니다. 중국, 아세안 등 신흥시장과 FTA 체결국에 대한 시장개척을 강화하고, 2020년까지 해외 한식당을 2만개 이상 육성하여 식재료 공동구매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양한 전략을 통해 정부는 우리 농식품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강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재정 지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유관 산업, 기관, 단체에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같이 해 나갈 때 이런 목표가 달성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전진대회를 계기로 수출에 대한 의지를 더 한층 다지면서, 새로운 기분으로 각자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수출 유공으로 수상을 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금년도 100억불 수출이 달성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 4. 24.

「농기계 조합 50년사」 발간 축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설립 50주년을 맞아 지나온 발자취를 정리하는 「농기계 조합 5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1962년 창립한 농기계 조합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농정의 변천사와 그 맥을 같이 해 왔으며, 그러한 역사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은 우리 농정사에 있어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농기계 조합 설립 시기인 1960년대만 해도 우리 농업 현실은 생산과 노동 측면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였고, 농업 노동력은 대부분 인력과 농기구에 의존하는 전근대적인 농업생산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50년만에 우리 농업은 선진 기계화 농업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논농사는 92%가 기계화가 되었고, 밭농사도 절반 이상을 농기계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기계는 우리 농업의 가장 기본적인 SOC이며,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이농현상과 고령화된 농촌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절대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농기계 산업도 동반 성장하여 농기계 수출액이 2000년 134백만\$에서 2011년에는 608백만\$을 기록하여 농기계 수출을 시작한 이래 최고의 수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우리 농업에 있어서 이러한 비약적인 발전은 정부의 농업 기계화 정책과 함께 농기계 조합을 중심으로 한 농기계 업체의 탐과 노력이 근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수입 개방화의 험난한 파고를 넘고, 선진농업·복지농촌 건설이라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농업 농촌발전과 농업기계 축진에 농기계 조합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듯이, 향후 우리 농업이 경쟁력 있는 농식품 산업으로 재도약 하는데 있어서도 농기계 조합의 충실한 역할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농업기계화 축진과 50년사 발간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농기계조합 임직원 여러분과 업체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농기계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농기계 조합 50년사」가 우리나라 농기계 산업과 농정역사에 있어서 소중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농기계 조합 5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5. 8.

2012 대한민국식품대전 개막식 치사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헌하시는 농업인 여러분, 식품기업인, 학계와 연구기관 관계자 등 우리나라 식품산업에 종사하시는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한민국식품대전’과 제30회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의 통합 개막식에 함께 자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님, 마렉 사비츠키 폴란드 농업농촌개발부 장관님, 각국 대사님, 그리고, 레이 헤이몬드 옥스퍼드대학 교수님, 그리고 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준비하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식품산업협회, KINTEX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식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품목이며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전 세계 식품산업은 세계 양대 산업인 자동차산업과 IT산업을 합친 것보다도 큰 시장이며,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가에서는 식품이 수출액의 10%를 차지할 정도의 국가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식품산업의 규모는 약 142조 원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2배에 가까운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지만 아직 더 발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식품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식품이면서, 문화인 K-Food를 중심으로 한 식품산업의 발전입니다.

K-Food는 K-Pop의 한류를 넘어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서 글로벌 식품시장을 주도할 경쟁력인 안전성과 영양학적 가치, 음식문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1월에 세계 정상급 셰프와 식품 전문가가 참석한 “스페인 마드리드 퓨전 2012” 행사에서 우리나라 전통발효식품이 격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IT·BT·NT 등 첨단기술을 식품산업에 접목할 때, 미래식품으로서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희망을 담아 오늘 여기에서는 “K-Food,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대한민국 식품의 과거를 배우고 현재를 만나 미래를 준비하는 뜻 깊은 박람회가 열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2 대한민국식품대전이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대한민국 식품의 우수성을 체험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식품대전’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10. 10.

제9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격려사

‘제9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가 문화유적의 도시 고창에서 열린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최규성 농림수산물위원회 위원장님, 김춘진 국회의원님, 김완주 전북도지사님, 이강수 고창군수님, 이종구 수협중앙회회장님 그리고 자율관리어업공동체위원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산업포장을 수상한 김영진 고창군 구시포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위원장 등 수상자 여러분과 참석해 주신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위원장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대회를 준비한 자율관리어업연합회와 고창군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오늘 자율관리어업 비전 2020의 선포는 변화, 차별 그리고 배려와 협력을 통하여 자율관리어업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자율관리 정신이 우리 수산업과 어촌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지난 2001년 시작한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불법어업 방지 등을 통해 어업소득을 높이는 등 어촌사회 변화를 선도해왔습니다.

지난 2001년 시작한 자율관리어업은 63개 공동체 5천여 명에서 현재 972개 소 6만6천여명으로 증가하였고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바다와 자원,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의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참여공동체의 어업소득도 05년 920백만원에서 2010년 1,183백만원의 연평균 5.9%씩 증대되었습니다.

수산업은 한때 EU 한·미FTA 등 시장 개방 확대, 기후변화, 유가 상승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국내의 수산물 수요증가, 세계최고의 양식 기술 보유 등으로 수출산업이며 신성장산업입니다.

넙치, 전복 등 10대 수출 전략 품목 집중 육성, 의해양식 및 개별 양식어업 등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수산예산을 1조 4천억원에서 2013년에는 1조 5천억원으로 8% 증가시켰으며, 수출 전략 품목 육성을 위해 153억원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자율관리어업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자원 및 어장관리, 적정 생산에 의한 안정적인 어업 기반정책 등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오늘 산업 포장을 수상한 고창군 구시포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김영진 위원장은 연안개발과 불법어업으로 자원이 감소하고, 소득이 낮아진 생계곤란 어촌계를 자율적 자원관리를 통해 생산량을 2009년 315만톤에서 2011년 362만톤으로, 1인당 총 어업 소득은 2009년 3천만원에서 2011년 4천백만원으로 높이는



등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수산업 발전을 위해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여러분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합니다.

오늘 자율관리어업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변화와 조화의 미래 어촌, 자율관리어업”이라는 앞으로 자율관리어업은 어촌 공동체의 변화를 선도하고 공동체간 배려와 협조를 통해 거과거 새마을운동과 같이 어촌 지역사회공동체 운동으로 승화되기를 기원합니다.

정부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수산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도자 여러분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11. 20.

제18회 세계농업기술상 시상식 축하

우리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세계농업기술상 시상
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병수 세계일보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농업인들에게 역동적인 희망과 꿈을 심
어주고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 촉진을 위해 개최되는 ‘제18회 세계농업기술상’
시상식을 축하드립니다. 세계농업기술상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신 수상자 여러
분들께도 진심어린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찍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몬 쿠즈네츠는 “공업화로 중진국은 될
수 있지만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며 농업·농촌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바이오에너지, 식
품안전, 식량부족 문제 등 농림수산식품분야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전자원 확보 및 종자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적 경쟁이 치열해져 가고 있으
며, 고품질 안전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고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대체에너지 개발도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11월에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연구개발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증가율은 2.5%에 그쳤지만 연구개발 예산증가율은 8.5%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 성원과 참여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성장동력으로 수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Golden Seed Project를 통해 2011년 3천3백만불에 불과한 종자수출을 2020년까지 2억불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과 식품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시장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생명산업은 세계시장규모가 2003년 8천억 달러 수준에서 2010년 2조5천억 달러 수준으로 급성장하는 미래 유망산업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생명산업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생명산업 육성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도 정부예산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 1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 사업이 연구자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연구개발 사업이 아니라 해야 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발전은 정부의 노력만 가지고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농어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농어업인 여러분들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오늘 국내 농산물 부산물을 활용한 자가 TMR(Total Mixed Ration) 사료제조 및 응용기술을 개발하여 기술개발부문 대상의 영광을 차지하신 한기웅 대표님, 간척지 자생식물인 세발나물 인공재배 기술개발 등으로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목을 발굴하여 협동영농부문 대상의 영광을 차지한 해남세발나물연구회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농어업인 여러분을 적극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현장과 연구실에서 농업기술발전을 위해 매진해 온 수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여러분들 수상의 영광을 모든 농업인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1. 17.

도농교류 농촌사랑대상 시상식 격려사

안녕하십니까? 2013년 계사년 새해 설계에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어 제 7회 도농교류 농촌사랑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주신 최규성 농림수산물식품위원회 위원장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 이병규 문화일보 사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1사1촌 결연을 통해 농어촌발전에 기여하신 기업 임직원, 마을대표와 주민 여러분들의 노력을 ‘도농교류 농촌사랑대상’으로 기리는 자리라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인 모든 수상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농어촌 발전에 누구보다 앞장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촌에 희망을 주고 도시와 상생 발전하고자 기업과 단체, 정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시작한 농촌사랑운동이 어느덧 뜻 깊은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듯이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1사1촌 운동은 그동안 경제성장 과정을 겪으면서 형성된 도시와 농촌의 문제를 동시에 치유하고, 도농간 상호이해와 국민화합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도시는, 1사1촌 운동을 통하여 농촌이 지닌 자연과 생명에 대한 정서와 함께 먹을거리의 소중함을 학습하고, 농촌은, 도시민에 대한 마음의 벽을 허물어 일체감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통합의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사1촌 운동은 단순히 기업과 마을만의 교류운동이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 학교, 종교단체 등 모든 분야의 단체가 농촌마을과 교류하는 자율 참여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와 함께 귀농·귀촌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1사1촌 운동이 만들어낸 그동안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기업인, 마을대표 및 내·외 귀빈 여러분!

최근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 사회양극화 해소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상생과 통합'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1사1촌 운동이 이러한 상생발전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일손돕기, 농산물 직거래, 발전기금 지원 등 기존의 방식을 지역투자, 일자리창출 등으로 확대해 농어촌주민의 소득증대로 직접 연계하는 진일보한 ‘농어촌 사회공헌활동’으로 가치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1사1촌 운동에 솔선수범한 우수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업자금 조달이나 정책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부터 ‘농어촌사회공헌 인증제’를 새롭게 시행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1사1촌 운동이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힘입어 대표적인 도농교류운동으로 자리 잡게 된 만큼 기업인 여러분께서는 농어촌의 명예주인이 되시어 적극적인 도농교류활동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어업인 여러분들은 안전한 농산물과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시민들이 일상에 지친 심신을 쉴 수 있는 여유롭고 풍요로운 공간으로 농어촌마을을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상식을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수상하신 모든 분들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뜻 깊은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III. 인터뷰

- 농가지립 위해 3조 보조금 손질 | 94
- 농협의 계약재배 50%까지 확대 다신 농산물값 파동 없게 할 것 | 98
- 한미 FTA와 미쇠고기 수입 협상 별개... 신뢰회복이 먼저 | 102
- 지구촌 식량위기 우려... 식량 지급률 높여야. 곧 대책 발표할 것 | 108
- 쌀-고추-쇠고기 제외안하면 중국과 FTA협상 시작 안해 | 112
- 이틀에 한번꼴로 농촌 방문... 農政의 답은 현장에 | 116
- 올해 우수 소비자가 인상 자체 | 130
- 농산물이 물가폭등 주범 물려 억울... 비중 8.8%뿐인데 | 138
- FTA는 농가에 위기이자 기회 수출농업으로 돌파 | 142
- 2012년 주요 정책 추진 | 149
- '농협 지원 5조' 공짜 돈 아니다... | 157
- 한·중 FTA 협상서 모든 농산물 제외하는건 불가능하다 | 166
- 귀농·귀촌 대책 | 170
- 농어민 자원대책에 54조원... 더 이상 '아스팔트 농업' 해선 안돼 | 176
- Food exports to reach \$30b by 2020: minister | 180
- 농사가 3D업종이라구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 184
- 광우병, 학습효과로 큰 혼란 없었죠 | 189
- 춧불 두려워 미쇠고기 수입 중단 있을 수 없어 | 193
- 美 쇠고기 검역 중단할 수 없었다 | 196
- 다함께 잘사는 선진 농어촌 기틀 마련에 정책 역점 | 199
- 소통이 농정 신뢰 회복의 지름길 FTA 농업발전의 디딤돌 될 수도 | 206
- 농어촌에 새바람 일으키는 색깔 있는 마을 5000개 조성 | 212
- 세종시와 업무여건 개선, 불편 크게 줄어듦 것으로 기대 | 215

2011. 6. 20. | 매일경제

농가자립 위해 3조 보조금 손질

- 이기창 기자 -

지난주 전북 김제시 파프리카 농장을 방문한 서규용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감동의 눈시울을 붉혔다.

이곳 파프리카 농장주가 “정부 지원 없이 자력으로 올해 수출 목표(1000만달러)를 달성하겠다”고 장관과 약속했기 때문이다.

서 장관은 지난 15일 매일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가는 곳마다 정부더러 지원해달라는 건의사항만 늘어놓는데 이곳 파프리카 농장에서는 지원해달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이런 농어민들이 많이 나와야 우리 농업·농촌이 살아난다”고 말했다.

인터뷰 / 서규용 농림수산물 장관

“농가자립 위해 3조 보조금 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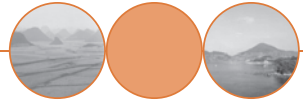


서 장관은 지난 15일 김제시 파프리카 농장을 방문한 서 장관은 감동의 눈시울을 붉혔다. 이 곳 파프리카 농장주가 “정부 지원 없이 자력으로 올해 수출 목표(1000만달러)를 달성하겠다”고 장관과 약속했기 때문이다.

농부들 자립 위해 3조 예산 손질
농부들 자립을 위한 3조 예산을 손질한다. 서 장관은 “농부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없이 자력으로 수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장관과 약속했기 때문이다.

농업 정책 목표
농부들 자립을 위한 3조 예산을 손질한다. 서 장관은 “농부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없이 자력으로 수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장관과 약속했기 때문이다.

농부들 자립을 위한 3조 예산 손질
농부들 자립을 위한 3조 예산을 손질한다. 서 장관은 “농부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없이 자력으로 수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장관과 약속했기 때문이다.



서 장관은 “우리 농업이 살길은 자립”이라며 “시설 현대화, 기계화, 연구개발, 성장 잠재 분야 집중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우리 농업은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다 보니 경쟁력이 낮아지고 다시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다.

게다가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농식품부는 한·미, 한·EU FTA 국회 비준에 맞춰 국내 농업 피해에 대한 추가 보완대책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추가 보완대책의 핵심은 단순 지원보다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

소모성 지원 줄이고 R&D 투자 늘려 농업 경쟁력 확보

서 장관은 “시급한 예산을 늘리고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필요해진 예산은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FTA 추가 보완대책을 비롯한 농어민 지원은)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건전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농어민 지원에 쓸 예산은 전체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농어민뿐 아니라 전체 국민의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농업보조금 체계는 농업 경쟁력 제고라는 취지에 맞춰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서 장관은 “시설, 자재 등 개별 농가에 대한 국고 지원은 줄이고 대신 융자를 서서히 늘려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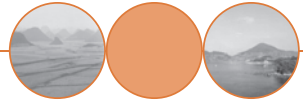
국민 세금을 농어민들에게 직접 주는 대신 낮은 금리로 빌려줌으로써 농가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현재 농가에 지원하는 농업보조금은 연평균 3조원 규모다. 이와 함께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금 재해보험 제도는 확대해야 한다는 게 서 장관의 생각이다.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가 염려되는 데다 농어업 생산물은 급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농가소득 보장 장치가 확실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를 위해 서 장관은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 농업보조금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다. 장관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위원회는 2009년 설치된 이후 장관이 잇달아 바뀌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출범 당시 위원회는 보조금 총액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공공성이 높은 사업으로 전환하며, 일회성·소모성 보조는 축소·중단해 보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효율적 집행 및 전달시스템 구축 등의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최근 쌀 시장 조기 개방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서 장관은 “쌀 시장 조기 개방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오는 9월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정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농민단체와 협의를 거쳐 어떻게든 그때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 때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하는 대신 해마다 2만 t 씩 쌀 의무수입 물량을 늘려왔다.



의무수입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 오래 된 요구였다. 2015년이면 자동으로 쌀 시장이 개방되기 때문에 정부가 굳이 농민 반발을 무릅쓰고 서둘러 쌀 시장을 개방할 유인이 없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 He is...

서규용 장관은 2001년 김동태 장관 이후 처음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출신으로 내부에서 장관직에 오른 정통 농정관료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 농림부 차관을 지낸 뒤 관직을 떠났다가 9년 만에 장관으로 금의환향했다.

1973년 농림수산부 농업직(농림기좌)으로 공직에 첫발을 들인 후 농촌진흥청 종자공급소장, 농림부 농산원예국장, 식량정책국장, 농림부 차관보, 농촌진흥청장, 농림부 차관 등을 지내는 등 공직생활 내내 농정과 인연을 맺어왔다. 차관 퇴임 후에도 한국마사회 상임감사, 한국농어민신문사장, 시민단체 ‘로컬푸드운동본부’ 회장 등 농업 분야를 떠나지 않았다.

△충북 청주(63) △청주고 △고려대 농학과 △농림부 농산원예국장 · 식량생산국장
 △농촌진흥청장 △농림부 차관 △한국마사회 감사 △한국농어민신문 대표이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농협의 계약재배 50%까지 확대다 신 농산물값 파동 없게 할 것

- 김종호 기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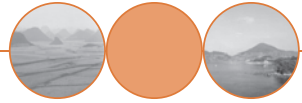
“앞으로 배추값 폭등 같은 농산물 가격 파동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지난 2일 취임 후 첫 인터뷰를 본지와 갖고 “농업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이라고 말했다.

그가 농산물 공급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은 전임 장관에 대한 학습 효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임 유정복 장관은 지난해 8월 말 취임 후 배추 가격 폭등과 뒤이은 구제역 파동에 휘말리면서 9개월 만에 물러났다.

서 장관은 1973년 농수산부 농산물검사소에서 근무를 시작해 30년째 농업 정책을 다루고 있는 정통 농업 관료다. 지난 2002년 농림부 차관을 지낸 뒤 관직을 떠났다가 9년 만에 장관으로 복귀했다.





“우리 농업에 가능성이 있나”는 질문에 그는 얼마 전 전북 김제에 간 일을 이야기했다.

“한 해에 파프리카를 1000만달러어치 수출하는 농업 법인이 있더군요. 도시근로자와 농민의 소득을 비교하면 전체 평균은 도시근로자가 높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30대는 농민이 도시근로자보다 높고, 40대는 거의 비슷합니다. 젊은 인력들이 우리 농업을 이끈다면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서규용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농산물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이 4809만원이었던 반면, 농가는 3212만원이었다. 그러나 30대만 놓고 보면 도시근로자 가구는 4730만원, 농가는 4888만원으로 역전됐다. 40대는 각각 5159만원, 5020만원으로 비슷했다.

그는 “농촌에 30~40대를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며, 교육부·보건복지부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정부가 유통에 적극 관여하는 체제로 바꿨다. 농협의 농산물 계약 재배 비율을 8%에서 올해 15%로 늘렸다. 2015년에는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계약 재배 확대는 수급 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유통 단계가 줄어 생산농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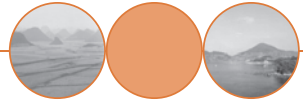
소득이 늘고, 소비자는 저렴한 값에 농산물을 구입하는 효과도 있다. 농산물 시장 조사(농업관측)도 월 1회에서 3회로 늘려 가격에 이상 징후가 보이면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배추 가격 안정 명령제를 추진하는 것도 가격 안정을 위해서다.” 배추 가격 안정 명령제란 배추 값이 급변할 경우 정부가 가격이 하루 동안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해 일정 기간 동안 적용하는 제도이다. 주식시장에서 주가에 상한가·하한가를 두는 것과 비슷한 이 제도를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15년으로 예정된 쌀 시장 개방(쌀의 관세화) 시기를 앞당기는 일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쌀 개방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우리나라는 매년 일정한 양의 쌀을 의무 수입하고 있으며, 그 양이 매년 2만 톤(t)씩 늘어나고 있다. 지금도 쌀이 남아도는 상황인데 수급 조절이 어렵다. 경제적 측면만 보면 가능한 한 빨리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를 우려하는 농업계의 목소리도 있다. 7~8월 중에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9월까지 (쌀 시장 조기 개방 여부를) 결정하겠다.”

한·중 FTA에 대한 입장은.

“중국의 높은 농업 생산력과 지리적 근접성에 비춰볼 때 한·중 FTA가 체결되면 우리 농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본격적인 한·중 FTA 협상에 앞서 쌀을 포함해 FTA에 민감한 농산물 품목에 대한 협상을 먼저 타결해야 한다.”



축산물을 수출하려면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얻어야 한다. 언제쯤 가능한가.

“백신 접종을 계속해 구제역의 재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수출에 필요한 ‘구제역 청정국 지위’신청은 2년 후에 추진할 예정이다.”

‘한식 세계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뉴욕의 대표 한식당 설립은 어떻게 됐나.

“현재 중단된 상태다. 한식당을 설립하면 주변의 기존 한식당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식 세계화 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2011. 7. 4. | 서울경제

서경이 만난 사람

한미FTA와 美쇠고기 수입 협상 별개... 신뢰회복이 먼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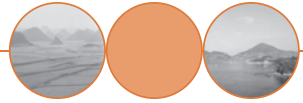
대담_권구찬 경제부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은 별개입니다. 약속한대로 소비자 신뢰 회복이 선결돼야 합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서규용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은 지난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캐나다 쇠고기 수입협상 양자합의는 미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캐나다산 쇠고기가 8년 만에 수입이 재개되고 한미 FTA 비준절차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미국이 추가로 시장개방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 측의 단호한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최근 캐나다와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하며 중요한 과제 하나를 마무리 지은 그는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미국보다 강화된





조건으로 타결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가 이어지면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람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쇠고기 시장 개방에 따른 한우 농가의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호주산·미국산 등이 들어오고 있지만 한우의 경쟁력이 있어 큰 문제는 안 된다”며 “유통이력제와 원산지표시제를 더 강화해 한우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인터뷰 내내 자신의 농정철학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충청도 출신답게 다소 느릿한 말투이지만 민감한 현안에는 과감한 발언으로 추진력과 독심이 있는 본인의 성격을 나타냈다.

FTA보완대책 내실화해야

“한·유럽연합(EU) FTA가 발효됐고 한미 FTA 절차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진 FTA 보완대책을 내실화해야 합니다.” 서 장관은 지금 우리 농·어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 강화’ 및 ‘농·어가 소득안정’이라는 생각이다. 올해부터 시장개방이 본격화되고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농·축산업계로 밀려오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 농·어업은 아직 보조금에 따른 정부 의존이 심하고 부실화의 부작용도 나타난다.

그는 “2007년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 수립 후 3년여가 지났고 구제역 등으로 농·축·수산업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장점검·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정, 보완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추가 예산 소요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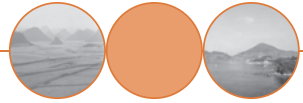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FTA 보완대책 실행을 위해 책정된 예산 21조원의 증액이 가능할 것이냐는 계속되는 질문에 “잘 되겠죠”라고 웃으며 원만하게 풀리고 있음을 시사했다.

서 장관은 ‘예산이 곧 정책’이라는 지론을 갖고 있다. 내년 농식품부 예산 방향도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잡았다. 다음으로 그는 “가격안정이나 가축질병에 대응하는 등 현안 문제에도 예산이 투입되고 종자산업·생명산업·식품산업·양식사업 등과 같은 연구개발(R&D) 투자에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중 FTA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했다. 서 장관은 “중국의 지리적 인접성,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한중 FTA는 우리 농·어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협상 개시 전부터 민감성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중국과 적극 협의하는 등 농·어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쌀 조기 관세화 원칙 변함없어

올해 쌀값은 지속적으로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흉작으로 전년(495만톤)보다 수확량이 66만톤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벼 수집·가공·판매를 담당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물량을 조절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주 말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쌀값은 10% 올랐다.



의외로 서 장관은 쌀값 문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2월부터 계속 올라 지금까지 정부가 비축한 28만5,000톤의 쌀을 방출했다”며 “현재 산지 쌀값은 80kg(정곡)당 15만4,748원이며 현재 수준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수확기 쌀값은 풍흉에 따라 약간 변동될 수 있지만 10월 초순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해 안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뷰를 진행한 이날도 정부는 2010년산 비축쌀 8만톤을 시중에 12.9% 싸게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RPC에 대해서는 “쌀 유통은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구매자 중심으로 급격하게 이전되고 있어 RPC를 통해 소비자 기호에 맞고 품질이 균일한 동일 브랜드 쌀을 대량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RPC 시설현대화, 브랜드화, RPC통합 등과 같은 경쟁력 향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쌀 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조기관세화에 대해서는 가능한 올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서 장관은 “매년 2만톤씩의 의무수입물량 증가에 따른 수급 관리 부담과 관세화시 예산절감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조기에 관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농업계 의견수렴을 통한 합의 도출뿐 아니라 FTA,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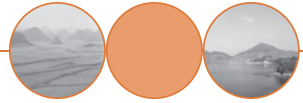
농수산물은 재배면적이나 기상 여건에 따라 가격변화가 크다.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만 해도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배추 값이 ‘금값’이었지만 5월 이후 공급량이 크게 늘면서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양파 가격도 올해

크게 떨어졌고 한우 가격도 설 성수기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먼저 서 장관은 “농·축·수산물의 경우 공산품과 달리 수요 공급이 비탄력적어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서 장관이 제시한 방안은 관측 강화. 그는 “사전적 수급 예측 및 선제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상변화가 심한 7~10월에는 관측 횟수를 월1회에서 3회로 늘리고 기상변화에 따라 시세를 예측할 수 있는 모형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통 측면에서는 농협의 계약재배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서 장관은 “농협 계약재배 비중(배추)을 8%에서 20%로 올리는 등 전체 생산량의 15%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직거래 등 판매채널을 다양화하고 가격안정명령제(경매가격 등락폭이 클 경우 상승률과 하락률을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한우 도매가격은 떨어져도 음식점 가격은 변동이 없는 것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한국음식업중앙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음식점 한우고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농협 실사 마무리 단계, 내부 인사지침 만들 것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로 분리하는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해 서 장관은 “최근 자산 실사 결과가 나와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달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이 확정되면 타당성 검토를 거쳐 부족 자본금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08년 발생한 국제적인 곡물가 급등은 지난해에도 재현했다. 우리의 식량 자급률은 점차 하락 추세여서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의식도 높아졌다.

서 장관은 “해외농업개발, 곡물 조달체계 구축, 식량자급률 제고 등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다”면서 “이달 말 구체적인 목표치를 세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오는 2015년 곡물자급률은 30%로 상향 조정하고 2020년 목표치도 새로 설정할 계획이다.

내부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지침’을 만들고 난 뒤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 장관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승진 및 인사 방침 등에 대해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 모두로 조사하고 있다”면서 “장관이 마음대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꼭 돼야 한다는 식으로 직원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실적 원칙에 따라 개인의 능력·자격 등을 우선적으로 평가한 뒤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귀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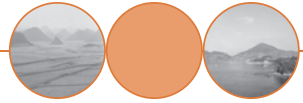
지구촌 식량위기 우려... 식량 자급률 높여야. 곧 대책 발표할것

대담_류순열 경제부장

취임 한달여,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분위기는 확 바뀌어 있었다. 표정은 활기찼고 목소리엔 힘이 실렸다. 지난달 2일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에서 눈시울을 붉혔던 그였다. 혹독했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노련한 60대 고위관료의 심신은 그렇게 지쳐 있었다.

해답은 현장이었다. 취임 이후 서 장관은 현장을 누비고 또 누빈다. 그 바람에 수행 참모진은 번갈아가며 주말을 '반납'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현장은 서 장관에게 정책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다고 했다. 활력과 자신감의 원천이 현장이었던 셈이다.





서 장관은 지난 6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농정 철학을 펼치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단순히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 활력 넘치는 농촌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했다. 해법의 하나로 공공서비스 강화를 꼽았다. “농촌 지역 30대의 평균소득이 도시 근로자보다 높은데도 공공서비스 분야가 취약하다 보니 인구 유입에 한계가 있다”는 게 이유다.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삶의 질 높여 활력 넘치는 농촌으로 바꿔 갈 것 시설 현대화·축산선진화 적극 지원

농업 피해가 예상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도 서 장관은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뿐 아니라 상대국 시장도 개방되므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장관은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우리 농업에도 희망이 있다”고 누차 말했다.

서 장관은 특히 식량자급률을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위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선진국치고 식량이 자급 안 되는 나라가 없다”면서, 서 장관은 “우리 식량자급률 새 기준을 곧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5년 기준 25%대였던 식량자급률 목표치가 30%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해도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OECD회원국 평균치는 91.5%다. 서 장관과의 인터뷰는 정부 과천청사 집무실에서 한 시간가량 진행됐다.

취임 후 '농정은 현장'이라며 현장을 계속 찾고 있는데 소회는.

“어려움이 많지만 일부 농가를 보면서 우리 농업도 희망이 있다고 느꼈다. 전북 김제의 파프리카 업체를 가보니 올해 수출목표를 1000만 달러로 잡았다. 스스로 잘하면서 정부에 지원해 달란 것이 없었다. 거기 얘기가 ‘우리 농업도 희망이 있다’였다. 가슴이 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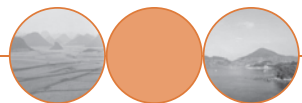
그러나 일반적으로 농촌 현실은 팍팍하다. FTA도 농업에 적잖은 위협인데.

“우리 시장이 개방되면 외국 시장도 함께 개방된다. 그러면 우리가 수출할 여력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 13억 인구 중 5%인 상류층만 공략한다고 생각해 보라. 중국이 한국 김치를 수입하는데 이들이 김치를 많이 사간다. 우리 김치가 위생적이란 얘기가. 중국에선 ‘한국은 기생충 한두 마리 나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얼마나 위생적이냐’고 인식한다. 외국 시장도 개방되므로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회는 잘못 대응하면 위기다. 전환기의 농정을 꾸러가기 위한 복안은.

“시설 현대화를 해야 한다. 축산업도 선진화해야 한다. 적극 지원할 것이다. 농협을 개혁해야 한다는 말이 1984년부터 나왔다. 17년 동안 안 된 것을 이번이었다. 민간단체에서는 농협개혁이 되면 농업의 50~70%가 개혁됐다고 본다.”

서 장관은 농협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본의 예를 들었다. “일본은 농민들이 오이를 재배만 하면 다음부터 조합이 모든 일을 처리한다. 조합에서 오



이를 가져가 품질별 분류해 판매한 뒤 농민 통장에 돈을 넣어준다. 그런데 우리는 농민이 생산에서 판매 까지 모두 해야 하니...”



젊은아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다. 농촌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농가소득은 3210만원이고 도시소득은 4800여만원이다. 도시 근로소득의 3분의 2 수준이다. 하지만 30대의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보다 많다. 그런데도 왜 떠나느냐 하면 공공서비스 때문이다. 특히 의료, 교육이 가장 문제다. 농사를 짓더라도 자식 교육은 잘 시켜서 잘되게 만들려 한다. 삶의 질을 높여야 귀농, 귀촌이 활성화된다. 일본은 트랙터에 에어컨, 가라오케를 넣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전임 장관은 구제역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 보통 가축질병의 경우 처음 발생했을 때가 무섭지 이후엔 통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구제역은 달랐다.

“2000년, 2002년 발생했던 구제역은 쉽게 처리됐는데, 지난해 348만 마리의 가축을 문었다. 심각했다. 기본적으로 구제역이란 질병을 정부 혼자서는 막을 수 없다. 축산 농가, 지자체, 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 축산농가가 의식이 없으면 아무리 정부에서 해도 안 된다. 외국 구제역 농가를 갔다 왔으면 소독을 하고 자기 농장에 들어가야지 바로 들어가니까 발생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교육도 시키고, 일정수준 농가 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80%만 보상해 주고, 교육 등을 이수 안 하면 보상액을 감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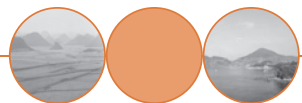
쌀-고추-쇠고기 제외안하면 중국과 FTA협상 시작 안해

인터뷰_임규진 산업부장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것이다. 한미 FTA에 비할 바가 아니다. 따라서 쌀 고추 돼지고기 등 ‘민감 품목’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 민감 품목을 제외하지 않고는 협상 개시도 없다.”

서규용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사진)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농민신문사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중국과의 FTA 협상은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양국 간 민감 품목 설정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협상을 시작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감 품목은 관세화(시장 개방)를 할 경우 우리 측 피해가 큰 특정 품목을 말하는 것으로 쌀, 고추, 마늘, 돼지고기, 쇠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이 해당된다.





한중 FTA 협상은 양국 내에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협상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중국 측은 일단 FTA 협상을 시작한 뒤 민감 품목을 논의하자고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민감 품목부터 설정한 후 해당 품목을 협상 테이블에서 아예 제외시키고 협상에 들어가자는 입장이다.

서 장관은 이날 “중국은 우리나라와 거리가 매우 가깝고 가격경쟁력이 엄청난 나라”라며 “중국과 FTA를 잘못하면 우리 농업의 피해가 엄청나게 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분리 자금계획 일내 완료”

그는 “중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려면 전체 수출 농산물 중 20%가량을 민감 품목으로 설정해 반드시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일로 취임 한 달을 맞았다. 주말마다 농촌 현장을 돌았는데 소감은.

“한 주도 빠짐없이 주말마다 농촌에 가 농민들을 만났다. 농민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불만은 가격 불안, 농산물 유통문제였다.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불신도 컸다. 가슴이 아팠다. 농협만 제대로 돌아가도 농촌 문제가 50%는 해결된다는 말이 있다.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농협개혁 방향과 진행 추이는.

“농협개혁의 핵심은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주는) 판매중심의

농협'으로 가는 것이다. 예전에 일본 니가타 현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오이 농가들이 오이를 따서 논두렁에 그냥 다 쌓아놓고 있었다. 그렇게 쌓아만 놓으면 농협이 알아서 걷어다가 씻고 포장해서 팔아 통장에 돈까지 넣어 준다고 했다. 농민은 생산에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이다. 우리 농협도 유통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에 팔아줄 수 있어야 한다. 농협이 유통마진을 줄이면 소비자들도 싼 값에 농산물을 살 수 있다. 농협이 도매시장 물량을 50% 이상 관리하게 해서 대형 유통업체들과 협상력을 갖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게 목표다."

"신-경분리 자금계획 월내 완료"

서규용 농식품부장관 인터뷰 ▶ 이번에서 이어집니다

그는 "중국의 FTA 협상이 진행이 되면 전체 수출 농산물 중 30%가량을 망감 품목으로 설정해 반드시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로 취임 한 말을 들었다. 우리 애들 농촌 현장에 왔었는데 소담은...

"일 수도 해방국이 우편보다 농촌에 갈 거라니... 농민들이 걱정 많이 하고 있다. 농협 시장구조 개편에 많은 신경 쓰고 있다."

→농협개혁 방향과 집중 주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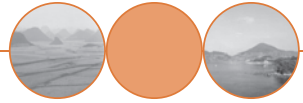
"농협개혁의 핵심은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주는) 판매장소의 농협으로 가는 것이다. 덕분에 월내 신-경분리 단 행이 있는데 거기서는 식량부담 막아선 안 되고 분사가 안 되어 농가들이 오이를 따서 논두렁에 그냥 다 쌓아놓고 있었다. 그말이 북한 농민이 농협이 알아서 걷어다가 씻고 포장해서 팔아 통장에 돈까지 넣어 준다고 했다. 농민은 생산에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이다. 우리 농협도 유통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에 팔아줄 수 있어야 한다. 농협이 유통마진을 줄이면 소비자들도 싼 값에 농산물을 살 수 있다. 농협이 도매시장 물량을 50% 이상 관리하게 해서 대형 유통업체들과 협상력을 갖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게 목표다."

협상력을 갖고 견제와 균형... 이를 이루도록 하는 게 목표다."

→"농협" 더 함께 갈자는... 협회... 식량부담 막아선 안 되고 분사가 안 되어 농가들이 오이를 따서 논두렁에 그냥 다 쌓아놓고 있었다. 그말이 북한 농민이 농협이 알아서 걷어다가 씻고 포장해서 팔아 통장에 돈까지 넣어 준다고 했다. 농민은 생산에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이다. 우리 농협도 유통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에 팔아줄 수 있어야 한다. 농협이 유통마진을 줄이면 소비자들도 싼 값에 농산물을 살 수 있다. 농협이 도매시장 물량을 50% 이상 관리하게 해서 대형 유통업체들과 협상력을 갖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게 목표다."

최근 농협의 신용(금융)-경제(판매) 사업 분리를 위한 자금 실사가 끝났는데.

"농협과 함께 구조개편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 논의하고 있다. 사실 지금 정부는 FTA 피해보완 대책이니 구제역 대책이니 해서 재정 수요가 엄청나다. 농협의 경제 사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이 얼마지를 알아내는 게 관건이다.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결론 내려고 한다.



임기 동안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다’고 하는 것은.

“내 꿈은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건설’이다. 이걸 이루려면 농식품부만 뛰어난 안 되고 부처가 모두 함께 움직여야 한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도 ‘주5일제 전면 도입’을 두고 장시간 토론이 있었는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농촌체험 학습을 초중고 교과과정에 넣어 달라’고 말했다. 노인뿐 아니라 젊은이들도 관심 갖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30대 농민들의 소득은 도시민 소득보다도 높다. 농촌이 젊은 사람들도 살 수 있는 곳이 되면, 우리 농업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2011. 7. 29. | 문화일보

파워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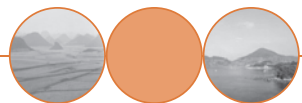
이들에 한번꼴로 농촌 방문... 農政의 답은 현장에

인터뷰_김병직 부국장겸 경제산업부장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농어촌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중략) 공직자는 '개인보다는 조직, 조직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은 남보다 솔선수범하고 강한 열정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지난 2002년 29년간 몸담았던 농림부를 떠났던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6월2일 농정 최고책임자로 취임하면서 취임 일성으로 공언했던 말이다.



지난 27일, 그를 인터뷰하기 위해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때마침 수도권 이 '물폭탄'을 맞았던 터라 서울 광화문에서 정부과천청사까지 승용차로 이동하는 데 2시간이나 걸렸다. 이날 인터뷰를 하는 동안 그가 보여준 열정은 대단했다. 고교 재학시절 “한국 농업을 위해 살겠다”고 뜻을 두고,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결눈질을 하지 않고 ‘외길’을 걸어온 그의 고집스러움이 곳곳에서 느껴졌다. 집중호우 속에 농촌현장이 걱정되는지, 이날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그의 마음속 절반 이상은 이미 ‘농촌현장’으로 향해있는 듯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이날 인터뷰를 위해 정부과천청사 농식품부장관 접견실에 앉으면서 수도권에 퍼부었던 집중호우가 첫 화제에 올랐다. 그는 구제역 매몰지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다.

“그동안 피해가 우려되는 구제역 매몰지 80여곳을 이설하는 등 사전대비를 한 결과 기록적인 강우량을 보였던 지난 장마 기간 중에 매몰지 유실 등과 같은 심각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집중호우가 내려 우선 오전에 전화로 1차 점검을 해봤는데 아직은 문제가 없더군요. 그렇지만 장마에 이은 집중호우로 주변 지반이 약해지거나 빗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국 4799개 매몰지에 대한 일제점검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있을 폭우나 태풍 등에 대비하기 위해 당분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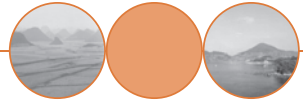
그는 “구제역 매몰지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매몰지별 실명제 관리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 757곳의 ‘중점관리 매몰지’를 농식품부

실무급 377명이 나뉘서 맡고, 장·차관을 포함한 과장급 이상 간부 50명이 50개소의 '특별관리 매물지'를 책임지는 방식이다. 서 장관은 “제가 맡고 있는 매물지는 충북 충주시 양성면 중전리”라면서 “이상이 없는지 수시로 전화해보고 직접 가보기도 한다”고 말했다.

농어민들은 '정책의 고객'인 셈 현장소통 강화로 감동 전할것 폭우뒤 농산물 가격안정에 최선 구제역 매물지 4,799곳 일제 점검 나 포함한 간부 50명이 직접 챙겨

그는 장관 취임 바로 이튿날인 지난 6월3일 경북 문경 영농조합법인과 안동 가축 매물지를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 주말 단 한 차례도 쉬지 않고 농촌 현장을 찾는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농정의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소신에 따라 농촌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취임 후 2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그가 방문한 농촌현장은 26개 시·군에, 이동거리로 따지면 6300여km에 달한다. 취임 이후 평균 이틀에 1개 시·군을 방문한 셈이다.

“현장에서 농어업인들을 만나보니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어려움이 대체로 3가지 정도로 압축되더군요. 우선 경영비 부담문제입니다. 최근 유류비나 사료비 등의 가격상승으로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농수산물 가격 등락도 커다란 고민이었어요. 최근 이상기후와 불완전한 유통시스템 등으로 배추·양파·쇠고기 등의 가격 등락이 심했거든요. 또 판로 부족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애로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 농어업인들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둘 생각입니다.”



그는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는 현장을 찾아 정책고객인 농어업인, 식품산업관계자와 국민들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농촌현장 방문은 우리 농업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 외에 가능성과 희망을 느끼는 계기도 됐다”고 전했다.

“전북 김제에서 파프리카 업체를 운영하는 한 젊은 경영인을 만났을 때는 큰 감명을 받았어요. 지난해 680만달러 어치 수출했고, 올해는 1000만달러 수출을 목표로 한다는데 그 어떤 정부지원도 요구하지 않더군요.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맞서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 젊은 사장이 ‘장관님, 우리 농업도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만날 ‘어렵다, 어렵다’ 하는 이야기만 듣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경남 거창군의 한 사과 농가를 방문했을 때 현지 주민들과 자정을 넘겨서까지 열띤 토론을 벌였던 일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정시간을 몇 시간 넘겨서까지 질문을 마구 쏟아내는데 농업에 대한 그들의 열정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농촌현장을 방문할 때는 늘 점퍼 차림에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한다고 한다. “농어업인들이 정서적으로 승합차를 더 친숙하게 느끼고 있고 업무적으로도 승합차에는 실무자들도 함께 탈 수 있어 이동 중에 보다 폭넓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란다. “승합차는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어 보다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그는 귀띔했다.

“1사 1촌이야말로 진정한相生… 교과서 수록내용 늘려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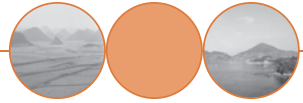
“농수산물가격 안정, 지상의 과제로…”

이야기의 화제가 최근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농수산물 가격 문제로 넘어가자 그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구나”하는 게 확 느껴졌다.

“농수산물은 재배면적의 증감과 기상여건에 따라 가격변화가 큰 게 특징입니다. 지난해에 가격이 높았다 싶으면 심지 않아요. 반대로 가격이 조금 높았다 하면 많이 심구요. 이렇게 재배면적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생산량이 15%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은 30% 가까이 출렁이고요. 잘 알다시피 농산물은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농산물이 5~10% 증산되면 가격은 20~30% 떨어지거든요. 적정가격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요 품목 전담자 제도를 통해 산지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기상에 따른 품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농업관측 기상 여건을 기존에 한 달에 한 번 관측하던 것을 세 번으로 늘렸어요. 관측을 정밀하게 해서 시의성 있게 대처할 겁니다.”

그는 “기상이변의 상시화에 대비해 기상변화에 따른 생산량 예측 모형을 개발했다”면서 “7월부터 고랭지 배추에 적용해 시범 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 장관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의 계약물량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난해 생산량의 8%에서 올해에는 15%로 늘리고 2015년까지 20% 수준까지 늘리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생산량의 50% 수준까지 확대해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에요. 또 농산물 도매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가격안정 명령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낙찰가격 변동률과 매매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구요.”

그는 “농산물 생산지 인근 도시에 지역농수산물 중심이 되는 직거래장터를 늘릴 계획”이라며 “9월 중 8개소가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수산물 직거래사이트를 일괄 연결하는 관문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8월 중 시범운영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는 전했다.

문화일보 주도 도농교류 감사… 적극 지원 ‘나보다 이웃, 이웃보다 나라’가 삶의 철학 기상 이변 대비하고 축사업 허가제 추진

농수산물 가격 안정과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서 장관이 각별히 신경을 쓰는 또 한가지는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일이다.

“배추가 비싸고 무나 양배추가 저렴하면 소비자들은 양배추를 소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알뜰 가격정보를 소비자들에게 1주일마다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 같은 정보제공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패턴을 유도하자는 겁니다. 어제도 소비자단체 회원 200여명을 만나 소개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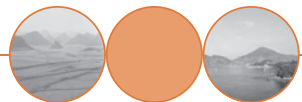
하더군요. 가격정보를 세밀하게 조사해서 소비자 단체 등에게 e메일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알려주는 거죠. 단순한 가격정보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가격 전망까지 알려줄 생각입니다. 8월 중순쯤 되면 배추가격이 싸질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정보가 매주 소비자단체에 전해지는 셈입니다.”

“구제역, 더 이상은 없다”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 서 장관이 과거 보여줬던 ‘뚝심’은 현재 농업계에 ‘전설’처럼 남아 있다.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98년 만에 발생했던 지난 2000년 당시 그는 농림부 차관보로 재직 중이었다. 그는 곧바로 구제역 상황실장과 대책반장을 맡아 방역현장을 진두지휘했다. 구제역 발생 초기 인근 지역을 완전 봉쇄해 초기 진압에 전력을 다한 결과 한 달이 채 안 돼 구제역을 완전 진압할 수 있었다.

당시 국제수역사무국(OIE)은 “98년 만에 한국 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을 이처럼 초단기간에 진압했다는 게 너무 놀랍다”며 감탄하기까지 했다. 이후 2002년 구제역이 국내에서 또다시 발생했을 당시 그는 농림부 차관이었지만 구제역 상황실장과 대책반장 책임은 역시 그에게 맡겨졌다. 구제역 발생 현장 주변을 완전 차단하고 밤낮으로 방역을 진두지휘한 그의 열정은 한 달도 채 안 돼 구제역을 내쫓을 수 있었다.

지난해 대한민국을 발각 뒤집어놓았던 구제역·가축질병 차단과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그의 복안을 물어봤다.



“지난해 구제역으로 3조원이 날아갔어요. 무작정 이런 식으로는 안됩니다. 이번 구제역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우선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시설이 맞는지,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꼼꼼히 따져야 해요. 허가제가 되면 백신도 의무적으로 맞아야 해요. 허가제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기업농, 내후년에는 전업농, 그다음에는 준 전업농 등 큰 농가부터 허가를 맡아서 하라는 겁니다. 또 앞으로 새로운 구제역이 들어오면 주의, 경계 등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각’단계를 발령할 계획이에요. 곧바로 일시이동금지를 시행하고 전체를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매물 보상금과 백신 비용도 지금은 정부에서 100% 부담하는데 바꿀 예정입니다. 매물 보상금은 정부에서 80%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지자체에서 책임지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일부 도덕적 해이도 차단할 수 있거든요.”

그는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만들어 46명을 증원했다”면서 “기동방역기구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사1촌운동에 감사… 적극 지원할 것”

문화일보가 지난 2004년부터 농협중앙회·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펼치고 있는 1사1촌운동이 화제에 오르자 그의 얼굴이 밝아졌다. 1사1촌운동과 관련해 그는 ‘할 말’이 많은 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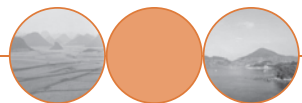
“저는 1사1촌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와 농촌이 진정으로 상생할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도시의 기업과 단체는 1사1촌 결연마을과의 교류를 통해 보다 싼 값에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결연마을에서의

농촌지원 활동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는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도 있고요. 농어촌마을 역시 결연기업과의 직거래 등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농촌체험장 운용으로 마을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만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생운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1사1촌운동이 확산되면서 농어촌이 먹을거리만 생산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연과 생명을 지키는 터전이며, 우리 모두가 지켜나가야 할 공간이라는 국민의식을 일깨워줬다는 점은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같은 운동을 관에서 주도한 게 아니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해왔다는 점이 중요해요. 이런 점에서 지난 8년 동안 1사1촌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문화일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1사1촌운동이 내년부터 초·중등학교 정규 교과서에 게재되는 데 대해서도 장관은 깊은 관심을 내보였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농어업과 자연환경을 배울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해서도 1사1촌운동이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게재되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저희 농식품부에서도 이미 지난해 12월 1사1촌운동의 교과과정 반영 추진계획을 마련했고,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6월 교육과학기술부에 1사1촌 교과서 수록안을 전달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사회교과서와 중학교 사회교과서 등 총 8종의 교과서에 1사1촌운동 내용을 반영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어요. 앞으로 교과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1사1촌운동 내용이 보다 풍성하게 교과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작정입니다.”

그는 “내년 초·중등 교과서 임시개편에 이어 내후년 이후 교과서 전면개편



때는 1사1촌운동의 목적, 전개과정과 현황, 우수사례, 1사1촌 교류를 통한 도시와 농어촌의 변화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1사1촌 교류가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보다 지속적으로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농식품부에서 펼치고 있는 ‘스마일 농어촌 운동’과 연계해 한국 농촌을 보다 활력 있게 만드는데 1사1촌운동이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정도 소통이 중요… 국민을 감동시켜야”

서 장관은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늘 말씀하신 ‘나보다는 이웃을, 이웃보다는 나라와 국가를 위하는 큰마음으로 살아라’는 교훈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한다.

그는 농촌현장을 찾을 때마다 “정부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며 현 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이 상상 이상으로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기존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하면서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이 가능해졌어요. 종전 50조원 규모의 농어업에서 130조원 규모의 식품산업과 연계한 성장 추진이 가능해진 겁니다. 또 지난 1994년 농어촌발전대책 이후 17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농업계의 가장 큰 과제인 농협개혁을 대통령이 직접 독려해 여야 합의로 이뤄낸 건 한국 농업계에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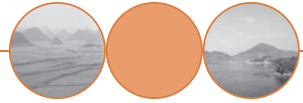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R&D) 투자를 체계화해 지난 2007년 5700여억원에 머물던 농식품분야 R&D 예산을 올해 860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충한 것도 대단한 일이고요. 현장에서 정부의 농정을 불신하는 이들에게 이런 내용을 설명해주면 “정말 그러냐”며 깜짝 놀랍니다. 또 많은 분들이 수긍해주시고요. 결국 농촌현장의 불만과 불신은 자주 만나 소통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한국 농업이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을 감동시켜야 한다”며 “국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믿고 드실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는 잠시 목이 메는 듯했다. 이날 오후 인터뷰를 마치자마자 그는 충북 증평을 방문하기로 약속했다면서 폭우를 뚫고 농촌현장으로 향했다. 서둘러 차에 오르는 그의 뒷모습이 한없이 든든해 보였다.

서 장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부익금·축익금·월급 때 ‘직원 돕기’기금 8,000만원 조성

농림수산식품부 내에는 불의의 재난이나 신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을 돕기 위한 ‘정성분 상조기금’이라는 게 있다. 이 상조기금은 지난 2000년 4월 서 장관이 농림부 차관보로 재직할 당시 모친인 정성분 여사가 작고했을 때 조문객들로부터 받은 부익금 2283만원을 “어려운 농림부 직원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해 조성된 것이다.



서 장관은 이후 2002년 3월 부친이 작고했을 때도 부의금 1300만원을 쾌척했고, 같은 해 6월 자녀 결혼 축의금 중 500만원을 떼내어 기탁했으며 뒤이어 자신의 농림부 퇴직금에서도 570만원을 기금에 보탬다.

또 농림부 차관 시절부터 마사회 감사, 한국농어민신문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월 월급에서 50만원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기탁해 3150만원을 기탁하는 등 총 8003만원을 기금에 쏟아부었다. 이 기금은 2003년 교통사고로 별세한 농림부 직원의 유자녀 양육비로 300만원이 전달되는 등 31명의 직원에게 6900만원이 전달됐다.

농식품부의 한 직원은 “서 장관은 나눔의 정신을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하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지난 2008년 2월 한국농어민신문사 사장에서 물러날 당시에는 받은 퇴직금 등 1740만원을 “어려운 직원들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했다. 농어민신문사는 이 기금을 ‘(가칭)서규용 기금’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그는 모교인 청주 덕성초등학교에 개인자격으로 졸업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덕성 장학금’설립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서 장관은 “우리 사회는 지도층이 깨끗해야 하고, 특히 배려와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게 지도층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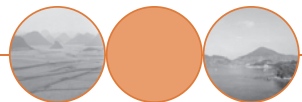
서규용 장관은...

한·중 마늘파동 때 도의적 책임에 사퇴 “꿈수 모르는 의리파”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은 지난 2002년 발생한 한·중 마늘파동이다. 당시 그는 본인이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았음에도 한·중 마늘협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스스로 공직(농림부 차관)에서 물러났다.

“지금까지 살면서 나보다는 조직, 조직보다는 국익을 우선한다는 소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그는 말했다. 유달영 박사가 그에게 써준 ‘공선사후(公先私後), 살신성인(殺身成仁) 농정의길’이라는 휘호를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 그를 겪었던 농식품부 전·현직 관료들은 그를 ‘꿈수’라고는 모르며 한마디로 ‘의리가 있는 분’으로 표현한다.

전통적인 농촌마을인 충북 청원군 사주면(현 청주시 상당구 울랑동)에서 출생해 자란 서 장관은 “청주고 재학시절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시는데도 어머니가 늘 구멍 난 셔츠를 입으시면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커서 한국 농촌을 위해 무언가 일을 해야겠다고 의지를 다졌다”고 한다.



농업에 한(恨)이 맺히신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농대에 진학한 그는 1972년 제8회 기술고시에 합격하면서 농림부 공무원의 길을 걷게 됐다.

그는 공직을 떠난 뒤에도 지난 2009년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취지의 ‘로컬푸드운동본부’를 설립해 친환경 농업운동을 펼치는 등 단 한 순간도 농업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기술고시 출신으로 차관에 이어 장관에 올라 후배들로부터 입지전적인 ‘롤모델’로 불린다. 장관 취임 후에는 쌀·채소·원예 등 농업 현장에 대해 워낙 잘 알고 있어 현장 관계자나 직원들이 곤혹스러운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 2001년 김동태 장관 이후 처음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출신으로 내부에서 장관직에 오른 그는 “지금까지 농업을 택해 평생을 바쳐 온 삶의 과정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 후 봉사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남은 여생을 그간의 경륜을 참고삼아 고향의 농업과 농정을 살피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고 말했다.

2011. 8. 10. |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올해 우유 소비자가 인상 자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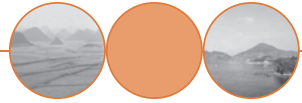
- 원유가격 협상 오늘 내 타결될 듯
- 소비자가 300원 인상요구는 지나쳐
- 열흘 빠른 추석, 성수품 수급방안 강구

낙농가와 우유업계의 원유값 인상 최종협상이 밤새 계속 됐습니다. 자정을 넘기면서 낙농가들은 예정대로 원유공급 중단에 들어갔고요. 다만 협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만약 결렬되면 어떻게 되는 걸가요? 농림부 서규용 장관 직접 만나보죠.

김현정 : 지금도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서규용 장관 : 그렇습니다.

김현정 : 시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이미 15시간이 지났는데요.



서규용 장관 : 15시간 지났는데, 8시에 다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서 협의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 새로운 대안이라면 어떤 건가요?

서규용 장관 : 가격에 대해서 절충안이 서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김현정 : 160원 vs 120원, 여기에서 더 발전을 안 한 건가요?

서규용 장관 : 거기서 더 발전되고 있습니다.

김현정 :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서규용 장관 :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 적정선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 건가요?

서규용 장관 : 적정선이라고 하는 것이 2008년도, 3년 전에 원유가격을 인상하고 한 번도 안 올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생산비라든가 물가 상승은 했는데 원유가격은 동결됐기 때문에 낙농가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원유가격 인상을 요구해 온 상황인데, 지금 원유가격이라는 것이 낙농진흥법에 따라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원유공급중단으로 인해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입장 차가 좁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타결을 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 1시간 내로 될 수 있는 겁니까?

서규용 장관 : 1시간 내는 아니고, 아마 금일 중에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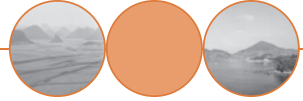
김현정 : 항상 될 듯 하다 며칠째 안 되어서요, 만약 오늘도 결렬이 되면 바로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다수결로 가는 겁니까?

서규용 장관 : 이사회보다도 우선 합의를 봐야죠. 합의를 봐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해야죠.

김현정 : 제가 왜 이사회 다수결 말씀을 드렸냐면, 원유공급이 오늘부터 일단 중단이 됐거든요. 이게 이틀 지나면 심각한 우유대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는 뭔가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서규용 장관 : 그 안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현재 재고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여러분들의 불편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 말씀대로 타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우윳값이 되는데요. 소비자들에게 우윳값이 민감합니다. 바로 오르는 건가요?



서규용 장관 : 원유 값 인상으로 인해서 우윳값, 유제품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돼요. 그래서 소비자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소비자 가격 상승을 최소화하도록 유업체에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가격 인상이 안 되도록 협조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런 물가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분유라든가 버터, 치즈, 이런 11개 품목 한 14만 2000톤을 무관세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가격이 상승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 우유업체에서는 한 300원은 올라야 된다, 원유 값이 어느 선에서 결정되든 최소한 300원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장관님 보시기에 적정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규용 장관 : 그건 저희들이 유업체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올려서는 안 되죠.

김현정 : 300원은 안 됩니까?

서규용 장관 : 저희가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해야죠.

김현정 : 유업계는 종이 값도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소비자들 생각도 해야 되고, 농림부에서 생각하시는 마지노선, 이 정도 이상은 안 된다, 하는 건 어느 정도일까요?

서규용 장관 :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라는 것이 안 올리면 제일 좋고요. 올리는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유업체랑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현정 : 안 올리는 게 최선인데,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규용 장관 : 그러면 최소화하도록 해야죠.

김현정 : 한 150원?

서규용 장관 : (웃음) 상황을 봐야지 제가 150원이다, 얼마다,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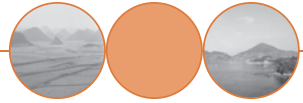
김현정 :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제가 꼬치꼬치 여쭙는 건데요?

서규용 장관 : 정부에서는 하여간 가격이 최소화하도록, 최근에 서민물가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믿어주세요.

김현정 : 기본 입장은 안 올리는 겁니까?

서규용 장관 : 기본입장은 안 올리는 게 최선이죠.

김현정 : 사실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 게 2004년, 2008년 원유값 인상 때 이미 우윳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2008년의 경우에는 원유는 리터당 120원이 인상이 됐는데, 우윳값은 리터당 250원에서 400원 됐고요. 그 후로도 우유업체들이 우윳값을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올렸습니다. 어린이들 있는 집에서는



우유가 생필품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올리면 너무 한 것 아닌가. 우유 업체 측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번에 원유 값 오르더라도 우윳값 인상 안 하고 갈 수는 없는가, 사실은 그 부분이 좀 답답합니다.

서규용 장관 :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동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업체랑 적극 협조해서 인상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0% 동감을 합니다.

김현정 : 그럼 일단은 올해까지는 올리지 않는 것으로 동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라도 있을까요?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규용 장관 :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타결이 안 된 상황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좀 그런데요. 어제 낙농육우협회, 원유생산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좋겠지만 소비자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 농업이 앞으로 발전하려면 소비자나 국민이 우리 농업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농업이 발전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고통을 나눌 수 있도록 좀 해줘야 우리 농업이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어제 제가 가서 설득을 시켰어요.

김현정 : 그런데 낙농가 쪽 문제라기보다는 우유업체 쪽의 마진이 좀 큰 것 같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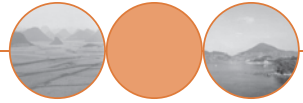
서규용 장관 : 낙농가에서도 고통을 분담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유업체에도 얘기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고통을 분담해서 서민의 필수품인 우유 가격 인상을 최소화 해줘야죠, 그게 목표입니다.

김현정 : 청취자들 문자가 쏟아지는데요. “장관님의 방침이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만 다한다는 말씀 외에 뚜렷한 방침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올해 안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내부적으로 있는 건가요?

서규용 장관 : 내부적으로 저희 입장으로는 금년도에 우윳값 인상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타결 안 됐기 때문에 어느 가격으로 타결되느냐에 따라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 금년 말까지는 최소한도 시중 가격이 안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정 : 추석 물가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물가 올라서 장보기 겁난다고 하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추석가격 인상목표치를 얼마로 잡으셨나요?

서규용 장관 : 추석 가격은 제수용품이 문제 아니에요? 제수용품이라든가 선물용 수요가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수품, 제수용품이라든가 선물용 품목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나 농협에게 비축하고 있는 물량을 전부 다 방출을 하고, 민간이 갖고 있는 물량도 출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싸게 하려면 직거래 장터가 있잖아요. 이걸 정말로 서울시내 곳곳에다 개설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수품을 싸게 집 가까이에서 살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추석이 작년 대비 한 10일 정도 더 빨라졌어요. 작년에는 23일인가 그랬었잖아요. 그러려면 과일이 빨리 익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해서 빨리 출하할 수 있도록 밑에다가 반사필름을 깔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 또 성수품을 싸게 살 수 있는 시장을 안내하는 장보기, 알뜰장보기 가격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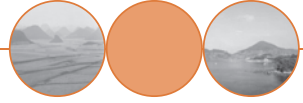
김현정 :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농산물이 물가폭등 주범 몰려 억울... 비중 8.8%뿐인데

— 전경하·황비웅기자 —

“농산물 가격의 폭등만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 가격은 하루하루 변동성이 크고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8%로 적기 때문에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내린 품목도 있는데 오른 품목만 강조하는 바람에 농민들의 불만도 크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 집무실에서 만난 서 장관은 통계청에서 농산물 물가를 조사할 때 상(上)·중(中)·하(下)품에 대한 기준이 없는 점을 꼬집었다.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중품을 쓰기 때문에 통계청의 물가조사 기준도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이후 주말마다 농정 현장을 돌아다녔는데, 현장 건의에 대한 검토 사례는.

태풍·우박 등으로 보험 보장범위가 한정돼 있는 사과에 대한 재해보험을 모든 재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앞으로는 사과·배·단감 등 5개 품목에 대해 대부분의 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시행령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저온 피해라든가 기습강우 등에 대한 재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4.7%인데 주로 농산물 가격 상승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농산물 값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2% 올라 다른 품목보다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농산물이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8%다. 특히 상추 값은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 농산물은 하루하루 변동폭이 크다.

물가를 상품 중심으로 잡는 경향이 있어 통계청에 농수산식품 분야 물가 통계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일반 소비자들은 상품보다 중품을 주로 쓰는데 통계청에는 그런 기준이 없다. 구체적인 물가지수 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소비자들의 농수산식품 소비행태를 조사 중이다. 중품을 기준으로 하면 공급량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물가는 덜 오르게 된다. 다음 주말쯤 결과가 나올 것이다.

산지 쌀값이 높아졌는데, 향후 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은.

통계청에서 작년도 생산량을 429만t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도정수율(벼의 무

계에 대한 도정된 백미의 백분율)이 평년에는 72%인데, 지난해에는 날씨가 좋지 않아 70%밖에 안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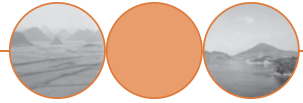
쌀 생산량은 420만t 정도밖에 안 된 거고, 그래서 쌀값이 올라간 것이다. 유통 구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기획재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할당관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농식품부는 관련 산업을 살려야 된다고 종종 맞선다. 농민과 소비자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나.

생산자가 지속가능한 농업을 할 수 있는 선에서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 또 우리 농산물 값이 외국산보다 월등하게 높으면 안 사먹는다.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기 위해 농가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유통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한 투자가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배춧값 중 유통마진이 우리나라는 70%이고, 일본은 85%다. 일본은 배추를 현장에서 다듬어 포장한 뒤 냉장차에 실어 배달하는 시스템이라 유통마진이 더 높다.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유통마진이 더 늘어난다. 쌀 유통마진도 우리나라는 22.1%, 일본이 22.4%, 미국은 59.2%다. 정부는 민간이 취하는 유통마진을 농협을 통해 낮추도록 애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통마진이 정확하게 안 나타난다.

그래서 올해 유통량의 15%에 불과한 농협의 직거래 물량을 2015년까지 50%로 늘리고 농업인 정례 직거래 장터와 사이버거래소 거래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달 중 '농산물 소매유통 효율화 태스크포스'를 구성, 도매 이후의 유통경로 추적 및 비용 감축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농협과 현지 상인들이 충돌 없이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유럽연합(EU) FTA 타결로 농축산 분야에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은.

지난 5일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재실시해 여·야·정 협의체에 보고했다. 앞으로 15년 동안 누계 피해규모가 2007년 분석 때의 10조 5000억원에서 12조 7000억원으로 2조 2000억원 늘어났다. 오는 19일에 열리는 여·야·정 협의체 회의 때 보완대책의 기본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 현대화와 관련해 마늘과 양파는 기계화되면 10년 정도 후에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데.

마늘과 양파의 파종·수확이 100% 기계화된다면 당장 내년에도 수출품목으로 개방할 수 있다. 논농사는 농약도 뿌려야 되고 제초제도 줘야 하지만, 마늘과 양파는 겨울 작물이라 해동기 때 농약 한번 뿌려주면 끝이다. 농촌진흥청에서 2017년까지 파종·수확을 70% 기계화하겠다고 해서 100% 기계화하도록 지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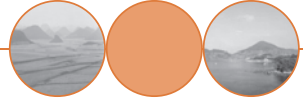
FTA는 농가에 위기이자 기회 수출농업으로 돌파

대담_김용민 정치경제부장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6개월만에 지구의 3분의 1바퀴(1만3486km)를 돌았다. 취임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농어업 현장에서 보낸 셈이다. 실제로 서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농정(農政)은 현장’이라고 선언한 뒤 지난 6월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빼먹지 않고 매주 주말을 농정 현장을 누비며 농어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지난 여름 휴가 동안에도 현장을 방문했을 정도다. 서 장관의 블로그에 나오는 ‘뛰는 서 장관’의 모습처럼 농어촌을 뛰고 또 뛰었다. 어릴 적부터 품었던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보겠다는 꿈을 향해 전력을 다해보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5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 서규용 장관을 지난 2일 정부과천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토마토 · 파프리카 등 수출 경쟁력 충분 장기저리 시설자금 정부 지원이 필수...
 “농민들 위한 농협” 개혁 위해 6조원 필요 농가 부채 무조건 탕감보다 회생에 초점

한국농업이 가야할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 얘기해달라.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무역협정(FTA)시대를 맞고 있는데 이는 농산물시장이 개방된다는 의미다. 쌀 농산물이 들어오니까 이 자체가 우리 농업에 위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우리만 개방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 국가도 개방되는 것이므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FTA로 피해가 나니까 피해를 보전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수세적인 농정이 아니라 공세적인 농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외국시장이 개방되니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출농업을 육성해야 한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농업이 된다. 그러려면 시설 현대화를 해야 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해야 한다. 올해만 해도 R&D 투자비용이 8600억원이다. 2015년까지 1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돼 있는데 R&D 투자를 해 수출 농업으로 가는 게 맞다. 30대에서 39세까지 도시가구소득과 농가소득을 비교하면 농가소득이 오히려 3.3%가 많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안가는 이유는 복지문제 때문이다. 삶의 터전이 되려면 의료 · 생활환경 · 문화 등이 갖춰져야 한다. 농촌의 의료시설 · 교육시설 · 문화시설 등을 보강해야 한다.

수출 농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좋은 얘기이나 우리나라의 농업이 수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지난 2009년 수출이 48억달러였다. 지난해 58억8000만달러, 올해는 지금

까지 62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수출농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면 된다. 옥수수·밀·콩 이런 작물은 당연히 경쟁력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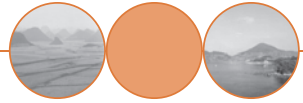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인 농업을 해야한다. 토마토·파프리카 이런 작물들은 수출이 잘 된다. 다만 이런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농업의 경우 시설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장기저리로 자금을 지원해줘야 한다.

식량 자급과 관련해 해외농지개발은 어떻게 돼가고 있다.

2020년까지 식량자주율(국내와 해외 투자 농장의 연간 곡물 생산량을 국내 소비량으로 나눈 것)을 60%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다. 2018년까지 농지 38만 ha를 해외에서 개발할 것이다. 현재는 식량자주율이 27%밖에 안된다. 지금 러시아·연해주·필리핀·인도네시아 등에서 해외 농지를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동남아·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계속 늘릴 것이다.



서규용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취임 6개월을 앞두고 지난 2일 정부과천청사 집무실에서 진행된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서 장관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출 농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준 기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큰 것이 애로사항이다.

주로 무, 배추가 가격 변동이 심하다. 농민들에게 면적을 올해보다 줄여달라고 하면 농민들은 또 오르나보다 하고 늘린다.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불특정다수 농민들이 동시에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라 생산량 조절이 힘들다. 공급뿐 아니라 수요도 비탄력적이다. 배추가 싸다고 해서 사람들이 김치 한 접시 먹던 것을 두 접시 먹지는 않는다. 그래서 공산품에 비해 농산물 가격을 잡기 힘들다. 앞으로 농협계약 재배를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재 농협계약 재배 물량이 18%다. 50%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그러면 중간상인들이 마진을 크게 못잡아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농협 신용부문과 경제부문 분리와 관련해 농협측은 반드시 정부지원금 6조원을 받아야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다.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농협이 많은 자본을 갖고 있으면 경제사업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주는 게 좋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다. 국회 상임위에서 2조원 더 늘린 6조원으로 올라갔는데 예산심의소위에서 검토될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6조원을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의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협 개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농협을 개혁하기 위해 이번에 4조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농민을 위한 농협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번에 일본 니히가타현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농민이 재배한 오이를 따서 논두렁에 쌓아놓으니까 농협에서 와서 다 실어갔다.

농민이 재배만 하면 운송·포장·판매는 모두 농협이 알아서 하고 수익금을 농민 통장에 넣어준다. 농민은 농사만 지으면 되는 것이다. 이런 농협을 만드는 것이 농협개혁의 목표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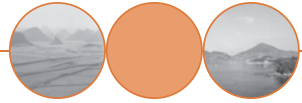
기온이 낮아지면 구제역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

구제역은 올 들어 17건의 의심신고가 있었으나 아직은 다 음성이다. 그러나 지금 전세계적으로 60개국에서 구제역이 나왔다. 특히 동남아 아시아 지역은 구제역이 거의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재발 가능성이 있다. 우선 검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저께 부산 공항에 가서 체크를 해봤다. 인적사항에 축산농가인지 아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행을 다녀올 때는 철저히 관리가 된다. 문제는 축산농가가 아닌 사람들이 나갔다 올 때다. 이런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한다.

지난해 11월 16일 첫 구제역이 나왔다. 올해는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이보다 한달 이른 10월 6일에 구제역 상황실을 설치했다. 만약에 백신을 안맞은 축산농가의 경우 과태료를 늘려 축산농가에서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도록 해냈다.

한·미 FTA 통과 이후 농민대비책과 관련해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미 FTA로 인해 우리가 15년간 피해액이 12조7000억이다. 매년 피해액이 8455억이다. 지난번에 한·미 FTA대책으로 22조1000억원 지원책을 내놨다. 현재는 여·야 원내대표가 13개 항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할지 협의



중이다. 13개항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피해보전도 중요하지만 시설 현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R&D투자를 늘려서 수출농업을 육성해야 한다.

한·미 FTA가 통과되면서 한·중 FTA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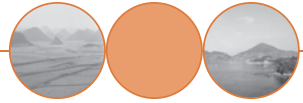
거래 인접성, 농업 경쟁력으로 볼 때 타격이 클 것이다. 예를 들면 고추가격이 중국은 우리의 10분의 1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FTA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다. 따라서 민감성 품목을 먼저 협상하고 전체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피해예상품목에 대해서 먼저 협의하고 다른 것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무역의존도가 87%나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FTA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한·중FTA의 경우 타격이 워낙 클 것으로 보여 민감성 품목에 대한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농가부채 문제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농가부채를 무조건 탕감해주는 것은 안 된다. 무조건적인 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 올 수 있다. 그렇다면 도시 가계부채, 도시 영세민은 어떻게 해야하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지를 맡기면서 회생하게 해준든지 연금을 준다든지 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농가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부채는 낮출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줘야 하는 것이다.

취임 후 6개월 동안 가장 보람있었던 일을 꼽는다면.

취임해서 보니 농어업인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으며 특히 MB정부 들어서 농정에 관심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현장의 애로 등 농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진솔하게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현장에서 70% 이상은 농어업인들의 하소연을 듣고 내 이야기는 30% 이내로 줄었다. 농어업 현장에서 농협법 개정, 유통구조 개선, 식품산업 정책 등 현 정부의 농어업 정책을 제대로 알리고 신뢰를 회복해 온 점에 큰 보람을 느낀다.



2012. 1. 3. |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2012년 주요 추진 정책

홍지명 : 한미 FTA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추가보완대책이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됐습니다. 농, 어업, 축산 분야에서는 어떤 대책들이 나왔는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규용 장관 :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 추가 보완 대책이 나왔다는 것은 그동안의 대책이 미흡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서규용 장관 :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완을 했습니다.

홍지명 : 네. 우선 농림수산식품부 대책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대책들이 나왔습니까?

서규용 장관 : 네. 추가보완대책은 우선 피해보전뿐만 아니라 농업을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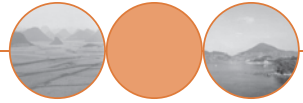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재정지원과 세제 지원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우리가 마련을 했습니다. 우선 재정지원은 피해보전 직불제 요건 있잖아요. 이것을 완화를 했어요. 시설 현대화를 확대 지원하고 있고, 발작물이라든지 수산직불제 등을 도입하는 그런 지원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세제 지원은 축산소득비과세를 확대한다든지 수입 사료를 무관세로 지원을 해서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세제 지원을 했고요. 또한 일반 농가한테도 면세유 공급을 확대를 하고 배합 사료 등 영농기자재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영세율 제도를 향후 10년 동안 앞으로 계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임차농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임차농을 보호하는 법제화를 해서 영농 여건을 개선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홍지명 : 구체적인 내용 좀 알아보아겠습니다.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 여건이 완화됐다는 것은 어떻게 완화됐다는 것입니까?

서규용 장관 : 지금까지 수입은행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15%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10%만 떨어져도 지원을 하는 그렇게 지원 여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홍지명 : 네. 그러니까 수입 농산물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85% 선까지 떨어져야지 농업보전직불제를 발동하던 것을 지금은 90% 정도만 떨어져도,

서규용 장관 : 발동 요건이 바로 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홍지명 : 지원 한도, 돈은 얼마나 주는 것입니까?

서규용 장관 : 그것은 떨어진 것의 90%까지 지원을 합니다.

홍지명 : 떨어진 것의 90%까지?

서규용 장관 : 그렇습니다.

홍지명 : 그리고 융자 금리를 1%로 내려서 시설 현대화를 돕는데 중점을 뒀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서규용 장관 : 네. 현재 농업시설은 대부분 UR 협상 때 타결돼서 투자됐기 때문에 노후화 됐어요. 그래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인데, 현재 지원 방식으로는 시설 현대화 자금이 금년도 245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10조 원이 필요한데, 이러려면 40년 이상 소요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보조 없이 융자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융자 금리를 현행 3%에서 1%로 인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를 안 받고 융자만 받을 경우에는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3%를 1%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사라든가 과수시설 현대화라든지 시설 품질 개선 등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고, 양식 어민들이 바다 양식을 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신규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홍지명 : 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규모도 늘었습니까?

서규용 장관 : 네. 지원 규모를 우리가 2450억 원인데, 시설현대화에서 7000억 정도를 늘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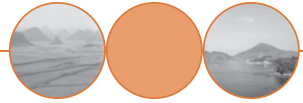
홍지명 : 네. 한미 FTA가 체결된 2007년에 정부가 대책을 수립한 바 있고, 작년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추가 대책으로 지원하는 규모, 돈 액수를 다 합치면 어느 정도나 되는 것입니까?

서규용 장관 : 우리가 지금까지 2007년도에 한 21조 천 억 정도 했는데, 지난해 8월 달에 한 EU FTA 때 1조를 늘렸고요. 지난해 8월에 1조를 늘려서 22조 천 억이었다가 이번에 추가로 2조를 늘렸어요. 그래서 24조 천억, 그 외에 저희들이 영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세계 지원을 포함한 29조 8천억이 됩니다. 이것을 다 합하면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하는 총액은 한 54조 정도 됩니다.

홍지명 : 그러니까 재정 지원액이 한 24조 천억 원, 세계 지원 규모가 29조 8천억 원, 이걸 포함한 54조 원 정도가 됐는데, 작년 8월에 마련된 대책보다는 재정 지원액이 2조 원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서규용 장관 : 그렇습니다.

홍지명 : 한미 FTA가 발효가 되면 쇠고기 수입이 급증해서 우리 한우 농가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규용 장관 : 저희들이 쇠고기는 2001년도에 수입이 발효가 됐어요, 이미. 그러면 이번 한미 FTA의 내용은 뭐냐,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관세가 40%인데, 이것을 15년 동안에 철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5년 동안 철폐하기 때문에 매년 2.7%씩 감축이 되잖아요.

홍지명 : 관세가 떨어지는군요.

서규용 장관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비를 절감한다든지 아니면 유통비용을 절감을 2.7%씩만 해주면 전혀 문제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료에 대해서 영세로 한다든지 수입할 때 관세를 무관세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료 가격을 낮춰주면 그만큼 생산비가 절감이 되잖아요. 또 한 가지는 조사료라고 해서 풀사료 있잖아요. 이것을 국내 생산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생산비가 낮춰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산비를 낮추고 또한 유통비용을 절감을 해서 매년 2.7%씩만 절감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홍지명 : 말은 그렇게 쉽지만, 매년 2.7%씩 생산비를 계속 낮춰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규용 장관 : 유통비용을 절감하면 되니까, 둘 중의 하나만. 그렇게 해도 되고, 또 하나 저희들이 일부에서 주장하는, 미국산 30개월 이상 되는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 이것은 한미 FTA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홍지명 : 월령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이 말씀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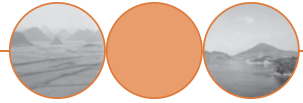
서규용 장관 : 그렇습니다. 수입위생조건은 우리가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는 30개월 미만만 수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30개월 이상이라면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미 FTA와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홍지명 : 그리고 아까 모두에 피해보전직불제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만, 사실 한-칠레 FTA가 발효되면서, 피해보전직불제 제도가 이미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규용 장관 : 그렇습니다.

홍지명 : 그런데 지원요건이 까다로워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더라,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됩니까? 반영이 좀 됐습니까?

서규용 장관 : 네. 한-칠레 FTA 때 그 때 문제가 돼서 피해보전직불제를 했는데 보전이 하나도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떨어질 때 피해보전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경쟁력을 강화해서 키위나 포도 가격이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한미 한-칠레 FTA 때 가격이 kg당 6700원이었는데, 한-칠레 FTA가 발효되고 나서 2010년도 가격은 오히려 6700원짜리가 kg당 11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홍지명 : 우리 농가가 재배한 포도가격이 올라갔다, 이 말씀입니까?

서규용 장관 :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갔기 때문에 피해보전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90% 미만이면 피해보전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요건이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쟁력만 높이면 얼마든지 수입을 막을 수 있다,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홍지명 : 지원 규모가 늘고 세제가 강화된 점은 농축어민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겠지만, 그런데 피해를 단순히 보전해준다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돈을 투입해야 하는데, 물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잡혀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말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까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서규용 장관 : 저희들은 경쟁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쟁력을 높이려면, 2가지, 시설 현대화해야 하고 성장 작목을 확대해서 공급해주면 충분히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축산이 제일 피해가 많아요. 전체 피해 중의 60%가 축산이거든요. 축산 농가에 대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것은 2가지거든요. 농우사료를 가격을 낮추고 조사료 가격을 낮춰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입되는 사료에 대해서 관세를 영세율을 무관세로 한다든지 부과세를 없앤다든지 이렇게 농우사료 가격을 낮추고 두 번째로는 조사료 국내에서 생산되는 풀사료를 확대 공급해서 가격을 낮춰주면 충분히 경쟁력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지명 : 시설 현대화, 작목 다양화를 가지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말 씬인데, 사실 요즘 농촌에 가보면, 고령화 영세화 된 농가가 많습니다. 농업의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젊은 인재를 좀 키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없습니까?

서규용 장관 : 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2500명 씩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후계 농업인을 육성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귀농귀촌센터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쉽게 귀농귀촌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고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주고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귀농귀촌을 쉽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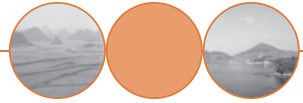
홍지명 : 알겠습니다. 추가보완대책에 대해서 농어민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셔야겠어요.

서규용 장관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지명 : 말씀 감사합니다.

서규용 장관 : 네. 고맙습니다.

홍지명 : 지금까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었습니다.



2012. 2. 27. | 서울경제

‘농협 지원 5조’ 공짜 돈 아니다...

대담_김영기 경제·금융부장

서규용(65)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은 “다음달 2일 새롭게 출범하는 농협을 위해 정부가 5조원을 지원한 것은 절대 ‘공짜 돈’이 아니다”고 못 박고, “이제 농민은 생산하고 농협이 팔아주는 형태가 돼야 하며, 이를 위해 유통 등에 있어 전면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협을 어떤 경우에도 정부 당국자들의 ‘낙하산 창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수 차례 드러냈다.



서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중 FTA로 농민들의 막대한 피해 우려에 대해서도 “FTA를 하더라도 전혀 망할 이유가 없다”며 “올해 한미 FTA가

발효되고 한중 FTA 협상이 시작되지만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으면 선진 농업으로 가는 원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한중 FTA 공청회가 열린 지난 24일 오전 서울 과천청사 집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최근 현안인 농협과 FTA 문제 등에 대해서 걱정 어린 목소리로 소신을 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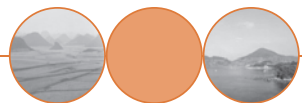
FTA 두려워할 필요 없어… 농업 선진 원년 만들 것

서 장관은 몇 번이고 “FTA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인터뷰가 진행되던 시간은 공교롭게도 한중 FTA 공청회가 열린던 시점과 맞물려 있었다. 앞서 한미 FTA 발효시점은 3월15일로 정해졌다. 야당은 한미 FTA 폐기를 요구하고 있고, 한중 FTA 공청회는 농민단체들의 시위로 파행을 겪는 때였다. 자연스레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 장관의 입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서 장관의 의지는 굳었다.

“한중 FTA로 피해가 큰 건 사실이에요. 중국은 우리와 인접해 있는 데다가 격구조가 엇비슷해요. 그리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와 협상을 어떻게 해낼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한중 FTA는 고추·마늘·양파·수산물 등은 제외하고 협상하자 그겁니다.”

그가 FTA가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과 정부의 대책 때문이다. 서 장관은 칠레와의 FTA 사례부터 꺼냈다.

“지난 2004년에 칠레와 FTA 한다고 해서 농민들이 고속도로 점거했어요.



그때 문제가 됐던 게 포도와 키위입니다. 당시 포도가 1kg에 6,700원했는데 2010년에는 1만 1,000원이예요. 칠레산 들어오면 값 떨어진다 고 했는데 오히려 국내산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가격이 올랐거든. 수입으로 인해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보전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런 직불제 집행이 안 됐어요.”



서 장관은 한미 FTA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했다. 특히 한미 FTA로 수입 쇠고기가 늘어난다는 주장이나 국내 축산 농가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했다.

서 장관은 “아직 한미 FTA는 발효도 안 됐다”며 “한미 FTA로 쇠고기는 15년간 40%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중 FTA로 농가 안 망해 오히려 선진농업 도약 기회 농협 계약재배 50%까지 늘려 농산물 가격 잡힐 것 농고, 마이스터고 전환 등 젊은 농업인 육성에도 최선

그는 숫자를 하나씩 예로 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15년 동안 철폐니까 평균 매년 2.7%씩 생산비를 줄이거나 유통비를 감소시키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농가가 망하는 게 아니예요. 우리가 곡물사로 비용을 낮춰주기 위해 무관세나 할당관세로 하는 품목을 11개에서 21개로 늘렸습니다. 풀사료도 밭직불제를 해서 20만원씩 보조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생산비에서만 20%를 줄일 수 있어요. 이 밖에 현재 쇠고기값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42.5%인데 농협을 활성화하면 두 항목을 더해 40%를 못 줄 일 이유가 없습니다.”

서 장관은 인터뷰 내내 FTA에 따른 농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면세유 공급대상 추가, 농사용 전기료 적용시설 확대, 피해보전직불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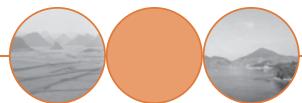
거꾸로 농촌에서도 FTA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얼마든지 중국의 소득층을 공략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가 87%이어서 문을 닫고 살 수는 없는 만큼 농업도 올해 100억달러 수출 목표를 세우고 독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과일 등 농수산물가 안정될 것… 근본 틀 바꾸고 있다

서 장관은 물가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당장은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산물 값은 안정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과일값은 한파로 올랐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구조적인 개혁. 그는 매년 들쭉날쭉하는 농산물 가격을 잡을 수 있도록 근본 틀을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추만 놓고 보면 우리가 농협에 계약 재배를 30% 해주라고 하고 있어요. 2015년까지는 주요 농산물의 50%를 농협이 계약 재배할 예정입니다. 농협이 가격조정을 하게 되면 중간에서 폭리를 취할 수 없어요. 가격은 저절로 잡히게 됩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은 또 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농산물 가격



이 쌀 때 샀다가 비쌀 때 방출해 가격을 잡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유통구조 전체를 바꿀 계획이다. 서 장관은 “5대 권역별로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가격 안정을 시키고 축산물은 대형 패카를 만들어 축협이 바로 도축, 가공, 포장까지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쌀은 쌀유통회사를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농협 얘기로 넘어갔다. FTA로 인한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를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협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협 정말 변해야 한다... 농민 위한 농협으로 태어나야

서 장관은 작심한 듯 말을 시작했다. 농협이 이제는 정말 변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농협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정권 들어서 법을 고쳤어요. 50년 만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부분은 정말 큰 성과입니다. 전 정권에서도 농협이라는 조직을 못 움직였습니다. 경제사업 잘하라고 정부가 5조원을 줍니다. 정부가 해줬으니 이제는 농협이 책임을 지고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 장관은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은 생산하고 농협이 팔아주는 형태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을 무엇하러 해요. 정부가 5조를 대줄 이유가 없습니다. 일본 니가타 현에 갔더니 농민이 하우스에서 오이를 재배해 파놓으면 농협 차량이 싹 담아 갑니다.

농협이 다 팔아서 농민 통장에 돈을 넣어줍니다. 그게 농협이 할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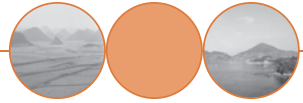
3월2일 새로 출발하는 농협 인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맡겼다고 했다. 출범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그와 인터뷰 당시에는 농협 금융 지주회장의 인사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서 장관은 낙하산 인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인사에 대해서는 회장이 하되 개혁적으로 농협을 좋아하는 사람을 하라고 했어요. 회장한테 누구 해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내부든 외부든 능력 있고 개혁적인 사람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조직이나 예산 문제는 거의 합의됐어요. 지주사에 출자하는 대상 주식도 거의 합의된 거로 압니다. 한국도로공사 주식도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월2일 출범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농협 변하면 농업 선진화 가능… 농업 젊은 인재 육성할 것

서 장관은 농협이 변하면 우리나라 농업의 선진화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농가의 소득이 안정되고 정부의 지원이 더해지면 선진산업 구조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농업 선진화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영세 농업입니다. 호당 경지규모가 1.46헥타예요. 4,500평이 안 돼. 보리, 옥수수, 밀 등은 미국 같은 나라와 경쟁이 안 되죠. 결국 자본이나 기술집약적인 농업을 해야 해요. 화훼, 과수, 축산 등을 해야지요. 이를 위



해 시설 현대화 자금예산을 작년 2,450억원에서 금년 7,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렸어요. 젊은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1% 저리로 자금을 빌려줄 겁니다.”

아울러 그는 단순히 농사만 지을 게 아니라 의약, 가공, 관광까지 더해야 한다고 했다. 재배 상품을 가지고 약을 만들고, 식품으로 만들어 팔고 관광상품을 결합하면 우리 농가의 소득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젊은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생각도 전했다. 서 장관은 “영농후계자를 1년에 2,500명씩 육성하고 있고 농수산대의 경우 학비를 면제해준다”며 “최근에는 광진농고를 마에스터고로 바꾸는 등 젊은 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가의 고질적인 문제인 농가부채에 대해서도 대안을 내놓았다. 서 장관은 “농가부채의 원인은 재해 때문인데 작년에 재해보험 항목을 51개에서 61개로 늘렸다”며 “농기계 구입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트랙터와 콤바인 등을 빌려주는 농기계은행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부채 문제는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서 장관은 한식 세계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한국 음식을 해외에 파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와 전통을 수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 장관은 “최근 스페인에서 개최된 마드리드 퓨전 행사에서 한국 음식이 히트를 쳤다”며 “케이팝(K-Pop)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5~6년 안에 한식을 세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 장관은 ‘미스터 귀농귀촌’

“은퇴후 대안 될 수 있다” 적극 장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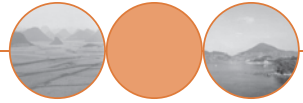
“장관직 마치면 고향서 농사 지을 것”

서규용 장관의 별명은 ‘미스터(MR) 귀농귀촌’이다. 귀농귀촌의 중요성을 날마다 얘기하고 다녀서인데 누구를 만나든 귀농귀촌의 장점을 설명한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대표 브랜드가 귀농귀촌일 정도다.

서 장관이 생각하는 귀농귀촌의 좋은 점은 도시에 살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편안한 전원생활을 제공하고 농어촌에는 도시민의 경험을 접목해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라는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에게도 귀농귀촌은 은퇴 후 대안이 될 수 있다.

서 장관은 귀농귀촌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는 오는 3월까지 귀농귀촌 관련자료를 통합 연계하는 포털사이트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세제지원, 원스톱 지원센터, 귀농귀촌 교육을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귀농귀촌에는 서 장관도 예외는 아니다. 그는 장관직을 그만두면 낙향할 계획이다. 서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도 “장관직을 마치면 농촌으로 돌아가 농사 지으면서 봉사할 것”이라며 “두고 보면 안다”고 웃으며 말했다.



서 장관에게 농촌은 가까운 곳이다. 어렸을 때는 고향에서 직접 농사를 도왔다. 차관직을 그만둔 뒤인 지난 2008년에도 충북농업연구원 원장을 무보수로 맡았다. 농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서장관은 현장을 잘 안다. 취임 후 주말이면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각종 용어부터 수매구조·작황 등을 훤히 알고 있다. 농업에 관한 각종 통계도 줄줄이 꿰고 있어 ‘디테일 장관’이라는 말을 듣는다. 다른 부처 같았으면 실무자들만 알고 있을 내용도 직접 일일이 챙기는 것이다. 장관이 현장을 워낙 잘 알고 있어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들도 곤혹스러울 때가 많다.

특히 업무에 관한 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다. 밀어붙이는 힘도 강하다. 배추 계약재배를 제대로 하지 않는 단위농협 조합장에게 “정부가 농협을 지원하는데 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며 현장에서 호통을 칠 정도다.

그는 2000년에는 66년만에 발생한 구제역을 초동 진화하는 데 성공했고 농협과 축협 등의 중앙회 통합도 큰 무리 없이 이끌어냈다. 2002년 한중 마늘분쟁 때는 본인이 책임질 위치가 아니었음에도 자청해서 물러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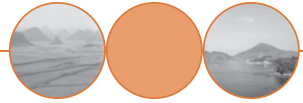
한·중 FTA 협상서 모든 농산물 제외하는건 불가능하다

- 서보미 기자 -

서규용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은 정통 농업관료다. 대학에서 농학과(고려대)를 나왔고 농림부에서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치며 다양한 농업 정책을 다뤘다. 관직을 그만둔 뒤에도 한국농어민신문 사장, 로컬푸드운동본부 회장, 충북농업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일을 해왔다.

그런 그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모든 농수축산물을 빼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10개 농민단체 연합이 정치권에 ‘한·중 FTA협상에서 농수축산분야 제외’를 총선공약으로 내걸 것을 요구한 것을 비판했다.





한·중 FTA 협상이 총선이 끝난 뒤 곧바로 시작될 것 같다.

“농민들의 걱정이 많다. 정부도 중국과의 FTA가 농어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려 한다. 중국과 1단계로 농수축산물 등 민감 분야에 대한 합의가 완전히 된 뒤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협상을 시작하기로 부처 간 의견이 모아졌다.”

마늘·고추 등 민간품목 피해 없도록 최대한 노력 농민 걱정거리 ‘비싼 사료’ 한미FTA로 무관세 혜택

농민들은 농수축산물을 모두 협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한다.

“한·중 FTA로 가장 걱정되는 품목은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류와 수산 부문이다. 정부는 이들을 양허품목에서 제외하도록 협상과정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농수축산물 전체를 빼달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건 협상이 아니다.”

총선을 앞두고 농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 시즌에도 부당한 요구에 대해선 정도에 따라 철저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나의 원칙이다. 물론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는 100%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선거철이라고 해서 부당한 요구에 손을 들어주면 경제가 망가진다.”

한·미 FTA가 내달 15일 발효된다.

“한·미 FTA 대책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수개월 머리를 맞대 만들었다. 농식품부의 요구사항을 다른 부처들이 최대한 존중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농어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일만 남았다.’”

농수축산물 관세가 계속 낮아질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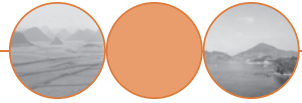
“미국산 쇠고기는 향후 15년 동안 관세 40%가 없어진다. 1년에 2.7%씩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다. 한우도 매년 2.7% 생산비를 낮추면 된다. 먼저 정부가 유통구조를 확 뜯어고쳐 가격을 낮춰줄 것이다. 지금 쇠고기 가격의 42.5%가 유통비용 아닌가. 농민이 가장 걱정하는 게 비싼 사료다. FTA로 사료도 무관세나 낮은 관세로 들어오게 돼 농가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올해에만 축사 현대화에 1조5000억원을 들여 경쟁력을 갖추게 해줄 것이다.”

현금성 지원인 피해보전직불제가 필요한가.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필요하다. FTA로 수입이 늘어 농축산물 국내 가격이 지난 5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게 된다. 원래 ‘가격 80% 미만, 80% 보전’이었는데 이번에 강화했다. 이 직불금은 일종의 보험이다.”

장바구니 물가가 여전히 높다.

“농수축산물이라는 게 수급을 맞추기가 참 어렵다. 날씨 때문에 공급이 10% 줄어도 가격은 40~50% 떨어지곤 한다. 그래서 정부는 최대한 유통구조를 개선해 산지 가격을 장바구니 물가에 연동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소비자가 비교적 저렴하고 안정된 가격에 쌀을 살 수 있는 것은 미국 조합처리장(RPC)이 있기 때문이다. RPC를 통해 농민이 출하한 쌀이 바로 소비자에게 오니까 쌀 가격에서 유통비용이 21%밖에 안 된다. 미국(40%) 일본(23%)보다 훨씬 적다. 다른 농산물이나 한우의 유통단계도 줄여주면 소비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협의 역할이 중요하다.

“농협중앙회의 금융부문과 농업경제 부문이 3월2일 분리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 5조원에 해당하는 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농축산물 판매와 유통이라는 농협 본연의 역할에 집중 투자될 것이다. 앞으로 농산물과 축산물의 50%를 농협이 점유하게 되면 농가는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팔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이를 사먹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정부와 학계가 참여하는 경제사업평가협의회를 구성해 경제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따져볼 것이다.”

농협 활용 유통단계 줄여 물가 부담 크게 줄어들 것 귀농·귀촌 2만가구 지원… 농어촌 경쟁력 대폭 강화

올해는 우려했던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4월 말까지는 안심할 수 없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AI)도 걱정이다. 철새에 의한 AI는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시점이다.”

애칭이 ‘미스터 귀농·귀촌’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귀농·귀촌은 도시민에게는 새로운 일자리와 편안한 전원생활을 제공한다. 그러면서 농어촌의 경쟁력도 높여주고, 국가적으로는 도시 과밀화 등 사회적 비용을 줄여준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난해 1만가구가 넘게 농촌으로 내려갔다. 올해는 ‘2만가구’를 목표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2012. 3. 12. |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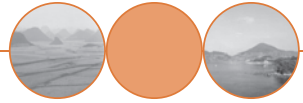
귀농·귀촌 대책

홍지명 : 농협이 신용과 경제 부문을 분리해 새롭게 출범한 지 일주일입니다. 그런데 경제 지주의 판매 유통 부문의 준비가 늦어지고 지주회사 방식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 과제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서규용 장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규용 장관 :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 농협이 중앙회 아래 신용과 경제 부문을 나눠서 출범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서규용 장관 : 네. 지금 농협이 1961년에 설립돼서 한 51년이 됐습니다만, 농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나, 농업인들이 바라는 농산물을 팔아주는 경제 사업에 소홀히 하고 상대적으로 손쉽게 돈이 되는 은행 보험 금융 사업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4년부터 신경 분리가 논의가 됐습니다만,



이게 안 됐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지시가 있어서 18년 만에 농협법이 개정돼서 이번에 새로운 농협이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농협은 우리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특히 경제 사업 부문은 자본을 배분해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농산물의 수급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판매 중심의 농협으로 탈바꿈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을 하고 유통 판매는 농협이 전담을 해서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 값을 받고 팔아주도록 그래서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홍지명 : 과연 농민이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바꾸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이 돌아가게 됩니까?

서규용 장관 : 왜냐하면 지금 유통마진이 일반 상인에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것을 농협이 바로 팔아주니까 유통 마진을 확 줄여주겠다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농민한테도 좋고, 소비자한테도 좋게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홍지명 : 그런데 농협중앙회 구조는 바뀌었는데, 지역 조합은 그대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비전문가인 조합장이 금융과 경제 부문을 모두 맡아서 빈발하는 구조도 불합리하고 뭐 조합장 선거 비리, 경영 부실, 경영 기반 취약, 여러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점들에 대한 개선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서규용 장관 : 지역 조합에 대해서 경제 사업을 활성화 하고 신용사업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선 조합을 시군단위 생활권으로 규모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지적하신 대로 전문 경영인의 영입을 확대해서 경영을 효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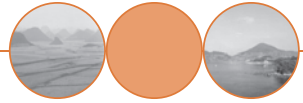
하고 전문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규모나 경영을 효율화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 자금을 지원을 하되, 경영이 부실한 조합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구조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조합장 선거에 있어서는 2015년에 동시 선거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 조합의 부정선거를 예방을 하고 선거 관리를 효율화 하도록 그렇게 해서 깨끗한 선거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선거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조합 임원이 돼서 경영이 건전화 되고 투명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지명 : 아까 장관께서 유통부문의 마진을 줄여서 농민들이 제 값을 받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서규용 장관 : 그렇습니다.

홍지명 : 지금 판매 유통 부문은 아직 분사 준비조차 안 돼서 3년이나 5년 후에 출범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신경 분리의 명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서규용 장관 : 네. 그것은 맞습니다. 지난 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도매 유통 등 분야 있잖아요. 이것을 당장 지주 회사로 출범시킬 경우에는 사업이 부실화 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전문성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지주회사로 이전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지주회사 이관하는 계획을 내년도, 금년도에는 기존 자회사 13개회사를 이관하고, 2013년에는 소매나 식품 축산 이것을 이관하고, 그 다음에 2014년에는 청과 도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지주 회사에 이관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했고요.



그러나 경제 사업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지만, 판매나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사업은 빨리 하도록 해서 금년에 예를 들면 물류센터는 건립한다든지 소매 유통시설을 확충하는 데는 한 1조 53억 원을 들여서 바로 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신규 사업은 확대해서 유통이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홍지명 : 신경 분리가 됐다지만, 정작 농민들은 농협의 신경 분리 사실도 잘 모르는 등 초반인 만큼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만, 간단히 중장기적인 목표도 밝혀주시죠.

서규용 장관 : 네. 중장기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새 농협이 출범된 것은 궁극적인 목표는 농업인들은 생산에만 전담하고 판매는 농협이 책임지는 그런 구조로 만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앙회가 조합의 출하 물량을 50% 이상 책임지고 판매하는 그런 조직으로 해서 농가 소득의 증대가 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를 위해서 농협에 경제 사업에 신규로 투자되는 한 4조 9천 6백 억 원을 농업인에게 이익이 되고 소비자에게 혜택이 되도록 이렇게 투자를 해서 경제 사업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홍지명 : 네. 조금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농림수산물부가 조사를 해 봤더니, 귀농귀촌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는 건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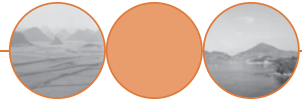
서규용 장관 : 네. 귀농귀촌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의 귀농귀촌이 재작년보다, 1년 전보다 158%가 늘어났어요. 1년 전에 4천 67가구였는데, 작년에는 만 5백 3가구로서 158%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도시민을 농어촌에 유치하려는 노력이 됐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9년도에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발표를 해서 각종 정보라든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상업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귀농귀촌이 많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홍지명 : 사실 단순히 전원생활에 대한 향수나 별다른 준비 없이 귀농귀촌을 했다가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규용 장관 : 그렇습니다.

홍지명 :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라든지 조언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서규용 장관 : 네. 귀농귀촌은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것을 꼭 생각하셔야 하고, 그리고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족 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가족이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귀농교육이라든가 정보 제공을 활용을 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그 지역의 주민과 화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정부에서는 세제 지원이라든가 재정 지원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특히나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귀농하고 싶다고 하면, 거기 들어가 보면, 이론 교육은 어떻게 하고, 실습교육은



어떻게 하고, 이것이 다 안내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지명 : 각종 상담을 다 받을 수 있군요?

서규용 장관 :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과수를 하겠다고 하면, 과수 농가에 연결해서 거기서 과수 재배 기술을 1년 동안 배우고 귀농할 수 있도록 하고.

홍지명 : 그러면 귀농귀촌 종합센터는 도 단위로 설치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군 단위까지 있습니까?

서규용 장관 : 우리 진흥청이 기술을 맡고 있잖아요. 농업기술. 진흥청에 해서 농협 직원도 진흥청에 가서 근무하고 본부 사람도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진흥청에서 하고요. 각 시군에는 기술센터에 연결해서 상담을 각 시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다 시켜놨습니다. 내가 만약에 청원군에 가고 싶다고 하면, 청원군 기술센터에서도 연결이 돼서 거기 어느 지역에 가서 과수를 한다든지 양계를 한다든지 양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홍지명 : 알겠습니다. 시간 상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규용 장관 : 네. 고맙습니다.

홍지명 : 농림수산식품부의 서규용 장관이었습니다.

농어민 지원대책에 54조원... 더 이상 '아스팔트 농업' 해선 안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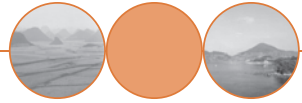
- 박유연 기자 -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남다른 감회를 느끼는 사람 중 하나다. 농민들의 반대 시위가 줄을 잇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동시에 이들을

잘 다독여 FTA 이후 한국 농업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농민의 단상 점거로 지방 강연에 차질을 빚는 등 고초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FTA 발효에 맞춰 실시되는 총 54조원 규모의 농어업 지원대책이 한국 농업을 새로운 반열에 올려놓을 것이란 게 그의 확신이다.

그는 13일 과천 정부청사 집무실에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미 FTA 발효에 맞춰 정부가 준비를 잘해 왔고 농어민 스스로도 경쟁력을 갖춰 왔기 때문에 올해는 오히려 선진 농업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분명 높은 파도가 몰아치겠지만 넘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가 선진 농업 원년 될 것”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한국 농업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란 걱정이 많지만 서 장관은 “모두 오해에 의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한 예로 미국산 곡물이 밀려들면서 곡물 자급률이 떨어질 것이란 얘기가 있는데 쌀을 예외로 한 상황에서 어차피 수입에 의존하던 곡물만 싸게 들어오는 상황이니 곡물 자급률이 떨어질 일이 없다”고 말했다.

높은 파도 넘을 수 있다

어차피 수입 의존하던 곡물 더 싸게 들어오는 상황… 곡물 자급률엔 영향 못 미쳐

농산물 수입이 늘면서 가격이 급락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도 고개를 저었다. 그는 “한·칠레 FTA를 할 때도 포도와 키위 농가들이 다 망한다며 고속도로까지 점거하며 시위를 벌였지만, 포도 가격은 FTA를 하기 전 kg당 6700원 하던 게 지난해엔 1만1000원대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5년간 평균가격의 90%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면, 가격 하락분의 90%를 지급하는 피해 보전 직불제(피해 농가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포도와 키위에서 가격 하락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규용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이 13일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한미 FTA가 발효됐다고 해서 농어업에 피해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대미 수출을 늘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올해를 농업강국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magnum91@chosun.com

그는 “지난해 미국에 사과 75톤, 배 8284톤, 감귤 445톤을 수출했다”며

“한미 FTA를 통해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농산물의 관세도 없어지는 만큼 역으로 이번 기회에 우리 농산물 수출을 더 늘리자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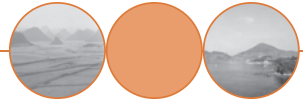
우리 농산물 값 급락?

한·칠레 FTA 체결 때 포도값 떨어진다 반대했지만 6700원에서 1만1000원대로

한미 FTA 발효로 미국산 쇠고기에 붙던 40% 관세가 15년에 걸쳐 철폐된다. 축산 농가에는 큰 위협이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결국 1년마다 2.7%씩 가격이 내려가는 셈”이라며 “우리 농가들이 이에 대응해 1년에 2.7%씩 생산 원가를 절감해 가격을 내리면 되는데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사료 가격 감면과 유통 비용 절감 등 여러 대책이 준비돼 있습니다. 관세 인하로 수입산 쇠고기 가격이 떨어지는 것 이상으로 국산 쇠고기의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무상보조금 점차 폐지… 장기 저리 융자 확대”

그는 FTA에 대해 농민들의 반발이 여전히 큰 상황에 대해 “더 이상 ‘아스팔트 농업’을 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스팔트 농업이란 본업인 농사는 뒷전인 채 도로 점거 등 각종 시위를 주도하면서 정부에 보조금을 요구하는 일부 농민들의 행태를 지적하는 말이다. “일부 과격 농민들은 대화를 시도해 봐도 무조건 안 하려고만 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 농가 대책

미국 쇠고기 年 2.7%씩 인하

사료가격 감면·유통비 줄여 우리도 그만큼 원가 절감 가능

그는 “농가에 대한 각종 보조금이 현금 나눠주기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일부 농가들만 혜택을 보는 무상 보조금은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모든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연 1%의 장기 저리 융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리 융자 방식인 시설 현대화 자금의 수요를 조사해보면 10조원에 이르는데, 정부가 매년 공급할 수 있는 자금은 245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개별 농가에 지급하는 무상 보조금에 너무 많은 예산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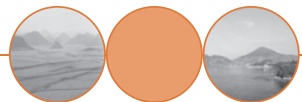
Food exports to reach \$30b by 2020: minister

This is the fifth of a series of interviews with top officials and trade-related association chiefs on FTAs in light of the Korea-U.S. FTA taking effect. — Ed.

Despite the expected blow to Korea's agricultural industry in the wake of its free trade pacts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the nation's food exports will top \$30 billion by 2020, the agriculture minister said.

Listing the fresh wave of K-pop as a major potential boost to the industry, Agriculture Minister Seo Gyu-yong expressed full confidence in tripling the exports target in less than a decade.






“I have no doubt that agro-fishery exports can reach \$30 billion by 2020. This is a very feasible number if the figure grows by about 20 percent annually,” Minister Seo said in an interview with The Korea Herald last week.

“I am confident that the country can make it onto the top 10 largest food exporter list within the next decade. Free trade agreements pose challenges to the sector, but new markets are also opening up for us with the deals,” Seo said. The ministry’s export target for this year is \$10 billion.

Pointing to positive responses to Korean food from Spain and Japan, where he made recent trips, Seo said “K-food” would become ever more popular on the back of K-pop.

“Hongcho, a raspberry flavored red vinegar, has become so popular in Japan because K-pop group Kara modeled for it there. K-pop stars are really a springboard to the K-food industry and the marketing help there will greatly enhance exports,” Seo said.

Seo, who orchestrated support measures for the sector hit by the FTAs, said the agro-fisheries industry needs to go through reform as trade barriers f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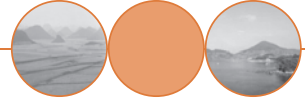
“The FTAs pose challenges, but they are also an opportunity. Farmers won’t be able to survive with the old style of leasing on a small patch of land. Their business models should turn into capital intensive, technology-intensive ones,” the minister said.

He said reform has become an issue of survival with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which is expected to wipe out at least 12.67 trillion won in local production in the agriculture and livestock industries over the next 15 years, according to government estimates.

Seoul in January assigned an additional 2.9 trillion won in support to cushion the impact of the Korea-U.S. FTA. Of the 2.9 trillion won, 2 trillion won will be used as direct financing and 900 billion won in tax benefits. The government will inject 10 trillion won (\$8.64 billion) over the next decade to modernize production facilities.

The total set aside as subsidies and investment for the agro-fisheries industry is 54 trillion won by 2017.

Seo welcomed the government’s push to ink another trade pact with China and called it an “unavoidable choice” this trade-dependent country needs to make.



“We’re currently conducting working–level discussions with China. The Agriculture Ministry will do the very best to protect the sectors that stand to lose the most with competition from China,” Seo said.

“The government will first seek ways to protect farmers of red pepper, garlic, onion and seafood, clear that out with the Chinese counterpart, and proceed to other negotiations,” he added.

By Cynthia J. Kim (cynthiak@heraldm.com)

농사가 3D업종이라구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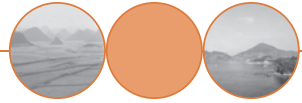
— 조규봉 쿠키건강 기자 —

“요즘 젊은 사람들 굶은일은 하기 싫어합니다. 농사가 3D 업종인줄 알아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농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예요. 도시 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을 농촌에선 얼마든지 다양하게 체험하고 느껴볼 수 있습니다. 맑은 공기와 좋은 이웃들, 더불어 농가활동을 통한 소득까지 우리 농촌의 경쟁력은 앞으로 더 무궁무진해질 거예요.”

거침없이 쏟아낸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첫마디는 그야말로 농어촌에 대한 애정으로 푹푹 뭉쳐 있었다. 꼼꼼한 성격과 30여년이 넘는 농정경력 덕에 장관은 농촌 살림살이에 관한 베테랑이다. 농어민이 무엇 때문에 시름하고 또 무엇 때문에 즐거운지를 제일 먼저 안다.



미스터 귀농·귀촌으로 불리는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도시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을 농촌에서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며 귀농·귀촌 사업을 통해 농촌도 살만한 곳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자신했다. <박효성 쿠키미디어 기자>



너무 잘 알기에 간혹 서 장관이 쏟아내는 말은 거침이 없을 정도로 시원하다. 올해는 특히 그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있다. 바로 귀농·귀촌이다. 지사체와 손을 잡고 홍보에도 열심이다.

**농촌 경쟁력 앞으로 더 무궁무진해질 것
편한 것만 꿈꾸지 말고 일을 즐기며 해야
귀농·귀촌 지원 위해 6개 핵심대책 추진**

서 장관은 지난 5일 진행된 쿠키건강과의 인터뷰에서 “귀농·귀촌하면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며 “귀농·귀촌하면 보험료 덜 내고, 직불금 받고, 연금도 받고, 양도·소득세도 감면해주는 등 도시에서 받지 못하는 혜택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귀농하면 이 많은 혜택이 쏟아지는데 왜 안 가느냐”며 “이번 귀농·귀촌 사업을 통해 농촌도 살만한 곳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작정”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음은 일문일답.

귀농·귀촌 인구가 점점 늘고 있다. 현재 현황은.

“지난해 귀농·귀촌 가구수는 전년(4067가구)보다 2.5배 증가한 1만503가구(2만3415명)로 앞으로 더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로 도시에서 자영업이나 사무·생산직에 근무했던 이들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많이 귀농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20~30대 젊은 층에서 귀농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젊은 층의 유입도 늘고 있다. 아울러 무직자들도 귀농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일단 살기 팍팍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려는 도시인의 의지표출이 귀농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이런 의지를 정부와 지자체가 최대한 협조해 도시민을 농어촌에 유치했고, 그 노력이 지금의 성과를 내게 했다. 현재 정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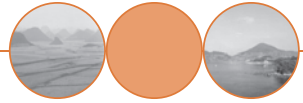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취임 이후 서규용 장관은 “현장이 곧 농정”이라며 “현장을 돌아보면 농업인에게 현재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2009년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 것을 시작으로 각종 정보제공, 맞춤형 교육, 창업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 시장·군수들도 농어촌지역 고령화, 인구 감소에 따라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강하다. 일선 시·군에서는 도시민 유치를 위해 선의의 경쟁도 하고 있다. 귀농·귀촌 유치를 통해 농어촌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미스터 귀농·귀촌’이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귀농·귀촌에 적극적이다. 이유는.

“농어촌에 활력이 되고 지금보다 농어민이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다. 현재 베이비 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고 있다. 은퇴한 베이비 부머는 그간 찌들었던 도시 삶에서 해방돼 잘 먹고 더 잘 살기를 원한다. 웰빙이 사회 트렌드로 바뀐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대도시 거주 베이비 부머의 절반이 넘게 농어촌 이주를 희망하고 있다. 귀농·귀촌을 통해 농식품 산업 성장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원동력이 확보됐으면 한다.”



올해 추진하는 귀농·귀촌의 핵심 내용은.

“올해의 경우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고 베이비 부머 세대를 비롯한 도시민의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해 총 6가지의 핵심 대책을 세우고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대책 6가지는 ▲귀농·귀촌종합센터 설치 ▲직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확대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재정 및 세제 지원 확대 ▲농어촌 체험, 멘토링 등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 활동 강화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홍보 추진 ▲법적 지원 근거 및 지자체 행정체계 정비 등이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통해 귀농인이 최대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다.”

귀농·귀촌 종합센터가 하는 일은.

“기존 귀농·귀촌 프로그램은 정보를 검색하거나 접근하는 절차가 복잡했다. 또 각 지자체나 기관·단체에서 산재·분산돼 있어 불편했다. 때문에 정부·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이나 관련 정보 취득, 그리고 귀농상담까지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설치하게 됐다. 이곳에서는 주로 관련기관 직원들이 합동 근무하면서 방문자상담, 전화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한 자리에서 제공한다.”

귀농인의 주작목 현황은.

“배, 배추 작엽과 원예시설작물이 대부분이다. 현장을 다녀보면 잘 모르고 덤볐다가 실패한 귀농인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복잡한 생산기술과 투자

비용이 실패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최근 귀농인은 생산기술이 복잡하지 않고, 초기 투자비용과 실패확률이 낮은 작목의 선택비율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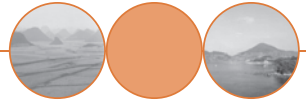
예비 귀농인을 위한 지원 방법은.

“예비 귀농인을 위해 권역별·직업별 맞춤형교육, 우수사례집 발간 등 각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21개 기관에서 23개의 실습형(자부담 30%), 합숙형(자부담 3개월 50만원) 귀농·귀촌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귀농 실패율을 최소화 하고 있다. 또 선도농가에 한해 실습지원(최대 60만원, 10개월)과 농지·주택구입 등 창업지원 자금 지원(최대 2.4억원, 3%)을 해주고 있으며,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세 면제 및 농지취득세 50% 감면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끝으로 예비 귀농인을 위한 당부의 말은.

“귀농·귀촌은 꿈이 아니다. 현실이다. 농어촌에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단순하게 편한 것만을 꿈꾼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즐거라. 즐기면 아무리 힘든 일도 힘들지 않다. 농림부 차관 그만 두고 나서 9년 동안 우리 농촌 우리 농업, 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했다. 어떻게 하면 농업 농촌을 살릴 수 있는가를 고민했다.

장관이 되고 현장을 다니면서 농민들의 지원해달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가는 곳 마다 지원해달라고 하면 귀찮은 생각도 들기 마련이지만 단 한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다.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다만 현장 돌면서 인상적인 것은 “장관님 우리농업도 희망이 있습니다”라는 한 농가의 얘기를 듣고 눈물이 핑 돈 적이 있다. 바로 귀농·귀촌이 그 희망이 돼 주길 바란다.”



2012. 5. 28. | 서울경제

광우병, 학습효과로 큰 혼란 없었죠

- 김영필 기자 -

지난 26일 아침. 강남구 대치동 자택 앞에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반갑게 악수를 청했다. 청색 셔츠에 베이지색 점퍼 차림으로 나선 서 장관의 얼굴은 밝았다.

취임 이후 서 장관은 주말마다 농촌을 찾고 있다. 오는 6월2일이면 1주년을 맞는다. 이날은 서 장관이 원주 제대군인 귀농현장을 방문하는 자리였다. 기자는 서 장관과 단독 동행했다.

오전8시59분. 원주행 카니발 승합차가 출발했다.(서 장관은 매주 농촌을 방문할 때마다 승합차를 이용한다)

당장 광우병이 궁금했다.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소식(4월25일)이 알려진 지



한 달이 됐기 때문이다. 한달 새 2008년 이후 4년 만에 촛불집회가 다시 열렸고 일부에서는 정부가 검역중단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서 장관은 거침없이 말문을 열었다.

“우리가 무역 1조달러 대국입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135개국 중 검역을 중단하거나 수입을 중단한 나라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일본도 가만 있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무조건 수입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문제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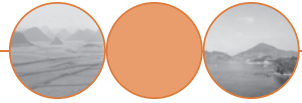
1조달러 무역 대국으로 무조건 수입중단 안돼 전통주는 유통이 중요… 인터넷 판매 확대 필요 젊은층 농촌 관심 커져 취업 귀농 더 많아질 것

그는 광우병 미국 현지 조사단이 유람단 아니었느냐는 지적에도 아쉬움을 표했다. 현지 조사단이 광우병이 발생한 농장을 방문하지 못했다.

“한국에서는 한국법을 지켜야 하고 미국에서는 미국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미국 측에서)안 된다는 것을 미국 농무성에 직접 전통도 치고 외교통상부에서도 대사관을 통해 얘기해서 비대면으로라도 농장주를 만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통과시킨 것이예요.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조사결과는 믿어야죠.”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우희중 서울대 교수를 조사단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분”이라고 했다.

서 장관은 딸 얘기를 꺼냈다. 그는 “딸아이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산



쇠고기를 계속 먹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아버지에게 미국 쇠고기 먹지 말라고 할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2차 광우병 파동이 사회혼란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이유로 국민의 ‘학습 효과’를 꼽았다. 그는 “2008년 광우병 사



서규용(왼쪽)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6일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풍차꽃 농장의 김용길 대표에게 제대 군인의 귀농귀촌 현황을 듣고 있다.

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학습효과가 생긴 것 같다”며 “미국산 쇠고기가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화제를 바꿔봤다. 최근 중국은 김치와 막걸리 등 한국산 발효식품에 대한 검역기준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4월 한중일 3국 농업장관 회의 때 처음으로 거론됐던 문제다.

서 장관은 “막걸리는 6월 말이면 중국 측 기준이 개정되고 김치도 조만간 바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중국으로의 김치 수출이 크게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전통주는 유통이 중요하다”며 “유통을 쉽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새 차는 원주에 도착했다. 예상(오전10시30분)보다 1시간4분이나 늦었다. 석가탄신일(28일)까지 긴 연휴여서 고속도로에 차가 많았다.

제대군인이 하는 농장인 원주 '풍차꽃 농장'에 내리자 서 장관은 바로 'MR. 귀농귀촌'으로 변신했다. 2006년 대령으로 전역한 김용길 풍차꽃 농장 대표는 꽃양귀비와 블루베리 등을 재배해 연간 3,000만원의 순소득을 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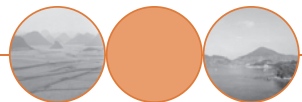
이곳에서 제대한 후 귀농해 개구리 사육을 준비하고 있다는 임승규(28)씨를 만난 서 장관은 “앞으로는 귀농귀촌의 ‘취촌(취업을 위한 귀농)’이 많아질 것”이라며, “귀농귀촌이 20대 등 젊은 세대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차는 두번째 목적지인 안성으로 향했다. 안성 팜랜드에서 청와대 어린이기자단 40여명과 간담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차는 계획(1시30분)보다 49분이나 늦었지만 어린이기자단은 처음 만나는 농식품부 장관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광우병이 문제인데 미국산 쇠고기 검역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가 일본이나 미국산 농수산물을 걱정하시는데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이들이 많다”, “소 사료값이 급등해 농가가 어렵다는 데 이에 대한 대책” 등을 묻는 말에서 장관은 진땀을 흘려야 했다.

서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는 4단계 검역과정을 거쳐 안전하고 원산지를 속이면 벌금이나 영업정지를 시키고 있다”며 “사료값을 낮추기 위해 할당관세 등을 이용하고 군인들에게 쇠고기를 먹게 해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6시간여의 이날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2012. 5. 30 | 동아일보

춧불 두려워 美쇠고기 수입 중단 있을수 없어

- 김현지 기자 -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농업을 정치로 풀어선 안돼”

“춧불시위가 두려워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을 중단하거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미국 광우병 파동 때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정치 논리로 수입 중단을 주장하며 춧불시위를 벌였던 세력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 장관은 취임 1년(다음 달 2일)을 앞두고 24일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광우병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하고 정부를 불신하는 사회 일각에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농축수산업 문제는 정치 논리가 아닌 과학적 경제적 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는 “무역대국이 촛불시위가 무서워 수입이나 검역을 중단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촛불시위가 확대되지 않은 것은 우리 국민이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촛불 두려워美쇠고기 수입 중단 있을수 없어”

서규용 농식품부장 장관
“농업을 정치로 몰아선 안돼”

“촛불시위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뻔했을 때라도 꺼지지 않을 때까지 끈기있게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은 농업이 발달된 나라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꺼리고 있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꺼리고 있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꺼리고 있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서규용 장관의 지난 인터뷰 모습
시사저널 제공

농부들에게는 “정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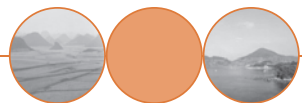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꺼리고 있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꺼리고 있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꺼리고 있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서 장관은 또 “1년 동안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농업을 정치로 풀려는 사람들이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일부 정치인과 ‘아스팔트 농업인’들의 요구가 원칙과 정도(正道)에 어긋난다면 세상없어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아스팔트 농업인이란 올 초 소 값 폭락에 항의하면서 구제역 방역기간인데도 소를 트럭에 싣고 상경 시위를 벌인 축산농가 등 시위를 일삼는 농축수산인들을 뜻한다.

그는 “정부와 대화할 생각은 없고 무조건 반대하면서 시위를 벌이는 것은 문제”라며 “토요일마다 (내가) 농어촌 현장에 가므로 나와 대화할 문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소 값은 떨어지고 사료 값이 올라 감당할 수 없다고 키우던 소를 굶겨 죽인 행위에 대해서는 “동물 학대”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33마리의 소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의 농장주 문모 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해달라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두 차례나 요청하기도 했다.



소 값 안정 문제는 “1990년대 후반 정부가 소를 수매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군납을 늘리고 농협을 통해 반값 판매를 해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우리 농업의 살길을 해외시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급 자족형 농업에서 기술집약적 수출 농업으로 거듭나는 것이 덴마크와 네덜란드 같은 농업 선진국으로 가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현재 협상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도 우리 농민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서 장관은 “FTA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거나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니만큼 우리가 개방하는 만큼 중국도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소득수준이 높은 중국 부유층을 수출 타깃으로 하면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고추 마늘 양파 사과를 비롯해 일부 수산물 등은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해 양허 제외, 장기 관세철폐 등 보호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쌀은 협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서 장관은 “농수산 부문 수출 목표를 올해 100억 달러, 2020년에는 300억 달러로 삼았다”며 “올해를 선진농업, 선진축산 원년으로 삼아 수출농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美 쇠고기 검역 중단할 수 없었다

- 배성재 기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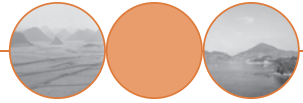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취임 1년

“연간 무역규모 1조달러가 넘는 교역대국인 우리나라 정부가 확실한 과학적 근거없이 미국 쇠고기에 대해 검역중단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 2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솔직한 말로 미국 광우병 파동을 정면 돌파해야 했던 이유를 비롯 자유무역협정(FTA)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관료스럽지 않게 요즘 유행하는 표현대로 ‘돌 직구’를 구사하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모습이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매주 농어민을 만나 불신을 신뢰로 바꾼 것이 지난 1년간 가장 보람 있었다'고 말했다.



무역규모 1조弗 넘는 한국 과학적 근거없는 조치 못해 매몰지 실명제로 규제역 넘고 농협 신경분리 마무리 최선

서 장관은 길지 않은 1년 임기 중 초대형 난제 2개와 맞닥뜨렸다.

우선 올 4월말 광우병 췌소가 미국에서 발생한 것이다. 발생 초기 “최소한 검역중단, 궁극적으로 수입중단 조치”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셌다. 하지만 서 장관은 검역강화 조치만 취한 채 검역중단은 거부해 호된 비판을 받았다. 특히 2008년 농식품부가 일간지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하겠다”는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때 장관직이 위태로워 보이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서 장관은 흔들리지 않았고, 광우병 파동은 4년 전과 달리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다.

또 2010년 10월 경북 안동에서 규제역이 발생한 이후 지난해 4월까지 매몰된 돼지 330만 마리, 소 15만 마리 뒷처리 역시 서 장관의 몫이었다. 취임하자마자 매몰지 곳곳에서 침출수가 농경지 등으로 흘러나오는 오염문제가 발생했고 특히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매몰지 독이 터지는 대형사고의 우려도 컸다. 하지만 서 장관은 자신부터 과장급까지 나서서 모든 매몰지마다 관리 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취임 초 큰 고비를 별탈 없이 넘겼다. 서 장관은 “올해 규제역이 발생하지 않으면 내년 하반기에 청정국가 신청을 해 2014년에는 규제역 청정국가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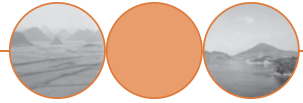
하지만 서 장관 앞에는 넘어야 할 더 높은 산이 남아있다. 바로 농업분야에 피해가 집중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FTA의 확대다. 이에 대해

서도 서 장관의 대답은 단순 명료했다. “국가 발전을 위해 농업의 피해는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단 “FTA를 우리 농업이 선진농업으로 가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며 농어민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물론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국내 농어업 민감품목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밝혔다. 하지만 민감 품목에 대한 중국과의 암묵적 합의 여부 등 교섭 관련 민감한 사항에 대한 질문은 노련하게 피해 나가는 모습도 보여줬다.

농업 피해 우려 한·중FTA 국가 발전 위해서라면… 매주 현장방문 총 2만km 넘어 불신을 신뢰로… 가장 보람

또 하나의 과제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신경분리)한 농협 개편의 성공적 정착이다. 특히 최근 농협노조가 “정부가 요구하는 경영개선약정을 체결하면 구조조정 우려가 있다”며 파업을 결의하는 등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농협중앙회와 긴밀히 협의해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원론적 입장만 밝혔지만, 파업 움직임에 불편한 심기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 장관의 솔직함이 노사문제 같이 미묘한 정치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지난 1년간 가장 보람 있었던 일에 대해 서 장관은 “매주 농어민을 만나 불신을 신뢰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장 등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 매주 농업 현장에 들러 지금까지 60개 시·군을 방문했고 이동거리만 2만439km이다. 서 장관이 주변에서 “장관 엔돌핀(장관이 된 후 업무에 열정이 넘치는 현상을 관가에서 부르는 말)이 가장 넘치는 장관”이라는 평을 받는 이유다.



2012. 6. 14. | 아주경제

다함께 잘사는 선진 농어촌 기틀 마련에 정책 역점

대담_이상준 부국장 경제부장

농촌에서 태어나 어릴적부터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보고 자라면서 농어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서규용(64)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지난해 6월 2일 제60대 농림식품부 장관으로 취임 하면서 인생 최대의 목표를 향해 달려간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농정은 현장'을 외치며 주말조차 반납한 채 농어업인들과 얼굴을 맞댄 채 호흡해왔다.

그는 13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 농민이 함께 소통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선진농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소통을 밑거름삼아 시설, 자본 집약적 농업이 바탕이 되는 선진농업 대열에 진입함으로써 활기 넘치고 잘사는 농어촌을 이룩함과 동시에 한식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그의 남은 목표다.

서 장관은 “유례없는 발전을 통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저력이라면 올해 위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일이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 보조·지원 보다 농민들이 스스로 자립하도록 정책 펼쳐야만 선진농업 진입 가능
- FTA는 반드시 필요... 한·중 FTA도 정확한 협상 및 보완대책 마련하면 문제 없어
- 한식(K-food), 10년 내에 전 세계인들의 사랑 받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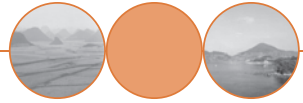
지난 1년 동안 정책에 있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부분은 무엇인가.

취임 시 평생 농림행정가로 살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쏟아 부어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 농식품 산업과 농어촌의 발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이루어 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 농어업이 선진 농어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가장 큰 역점을 두었다.

향후에도 역시 주요 농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방향을 구체화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잘살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근본적으로 정치와 농업을 연관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진짜 농어민들이 필요한 것을 정책으로 풀어줘야 한다. 올해 우리농업이 선진 농업으로 진입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선진농업으로의 진입은 현재와 같이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 및 보조를 통해서만 절대 달성할 수 없다. 농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만 선진농업으로의 진입이 가능하다.

우리농업은 앞으로 농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농업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보조금 보다는 장기저리 등의 정책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다. 농민들이 시위하고 아우성친다고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을 펼친다면 우리 농업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한다. 농업이 정치의 일환으로 이용될 뿐이다.

경제구조가 선진화가 될 수록 농어촌은 공동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산업의 경쟁력은 사람이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간에 사람이 일을 잘 하면 그 기업이 잘 될 수밖에 없다. 농업도 마찬가지다. 후계자 육성책을 강화해 농어촌에 젊은 인재들이 몰리도록 해야만 우리 농어촌이 발전할 수 있다.

최근 농수산대학의 인원이 1558명에서 1750명까지 늘어나는 등 농업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점차 증가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농수산대학의 경우 졸업자의 80%가 농촌으로 간다. 조사결과 이들의 평균 연소득은 무려 6500만원

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대 기업 평균 연봉인 6200만원보다도 많은 수치다.



취임 1주년 맞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에 정부는 최근 강진농업고등학교를 농업 분야에서 전국 처음으로 마이스터고로 전환시키는 등 농어촌 후계자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귀농·귀촌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공동화 현상을 막고 인재들이 모일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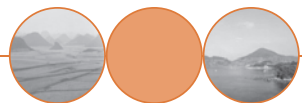
최근 전국에 귀농·귀촌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전국 귀농·귀촌 가구 수가 사상 처음으로 1만 가구를 돌파하는 등 귀농·귀촌이 도시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농촌체험마을 등을 방문해보면 마을 리더 가운데 50%가 귀농·귀촌한 이들이다. 이들은 도시에서의 사회적 지위를 바탕으로 농촌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며 마을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귀농·귀촌자들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더욱 농촌에 발전 및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에 귀농·귀촌 종합센터(직원수 34명)를 개설해 귀농·귀촌 희망자들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귀농귀촌 붐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귀농·귀촌인들의 이탈률은 얼마나 되는가?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의 이탈률은 5% 정도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폐업률에 비하면 5%는 결코 많지 않은 수치다. 한 가지 충고하고 싶은 것은 귀농·귀촌은 꿈이 아니라 현실임을 보다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귀농·귀촌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집안에서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부부간의 합의는 물론 자식들과도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 가족들이 귀농·귀촌을 반대하는데 혼자 귀농·귀촌을 원한다고 해서 농촌으로 가면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마을 사람들과의 인화 또한 중요하다. 도시에서의 사회적 지위를 모두 잊고 마을 주민들과 동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 농업이 발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한다면.

토지이용만으로는 우리 농업이 절대 농업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없다. 네덜란드와 덴마크 등 농업선진국의 경우에 비추어 봤을 때 이들 국가는 비록 토지는 좁지만 시설 현대화를 통해 이 같은 약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보다 시설·자본 집약적인 농업을 추구하면서 수출 위주의 농업을 실시해야 비로소 농업선진국 대열에 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 현대화를 위한 보다 활발한 연구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같은 부분을 고려해 정부는 농업 시설에 관한 연구개발 비용을 지난해 8625억원에서 올해 9089억원으로 늘린 바 있다.

한·중FTA가 시행될 경우 이는 한·미 FTA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한·중 FTA는 결국 협상의 문제라고 본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우리와 기후 등 농수산업 생산구조가 유사한 반면, 가격 차이가 크다. 그러므로 한·중FTA가 시행될 경우 우리 농수산물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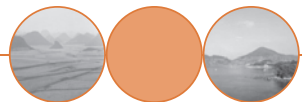
다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초민감·민감 품목군에 대한 양허제외, 장기 관세 철폐, 부분 관세감축 등 다양한 민감성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등 협상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한·중 FTA역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로 인한 우리 농가들의 15년간 피해액이 12조7000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대책을 정확히 세움으로써 현재 당초 예상과는 달이 별다른 잡음없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이와 마찬가지로 한·중 FTA도 협상을 정확하게 하고 보완대책을 만들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도 나와 같다.

FTA는 국가 발전을 위해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선진농업으로만 간다면 역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FTA는 오히려 우리 농어촌이 발전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식세계화 추진을 위해 그동안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식세계화의 성과에 대해 알려달라.



지난 2009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단 9%만이 한식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조사결과 무려 41%의 미국인들이 한식을 안다고 대답했다. 2년 만에 한식을 접한 미국인들이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농식품 수출 또한 한식세계화와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농식품 수출은 1980년대 19억 달러였다. 2배인 38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기까지 무려 27년이 걸렸다. 현재는 점차 수출액이 급등하는 추세다.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을 무려 77억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목표액은 100억 달러 이상이다.

이런 수치들은 세계인들이 점차 우리 음식과 농식품을 많이 접한다는 정확한 지표다. 참고로 일본이 일식을 세계화 하는데 약 30년이 걸렸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우리는 10년 안에 한식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K-pop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만큼 K-food 역시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한류 아이템이 될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가장 힘들었거나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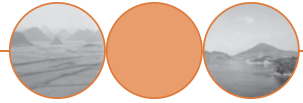
취임 직후 농정에 대한 불신이 9년 전 차관 재직 시절보다 더 커진 것을 보고 농어업인들의 불신을 신뢰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특별히 기울였다. 그러나 소통과 신뢰 회복을 위한 절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에 치중하는 ‘정치 농민’이 있다는 점이 가장 안타까웠다. 정부에게 요구하고 비판할 사항은 거리나 시위 현장이 아닌 농어업 현장이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 선진농어업으로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농어업인이 협력하면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

소통이 농정 신뢰 회복의 지름길 FTA 농업발전의 디딤돌 될 수도

대담_배연국 경제부장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돌직구’로 불린다.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모습을 일컫는다. 그에겐 남다른 원칙과 소신의 궤적이 뚜렷하다. 올봄 재발한 미국 광우병 위기에서 그는 한 치 흔들림이 없었다. 국회에서 장관을 불러 당장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중단하라고 몰아붙이자 “문제 없는데 왜 그것(검역 중단)을 하느냐”고 소리쳤다. 상임위가 검역중단 촉구결의안까지 냈지만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소값 폭락에 화가 난 농민들이 상경 시위를 하려 했을 때에도 그의 원칙은 또 한번 빛을 발했다.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구제역 기간에 서울로 소를 끌고 오겠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호통쳤다. 결국 상경 시위는 불발됐고 농민 시위도 잦아들었다. 10일 정부과천청사 집무실에서 만난 서장관은 시종일관 자신감에 찬 어조로 열정을 쏟아냈다.





◆ 똑심과 소통의 공직 생활

미국에서 지난 4월 광우병이 재발하자 정치권에서 검역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마음 고생이 심하지 않았다.

“고민을 많이 했다. 처음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 미국 참사관의 설명을 전해듣고 마음을 굳혔다. 10년이 넘는 늙은 젓소에서 돌연변이로 병이 낫다는 설명을 듣고 검역 중단이 아닌 강화가 해답이라고 생각했다. 세계 135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 먹고 있고, 어느 나라도 수입 중단을 안 했다. 수출입 1조달러를 돌파한 무역대국에서 과학적 기준도 없이 검역·수입 중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칙대로 했다.”

연초 소값 파동 때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농민시위에 정면 대응했는데.

“2010년 구제역 사태로 348만마리의 가축을 땅에 묻었다.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찌감치 전국에 구제역 상황실을 설치했다. 그런 와중에 농민들이 소값이 내렸다고 소를 끌고 상경하겠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만약 서울로 소를 몰고 왔다가 구제역이 터지면 해당 농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삭감하고 농가 지원금을 깎겠다고 했다. 옳지 않은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장관의 원칙과 소신은 농정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왔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취임 후 매주 빠짐없이 전국 현장을 찾아 농민과 소통한다고 들었는데.

“현장에 답이 있다. 현안이 생기면 가장 먼저 현장을 찾는다. 가뭄 발생 시엔 가뭄지역으로, 배추값이 폭락하면 배추밭으로, 소값이 내리면 한우농가로

달려간다. (취임 후 현장방문 거리는 지구 반 바퀴가 넘는 2만2700km에 이른다.) 농어민과 어울려 애로사항을 듣고, 하나씩 고쳐 나가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 그 자리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농민들은 장관

이 들어주는 것만으로 즐거워한다. 그게 소통이다. 농정에 대한 불신을 신뢰로 바꾸는 지름길이다. 공식 생활 내내 현장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예전 채소과장 시절엔 가뭄이 하도 심하길래 충주지역을 돌아다니다 불상에 돈을 놓고 기도를 올렸다. 성당에 가는 집사람에게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날 문경을 지나 의성으로 가는데 갑자기 빗방울이 똑똑 떨어졌다. 비 온다는 일기예보도 없었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하는 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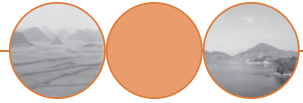


◆ 농업 경쟁력 강화가 최우선 명제

잇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우리 농업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FTA를 통해 우리뿐 아니라 상대 국가의 시장도 개방된다. 우리 농산물 수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자면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시설 현대화와 수출 전략품목 육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우선 향후 10년간 10조원을 생산시설 현대화에 투입할 예정이다.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 FTA는 농업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도, 반대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K-팝 등 한류 열풍을 타고 농식품 수출이 늘고 있지만 기대치에는 못 미치고 있다.

“남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증가세가 둔화하는 것은 사실이다. 올 상반기 수출실적은 37억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5.6% 늘었다.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이 0.7% 증가에 그친 점에 견주면 나쁜 성적표는 아니다. 하반기에 수출 신장을 위해 물류비를 절감하고 해외 특별 판촉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한류 스타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한류 바람도 활용할 생각이다.”

최근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농수산물이 많이 거론된다.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농산물은 기후변화 등에 영향을 받는 만큼 가격 안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나름의 해결책을 준비해두고 있다. 생산량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사전 대응을 강화하고, 계약 재배를 늘릴 생각이다. 배추 등 서민품목에 대한 상시비축제를 도입해 가격 변동에 대비하겠다. 유통 중간단계의 거품을 빼는 유통구조 개혁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 농업에 희망이 보인다!

최근 귀농귀촌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할 정도로 관심을 가진 사람이 늘고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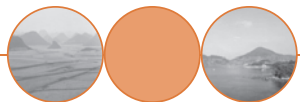
“귀농귀촌은 바로 ‘취농(就農)’ 운동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700만명이 넘는다. 이들 중에는 도시에서 의미 있는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농촌에는 기회가 있다. 향후 5~10년 안에 30만명이 귀농귀촌할 것이란 조사가 있다. 국가적으로 보면 농촌에서 그만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다. 취농을 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진다. 지난해 귀농귀촌 가구는 1만가구를 웃돈다. 사회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가는 추세다.”

귀농 바람을 농촌 고령인구의 세대교체와 변화의 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경기도 평택에 갔다가 트랙터를 몬 적이 있다. 에어컨 바람에 신나는 음악까지 나오더라. 농촌을 예전처럼 땀벌에서 일하는 걸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우리 농촌이 변하고 있다. 평균소득은 아직 도시에 훨씬 못 미치는 게 사실이다. 농촌에 60세 이상의 연령층이 60.8%에 이를 정도로 고령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30대 농가를 기준으로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도시보다 오히려 소득이 3.3% 더 많다. 농촌에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자본·기술집약적으로 체질을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장관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전북 김제에서 희망을 봤다. 파프리카를 수출하는 농산무역이란 곳인데 지난해 680만달러를 수출했다. 올해엔 1000만달러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 그곳을 방문했더니 한 직원이 당찬 어조로 ‘장관님, 우리 농업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고 외치는 거야. ‘이런 데도 있구나’란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다. 장관이 찾아가면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고 요청하기 마련인데 거기선 그런 말은 한 마디도 없었다. 젊은이들이 소명을 갖고 농업을 일으켜 세우고 있구나 하는 감동이 밀려왔다.”



서 장관은 말미에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의 부모는 청주에서 조그만 과수원을 했다. 소년은 구멍난 속옷을 기워 입는 부모님을 보면서 농촌을 잘 사는 곳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마음을 다졌다. 그래서 남들이 싫어하는 농대



에 지원했다. 기술고시에 합격한 후엔 거리낌없이 농림부를 자원했다. 농림 공무원의 첫 꿈을 이룬 소년은 전국 농촌을 메주 밭듯 돌아다녔다. 소년은 10년 전 차관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다. 퇴임식장에서 갑자기 눈물이 핑돌았다. 참 많은 일을 했다는 위안보다는 농촌의 삶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자책감이 컸던 까닭이다. 장관에 오른 소년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정말 잘사는 농촌을 향한 출구를 열겠다고...

농어촌에 새바람 일으키는 색깔 있는 마을 5000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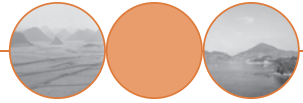
- 김영훈기자 -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틈만 나면 귀농·귀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맞물려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다. 하지만 귀촌 인구가 늘어난다고 풀 죽은 농어촌에 저절로 활기가 돌지는 않는다.

서 장관은 29일 본지 인터뷰에서 “농어촌 마을 주민 스스로 마을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마을 대상을 수상한 17개 마을의 공통된 특징은 주민 참여를 통한 사전 준비였다”며 “스스로 준비된 마을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실패를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농어촌에 새바람 일으키는 색깔 있는 마을 5000개 조성” (2015년까지)

<p>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p> <p>서규용(중우사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틈만 나면 귀농·귀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맞물려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다. 하지만 귀촌 인구가 늘어난다고 풀 죽은 농어촌에 저절로 활기가 돌지는 않는다.</p> <p>서 장관은 29일 본지 인터뷰에서 “농어촌 마을 주민 스스로 마을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마을 대상을 수상한 17개 마을의 공통된 특징은 주민 참여를 통한 사전 준비였다”며 “스스로 준비된 마을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실패를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5년까지 ‘색깔 있는 마을’ 5000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p> <p>-농어촌에 반점이 많아지고 있다.</p> <p>-각각스럽다. 농어촌 면적(읍·면 기준)은 전 국토의 94%인데, 거주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에 불과하다. 게다가 평균수명이 65세 이상인 농가 비율이 절반(46.6%)에 이른다. 농가소득도 도시근로자의 70%수준에 불과한 편에 불과하다. 과거엔 최근 은퇴한 베이비부머의 귀농·귀촌이 늘고 있어 새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농어촌 생활이 힘들 수는 장만해도 2007년 40만 명에서 지난해 49만 명으로 늘었다.</p>	<p>-황제를 불어넣을 반면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총체 총주리 리니시올은 총주네르 코 안데 책을 주민의 참여수기 수반만이 태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이 뜻을 모아 국내 최초로 인증수령을 통한 여행발달 업체여 내는 등 별 사자의 대커가 발바공했다.”</p> <p>-이런 사례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있다.</p> <p>“주민이 자율적으로 마을 발전 계획을 마련하는 농어촌 현장포럼을 확대하겠다. 일종의 명석을 알려주는 일이다. 올해 48개 마을의 현장포럼을 지원했는데 지난해는 23개 곳으로 대해 늘렸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공무원들 마을 만들기의 열정가인 현장 활동가로 육성해 주민여 귀는 여려움을 해결고 고향의 여행들 영도록 하겠다. 내년 까지 1000명의 현장활동가들 육성하겠다.”</p> <p>-귀농·귀촌 정부의 활동은 “베이비부머 은퇴로 2005년 126만 7000명인 귀농이 지난해 1만 가구를 넘어섰다. 귀농 인구는 고령화와 공동화되 어민음을 겪는 농어촌에 도시민의 기증과 재능이 투입되는 효과 될 것으로 도시민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자신스 건강을 시화해 관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거주지를 옮기지 않더라도 재능 기증을 통해 농어촌에 새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농어촌 재능기부제 만들겠다. 내년에는 ‘농어촌 재능기부’를 만들 원한다”고 말했다. <small>김영훈 기자</small></p>
---	--



그는 “2015년까지 ‘색깔 있는 마을’ 5000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농어촌에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걱정스럽다. 농어촌 면적(읍·면 기준)은 전 국토의 90%인데, 거주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에 불과하다. 게다가 경영주가 65세 이상인 농가 비율이 절반(48.6%)에 이른다. 농가소득도 도시근로자의 59%(지난해 기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최근 은퇴한 베이비부머의 귀농·귀촌이 늘고 있어 새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농어촌 체험마을을 찾는 방문객도 2007년 405만 명에서 지난해 946만 명으로 늘었다.”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충북 충주의 하니마을은 충주댐으로 인해 마을 주민의 상당수가 수몰민이 됐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이 뜻을 모아 국내 최초로 인공수정을 통한 여왕벌을 만들어내는 등 벌 사육의 메카로 탈바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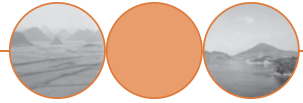
이런 사례를 늘리기 위한 묘책이 있다.

“주민이 자율적으로 마을 발전 계획을 마련하는 농어촌 현장포럼을 확대 하겠다. 일종의 명석을 깔아주는 일이다. 올해 44개 마을의 현장포럼을 지원 했는데 내년에는 234곳으로 대폭 늘린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을

마을 만들기의 전문가인 현장활동가로 육성해 주민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내년까지 1000명의 현장활동가를 육성하겠다.”

귀농·귀촌 인구의 활용은.

“베이비부머 은퇴로 2005년 1240가구였던 귀농이 지난해 1만 가구를 넘어
섰다. 귀농 인구는 고령화와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에 도시민의 기술
과 재능이 유입되는 효과를 낼 것이다. 도시민에게도 새로운 일자리를 얻고,
자신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거주지를 옮기지 않더라도
재능 기부를 통해 농어촌에 봉사할 기회도 확대하겠다. 내년에는 ‘농어촌 재능
기부 운동본부’를 만들 계획이다.”



2012. 12. 10. |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세종시와 업무여건 개선, 불편 크게 줄어듦 것으로 기대

“농식품부, 어제까지 세종시 이전 모두 마쳐”

“농협, 지금까지진 농협을 위한 농협”

“3월 사업구조 개편으로 대대적 개혁”

“농협이 생산농산물의 최소 50% 이상 판매하도록”

“세종시 이전, 직원들 불만이 다소 있는건 사실”

“세종시와 업무여건 개선, 불편 크게 줄어듦 것으로 기대”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청사로의 이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과천에 있던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등 경제부처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을 했는데요.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연결해 세종시에서 새로운 업무 시작과 농정 계획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어디신가요?

세종시청사입니다.

내려가시니 소감이 어떠신가요?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부처 가운데 농식품부가 가장 먼저 세종시 이전을 마쳤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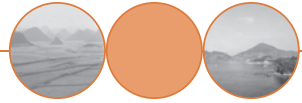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제까지 마쳤거든요. 777명이 11톤짜리 트럭 380대분이 이전했어요. 그런데 매주 금요일 오후나 주말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업무 공백이나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부를 시작으로 올해 5,500명, 2014년까지 14,000명이 이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종시 이전문제를 여쭙보기 전에 때 이른 강추위가 연이어져서 시설농가 상황이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지금 이렇게 강추위가 되면 연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농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노지에서 재배하는 배추는 부직포나 비닐을 덮고 좀 더 수확을 이끌어내고 있지만 많이 어렵습니다.

난방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냉해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농림부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열을 이용해서 난방비를 적게 들도록 한다든지, 면세율을 지원하고, 농사용 전기료를 지원해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이변으로 인해 신선식품 가격변동폭이 지나치게 큰데요.

그렇습니다. 기상에 따라 농산물 작황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날씨가 이렇게 나쁘면 가격이 일시적으로 크게 오르는 문제가 생깁니다.

변동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들이 정부에서 수매 비축한 것이 만 2천 5백톤을 수매해서 현재 5천톤 남았어요. 그래서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에 공급해서 한 포기에 2천원 가량 싸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임시 김장시장을 개설해서 30%정도 싸게 소비자가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정에 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농정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농협개혁인데요,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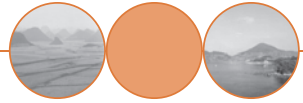
지금까지 농협이 농협을 위한 농협이지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는 불만이 많았는데요. 지난 3월 2일날 농협이 '1 중앙회, 2 지주회사' 분리가 돼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5조원 지원을 해서 명실공히 정말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어서 경제부문의 자본금이 2천 7백억 정도였던 것이 정부의 지원으로 2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신규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이 당초 의도한 목적대로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서 성과를 내기 위해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농협이 경제사업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회가 농가에서 출하하는 것은 50%이상 판매할 수 있도록, 농민은 판로걱정없이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는 농협이 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협의 유통기반시설을 마련해줘야 하고, 두 번째로는 직거래 유통체계를 구축해서 농민들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들은 싸게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를 통해 경제사업이 제대로 되느냐를 위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1사1촌과 재능기부 등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농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의 성과는 어느 정도이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농촌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함께하는 우리농어촌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사1촌, 도시의 기업과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는 것인데 현재 9천 2백 60개 쌍의 결연이 맺어졌고, 5천 백억 이상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사1촌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이나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농어촌사의 공인 인증제를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농촌에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운동본부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마을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이런 색깔있는 마을들을 3천개 조성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농촌체험마을로 적극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귀농, 귀촌 인구도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귀농귀촌운동을 계속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베이비부머세대들이 농촌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부처 가운데 농림식품부가 가장 먼저 이전을 했고, 처음으로 저희와 인터뷰도 해주셨는데요. 직원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여러 불만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출퇴근 등의 여건이 어려운데, 앞으로 세종특별시와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업무여건을 개선해서 불편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IV. 기 고

- 오감만족 농어촌 여름휴가 | 222
- 생명산업이 주도하는 시대가 온다 | 225
- 4대강과 함께 달라진 농어촌 | 228
- 글로벌 식량위기의 시대... 농업에 투자하라 | 231
- '스마일재능뱅크'를 아십니까 | 234
- 農漁業 경쟁력 강화 기회다 | 237
- 보약이 쓰다고 버릴 것인가 | 240
- 맞춤형 교육으로 귀농 지원 | 243
- 새로운 농가월령가를 준비하며 | 245
- 첫 한중일 농업장관회의가 남긴 것 | 248
- 일본의 한국농업 배우기 | 251
- 오감만족 농어촌체험마을 | 254
- 추사 김정희의 또다른 유산 '향토산업' | 257
-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해답이다 | 260
- 농업 융복합산업에서 미래를 |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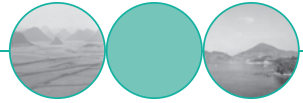
2011. 6. 22. | 문화일보

오감만족 농어촌 여름휴가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그리워지는 것들이 있다. 어릴 적 살던 고향의 한여름 밤, 한낮의 열기가 식은 시골에서의 여름 밤, 옥수수도 썰 먹고 시원한 수박도 잘라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시절이 그것이다. 문득, 여름이 찾아오면 이런 추억이 되살아나면서 그 옛날의 고향으로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어지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이제 곧 여름 휴가 시즌이다. 모두들 휴가 계획을 세우며 즐거움을 꿈꾼다. 특히 대다수의 도시민들은 각박한 삶에서 벗어나 편안한 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름휴가를 원한다. 그리운 추억이 살아 있는 곳, 청정 자연과 넉넉한 인심이 있는 우리의 농어촌에서라면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5년부터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을 개최해 왔다.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은 도시민에게 다양한 농어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이고 매력적인 여름 휴가지 선택을 위한 유용한 기회를 제공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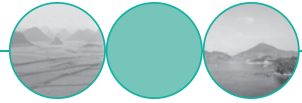
축제의 장이다. 올해 6회째를 맞는 ‘2011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은 23일부터 4일간 양재동 aT센터에서 전국 체험마을과 지자체 100여 곳이 참여하는 가운데 거행된다.

여름휴가 페스티벌의 성과는 적지 않다. 작년 여름휴가 페스티벌을 통한 농어촌 여름휴가 방문 예약은 3000건에 이르렀고, 120건의 여행상품 판매가 이뤄졌다. 그뿐만 아니라 설문조사에 따르면 방문객의 98%가 참여 후 만족했다고 답했으며, 83%의 농어촌 체험마을이 행사가 끝난 후 마을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여행휴가 정보를 얻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농·산·어촌에 대한 이미지도 한결 좋아졌다고 대답했다.

되돌아보면 1970년대 초기에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에서 출발해 도시 새마을운동과 공장 새마을운동으로 확산되면서 한국 경제의 압축 성장을 주도했다는 것은 성장연대를 함께한 세대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나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행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게 마련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단절일 것이다. 각박한 사회생활에서 야기되는 가족 내 대화의 단절,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이웃 간의 단절, 생산과 소비, 즉 농어촌과 도시와의 단절 등이 가져오는 사회적 폐해는 한국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는 가족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먹을거리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치유하는 유효한 수단이다. 단지 농어업 소득 증대라는 의미를 뛰어넘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인구 감소와 도·농 소득 격차,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일 농어촌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일 농어촌운동은 색깔 있는 농어촌 마을 1만여개를 조성해 1사1촌 등 도·농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10만명의 핵심 주체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맞춰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된 100만명의 재능 기부자를 확보해 현장에서 활약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돼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 창출을 위한 스마일 농어촌운동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1. 10. 11. | 매일경제

생명 산업이 주도하는 시대가 온다

“가슴과 영감의 소리에 바탕한 열정으로, 남이 아닌 자기 삶을 살아가라!”

IT산업계 최고 혁신가로 평가되는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평소 청년들에게 주문했던 이야기라 한다. 기존 생각과 관행에 도전하며,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 가던 그의 드라마틱한 삶에 지금까지 세계는 열광했으며, 그러기에 더욱 그의 사라짐을 애석해하고 있다. 한 기업의 성장뿐 아니라 인류 생활에 변화를 만들어 낸 그의 믿음과 열정은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이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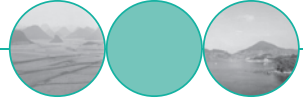
산업화에 뒤처져 겪었던 민족적 수난들을 뒤로하고, 각종 제조업과 IT 분야에서 세계에 모범이 되어 온 우리에게 세계는 또 다른 신화를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0년께부터 치열한 IT 분야의 세계적 경쟁이 생명과 감성을 자본으로 한 생명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며, 그 성공 여부에 국가 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전통적인 1차산업으로만 인식되던 생명산업(생명자원 그 자체와 이를 관리·활용해 유익한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하는 산업을 총칭)은 2000년대 초 이미 그 생산 규모가 IT산업에 맞먹게 성장했고, 향후에도 연평균 18%라는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다. 생명공학을 필두로 첨단 기술들이 개발되고, 자연을 극복이 아닌, 자연과 더불어 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공감의 확산되면서 앞으로 생명자원은 현재 석유와 반도체 못지않은 경제 성장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더 이상 농림수산물산업은 단순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1차산업이 아니다. 세계 우수 기업들은 은행잎, 스타아니스 등 생명자원에서 혈액순환장애 치료제 테보닌,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 등을 개발해 연간 20억달러 이상 막대한 수익을 거두어들이고 있으며, 곤충을 지역 축제, 생체모방 기술 개발에 활용하는 데 이르고 있다.

이제 우리 농림수산물산업은 신약 소재에서부터 기능성 식품이나 천연 화장품 개발은 물론 대체 에너지원으로도 역할을 하며 농산어촌 문화와도 결합해 새로운 부가 가치를 만들어 1차·2차·3차산업 모두를 합한 복합적인 6차 산업 그 이상이 됐다.

미래는 생명자원을 자르고, 캐내고, 태워 없애 생산을 하는 산업화 시대가 아니다. 경제 성장의 원천이 석유자원에서 생명애(愛)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 생명자원 그 자체를 가치로 재인식하는 가운데 상상력을 현실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젊은 창의력과 열정이 미래 우리 생명산업과 또 하나의 대한민국 성공신화를 만들 것임을 확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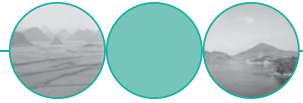
이러한 흐름 속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회 생명산업대전을 개최한다. 생명산업으로 새롭게 변모해가는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산업을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갈 생명산업에서 창의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제2의 스티브 잡스를 기대하며, 미래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생명자원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일깨우고, 보다 크고 야심찬 꿈을 키울 수 있길 희망해 본다.

4대강과 함께 달라진 농어촌

지난 10월 22일 4대강 새물결맞이 행사에 참석했다. 지역 주민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올해의 기록적인 집중호우에도 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고마워하면서 농업분야 4대강 사업인 저수지 독 높이기 사업과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조기에 완공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영산강 수계 주민들은 이번에 물그릇을 키운 승촌보와 죽산보에 물을 채우기 위해 상류에서 공사 중인 장성댐, 광주댐, 나주댐, 담양댐의 독 높이기 공사를 당초 계획대로 내년까지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저수지 독 높이기 사업은 저수지의 물그릇을 키워 농업재해를 예방하고 영농환경을 크게 개선시키는 사업이다. 전국 113개 저수지의 제방을 평균 4.6m 정도 높여서 추가로 2억 8000만 m^3 의 물을 확보하게 된다. 추가되는 저수량은 우리나라 전체 논면적 98만ha에 30mm 용수를 공급할 수 있고, 우리나라 전체 1만 7569개 저수지의 개당 평균저수량 16만t 기준으로 새로 저수지 1776개를 건설하는 규모의 어마어마한 양이다.



현재 충북 청원군 소재 한계저수지와 충남 공주시 소재 계룡저수지 등 2곳이 완공됐는데 올 여름철 집중호우 때 그 진가를 발휘했다. 6월 말부터 청원 지역에는 575mm의 집중호우가 왔지만 한계저수지 덕 높이기로 저수량이 100만t에서 156만t으로 늘어나면서 과거 기준 저수율 140%에 달하는 물을 내보내고도 저수율에 10% 여유가 있었다.

공주지역에서는 7월 8~10일 340mm의 집중호우가 내렸으나, 계룡저수지 덕 높이기로 저수량이 341만t에서 471만t으로 늘어나 저수율 131%에 달하는 물을 내보낸 후에도 저수율에 5% 여유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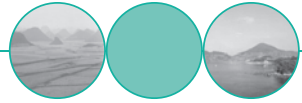
상습침수 농경지를 4대강 준설토로 메워서 전천후 다목적 농경지로 변모시키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도 올해 안에 140개 지구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상습침수지역인 4대강변 저지대 농경지 7572ha를 하천 준설토로 평균 2.6m 높임으로써 매년 반복돼 오던 하천변 저지대 논을 만성적인 침수에서 해방시켰다.

지난 10월 완공된 경북 상주시 죽암리 소재 오상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지역은 평년 200mm의 비만 와도 60~70ha의 농경지가 침수됐으나, 올여름엔 300mm 넘는 비에도 끄떡없었다고 한다. 아울러 사업 전 평당 5만원 하던 농경지 가격이 8만원 수준을 호가하고 있어 농업인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계속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저수지 덕 높이기 사업과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게 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 고향 지킴이를 결성하게

되었다. 현재 전국 2000명 정도의 내 고향 지킴이들은 저수지·강 주변 농업 기반 시설물의 모니터링과 수질보호를 위한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다. 내 고향 지킴이의 역할은 앞으로 점점 중요해질 것이다. 정부는 이들을 농정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내 고향 지킴이는 4대강 사업 인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지역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환경지킴이 농정 모니터단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건설이라는 농정목표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2011. 11. 17. | 동아일보

글로벌 식량위기의 시대... 농업에 투자하라

올해 초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인구가 2050년 90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 지금보다 식량 생산량이 70% 증가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인구 증가뿐 아니라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곡물소비 증가, 미국 등 선진국의 바이오에너지 소비 확대 및 곡물 투기의 영향으로 국제 식량수급 불균형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10일 세계의 저명한 경제학자 461명은 주요 20개국(G20)에 공동서한을 보내 “지구상에서 10억 명이 만성적인 굶주림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과다한 투기를 규제해 곡물가격을 떨어뜨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우리나라 역시 식량안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주곡인 쌀은 자급하고 있으나 다른 곡물의 자급률은 매우 낮다. 곡물 수입도 일부 국가와 메이저회사에 집중돼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할 경우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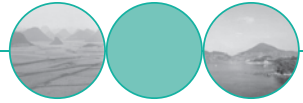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정부는 최근 ‘곡물자주율’ 개념을 도입했다. 이는 국내 생산뿐만 아니라 ‘해외 곡물의 안정적 확보 가능성’까지 확대해 우리 기업이 해

외에서 생산 유통하는 물량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현재 27% 수준인 곡물자주율을 2020년까지 65%로 끌어올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및 자급률 제고 방안'을 7월 발표했다. 곡물자주율을 높이려면 국내 생산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동시에 해외농업 개발을 활성화하고 국제시장에서 곡물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2009년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해외농업 투자를 지원한 이후 많은 기업이 해외농업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토지 권리 확보의 어려움, 물류인프라 미비, 복잡한 행정절차 등의 제약 요인으로 대규모 해외농장 개발은 아직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제약 요인 극복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는 필리핀 정부와 함께 농업 중심 복합산업단지(MIC)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 중심 MIC란 농업을 중심으로 농기계 비료 농약 등 관련 제조업까지 포괄하는 복합단지를 말하는 것으로 정부 간 협력으로 토지 임차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정부 및 민간 협력방식으로 투자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 정부는 MIC를 민관 협력 해외농업 개발의 성공모델로 만들어 앞으로 대규모 영농이 가능하고 물류여건이 좋은 국가들로 진출 지역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해외농업 개발은 우리나라의 곡물자주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수한 우리 농업기술을 전수해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상생의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외농업 투자와 동시에 투자대상국에 농업기술과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국제농업협력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한편 국제 곡물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2015년까지 400만 t 확보를 목표로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민간 기업들이 공동으로 곡물유통회사를 설립해 미국 등 곡물수출국에 현지 유통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농업 개발과 국제 곡물회사 설립을 연계해 국제식량가격 급등 시 해외에서 생산된 곡물을 국내에 조달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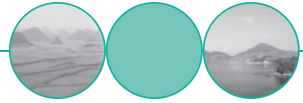
식량안보는 글로벌 식량위기 시대에 선진국 도약을 위한 필수과제이다. “곡물 공급 부족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몇 년 후에는 억만금을 쥐도 음식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향후 가장 위대한 사업은 농업이 될 것이므로 농부가 돼라”고 상품 투자의 귀재인 짐 로저스가 최근 조언한 대로 개척정신을 가진 젊은 농업인과 기업들이 세계를 무대로 가장 위대한 사업인 농업에 일생을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온 것이다.

‘스마일재능뱅크’를 아십니까

요즘 가수 이효리씨가 재능기부를 통해 유기동물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 화제다. 처음에는 동물을 좋아해 시작했지만 유기동물보호소를 찾으며 정기적 자원봉사자가 됐다고 한다. 이제는 많은 이의 기부를 독려하며 유기동물 보호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능기부를 뜻하는 ‘프로보노(Pro Bono)’는 ‘공익을 위해’라는 뜻이다. 미국 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연간 50시간 이상 무료 변론이나 법률 자문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하도록 한 규정에서 시작됐다. 근래에는 공익을 위해 재능을 기부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용 분야가 확장됐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공동화되고 고령화된 우리 농어촌에는 발전을 견인할 인적 자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농림어업은 물론이고 경영, 마케팅, 지역 개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고령화된 농어촌에서 이런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구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농어촌을 위해 재능기부를 하는 저명인사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강원도 화천군 감성마을에서 무료 문학 강좌를 개설해 문학 재능을 기부하는 소설가 이외수씨, ‘농어촌 희망 청소년 오케스트라’ 예술 감독을 맡고 있는 지휘자 금난새씨가 대표적이다. 농어촌 분교 아이들과 벽화 그리기, 놀이미술, 레크리에이션 등을 함께하는 대학생 재능기부 단체 비욘드 더 마인드(Beyond The Mind)처럼 농어촌 재능기부를 실천하는 단체도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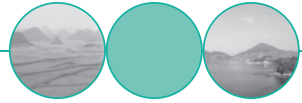
과거의 기부는 금전 기부가 대세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재능과 지식을 기부하는 방식이 큰 흐름을 이루고 있다. 거창한 것이 아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을,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을, 요리를 하는 사람은 요리 기술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 청소년 바느질을 잘한다면,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이 모두 타인과 나눌 수 있는 재능이다.

농림수산식품부도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 발전을 위해 농어촌 재능기부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재능기부자들과 농어촌을 연결해주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스마일 재능뱅크(www.smilebank.kr)’도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 개통 석 달여 만에 벌써 1만 명이 넘는 재능기부 신청자가 몰려들었다.

농어촌 재능기부는 농어촌 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1955년부터 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부머 712만 명 중 42.5%는 은퇴 후 귀농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재능기부는 농어촌을 이해하고, 농어촌 주민과 유대 관계를 맺으며 귀농과 귀촌을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2003년부터 추진 중인 1사1촌 결연 운동은 지금까지 8000건이 넘는다. 1사1촌 운동을 농어촌 재능기부와 연계하면 도농 교류를 한층 강화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도농교류법에 따라 재능기부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세제상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부는 받는 기쁨만큼 주는 기쁨도 크다. 물질적 기부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재능 기부는 나눌수록 오히려 풍부하고 깊어져 자신과 이웃 모두를 풍요롭게 한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행복해지고, 나아가 우리 농어촌의 내일을 새롭게 변화시키게 될 농어촌 재능기부에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



2011. 12. 26. | 문화일보

農漁業 경쟁력 강화 기회다

바야흐로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다.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 줄 수 있는 튼튼한 ‘방패’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FTA는 우리의 시장만 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시장도 여는 것이다. ‘방패’를 만드는 것만큼 해외 시장을 개척할 날카로운 ‘창’을 베풀는 일도 시급하다.

국내 비준동의 절차가 마무리되고 발효만을 남겨둔 한미 FTA와 관련해 많은 괴담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 쌀시장 추가 개방을 밀약했다’든지 ‘한미 FTA가 발효되면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해야 한다’는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쌀은 한미 FTA 대상 품목에서 완전 제외된다고 명문화돼 있으며,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수입위생 조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FTA와는 전혀 무관함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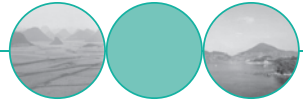
FTA는 한국 농어업(農漁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15년간 총 12조7000억원 수준의 생산액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 분석은 아무런 대응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농어업인과 정부의 노력으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2007년에 국내 보완책을 마련했다.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 보전과 경쟁력 강화, 농어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2008년부터 10년간 22조1000억원의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있다. 또 올 6월부터는 여야와 정부가 합심해 추가 보완대책을 만들고 있다. 지난 10월31일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13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해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이른 시일 내에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FTA시대의 검투사에게 필요한 튼튼한 ‘방패’와 날카로운 ‘창’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먼저, FTA로 예상되는 농어업 분야의 피해는 국내 보완대책이라는 ‘방패’를 통해 최소화할 것이다.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전하는 장치인 피해보전 직불제도의 발동 기준을 완화해 가격 하락에 대비해 발동 가능성을 키웠다.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및 농어업 면세유 공급 일몰기한을 연장해 10년 간 유지키로 했고, 수입사료 원료에 대한 무관세 적용 확대 등을 통해 농어업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농어업 시설 현대화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라는 ‘창’을 활용해 수출 농어업을 육성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축사·과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품질의 고급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또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종자·종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생명공학 기술개발 연구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07년 38억달러 수준이던 농식품 수출액이 불과 4년 만에 2배 가까



이로 늘어났다. 2017년까지 200억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FTA로 확대된 경제 영토는 한국에 더 큰 기회를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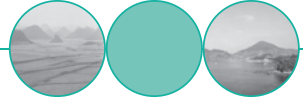
한미 FTA로 한국경제가, 우리 농어업이 초토화(焦土化)될 것이라는 우려는 무역 1조달러 국가로 도약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6개월 간 전국의 농어업 현장에서 만난 수 많은 농어업인 가운데 “우리 농어업이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다”며 그동안 베풀은 ‘창’들을 조심스레 보여주는 이들을 떠올릴 때는 더욱 그렇다. 이제 농어업도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각오와 다짐이 필요하다. 농어업인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오히려 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다.

보약이 쓰다고 버릴 것인가

몸에 좋은 약은 입에는 쓰다고 한다. 쓰다고 해서 보약을 먹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마찬가지다. 지금 당장 쓰다고 해서 먹지 않고 버린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함께 버려질 수 있다.

폐쇄경제를 선택하느냐, 개방경제를 선택하느냐의 결정은 한 국가의 흥망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일이다. 과거의 역사가 이를 말해 준다.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은 모든 나라와 대외관계를 차단한 쇄국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는 어땠는가. 근대화와 부국강병에 실패하고 결국 일본의 침략을 받아 주권을 빼앗겼다. 반면에 비슷한 시기에 일본은 메이지유신(1868년)을 단행하고, 개방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급속한 산업혁명과 경제성장을 이루고 동북아에서 강자로 군림하게 되었다.

대외무역의존도가 87.9%(2010년 기준)에 이르는 우리나라가 선진 일류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통상정책이 필수적이다. 특히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지지부진해 주요국이 FTA를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FTA 확대는 피해서는 안 될 선택이기도 하다. 지난해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다만 FTA가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익을 가져오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게 마련이므로 충분한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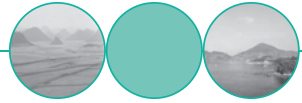
정부는 최대 피해 분야인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최선을 다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한·미 FTA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큰 쇠고기의 협상 결과와 대책이 대표적이다. 쇠고기 관세는 40%에서 15년간 매년 2.7%포인트씩 인하된다. 바꿔 말하면 생산 및 유통 비용을 매년 2.7%포인트씩 낮춰간다면 경쟁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새로 도입한 발농업직불제 대상에 사료작물을 포함하는 등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지난해 26만ha에서 올해 33만ha로 27% 늘린다. 2014년 이후에는 2010년의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또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옥수수 등 사료작물 공급을 확대한다. 수입사료원료 무관세 적용 품목도 지난해 4개에서 올해 16개로 늘렸다.

쇠고기 유통단계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 현재 42.5%인 유통비용 비율을 크게 줄여갈 계획이다. 축산농가에 대한 소득세 공제 혜택도 늘리고, 면세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도 10년간 유지한다. 아울러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도 지난해 1633억원에서 올해 4885억원으로 확대했다. 한·미 FTA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를 대폭 강화한다는 의미다.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한·칠레 FTA 때 '우리 농업이 다 망한다'는 우려의

소리가 있었지만 결과는 어떠했는가. 기우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당시 크게 걱정했던 시설 포도와 키위는 오히려 생산량이 늘었다. 농·어업인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다.

FTA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다. 농·어업인과 관련 종사자 모두가 합심해 노력한다면 우리의 농·어업이 경쟁력 있고 선진화된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2년은 한·미 FTA를 넘어 선진 농·어업을 실현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 믿는다.



2012. 2. 20. | 매일경제

맞춤형 교육으로 귀농 지원

실학자 정약용의 어릴 적 이름은 귀농(歸農)이다. 다산의 집안에서는 나랏일에 충성하고 은퇴 후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농업에 전념하라는 의미를 귀농이라는 아명에 넣었다.

1818년 강진 유배를 청산하고 남양주 능내리로 돌아온 다산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양반도 학문에 정진하면서도 농업을 돌보고 지역산업진흥에 매진해야 한다는 사상을 실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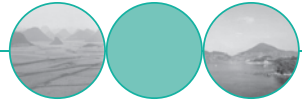
다산이 서거한 지 18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귀농과 귀촌이 회자되고 있다.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도시 거주 베이비 부머 중 66.3%가 농어촌 이주를 희망한다고 한다.

실제로 다양한 경험을 가진 도시민들이 농어촌지역에 이주해 성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경북 안동으로 귀농한 한 농가는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활용해 지역특산물인 마의 산업화에 성공했다. 이제는 연매출 12억원의 부농이

라고 한다. 또 경기도 포천의 귀농 농가는 오리의 독특한 비린내를 없애는 방법을 개발하여 관련특허 7개를 등록했으며 현재 매출도 연 16억원대 수준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러한 추세와 매일경제의 스마트 귀농 시리즈 등을 반영해 성공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기능을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로 확대 개편하여 일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시민에게 필요한 귀농귀촌 교육을 지원하고 제대군인, 도시직장인, 탈북자 등에게 맞춤형 교육도 실시한다. 선도농가에서 기술을 배우는 데 필요한 비용 중 일부도 지원한다.

농업창업에 필요한 자금도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지자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농어업, 농어촌 체험프로그램과 함께 지역주민들과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사업도 추진한다. 다만 귀농귀촌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도 명심하기 바란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분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고 이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2012. 2. 24. | 농민신문

새로운 농가월령가를 준비하며

벌써 입춘, 우수도 지나고 본격적으로 영농준비에 힘써야 할 때다. 농가월령가 정월령은 “일년 농사는 봄에 달렸으니 모든 일 미리 하라. 때를 놓치면 한해 농사 망치니”라며 한해 동안 힘써야 할 농사일을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의 농업은 하늘에 달렸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안정영농기반이 구축된 지금은 농산물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기준이,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가 새로운 하늘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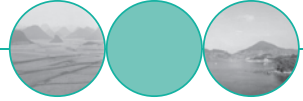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15일에 발효된다. 정부는 최대 피해분야인 농어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최선을 다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농어업분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본격적인 시장개방시대가 열릴 당시에 많은 이들이 우리 농업의 미래가 어두울 것으로 전망했다. 토지·노동·자본 등 농업자원분야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국가들에 비하면 우리의 농업은

보잘것없는 수준이고, 이로 인한 ‘국내외 가격차’로 우리 농업은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높은 농지 가격과 임금수준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의 농산물 생산비는 중국이나 미국보다 3~4배나 높아 애초에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시장개방 이후에도 우리 농업은 연평균 1.6%의 실질적인 성장을 계속해 왔다. 가장 큰 이유는 농산물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기준이 단순히 가격에 머물지 않고 품질·안전성·친환경성 등 비가격적인 가치기준을 더욱 중시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웰빙(참살이) 풍조와 한류 열풍을 잘 활용하면 우리 농산물의 우수한 품질 등 가치경쟁력을 무기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고, 이미 상당 부분 성과를 얻고 있다.

일본의 파프리카 수입량은 2010년 기준으로 약 2만5,000t이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가 1만6,200t(64.8%)을 수출했다. 네덜란드·뉴질랜드 등 경쟁국에 비해 운송비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지만, 결국은 철저한 안전성 관리 및 품질제고 노력을 통해 일본 소비자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UR 협상 타결 이전에는 국내 파프리카 생산이 거의 없었음을 감안하면 이는 전적으로 농업인과 정부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다.

국제경제학자 볼드윈은 FTA를 ‘도미노 게임’으로 표현한 바 있다. 시장통합에서 소외되는 국가가 받게 되는 불이익 때문에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대외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는 국가 발전전략상 FTA를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 자유무역을 해야 하고 이에 맞춰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 더구나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의 FTA는 분명 우리 농어업에 있어 위기인 동시에 기회다.



정부는 농어업분야 보완대책도 이미 마련했다.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규모 확대 등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과수·원예 등 농어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리 농어업이 오랫동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시장개방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튼튼한 농어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농어업인과 관련 종사자 모두가 합심해 노력한다면 우리의 농어업이 경쟁력 있고 선진화된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농가월령가는 1년 농사가 봄에 달렸다고 했다. 우리는 지금 10년, 100년 뒤에도 풍성한 수확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농가월령가를 준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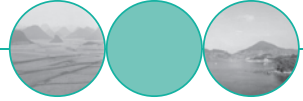
첫 한중일 농업장관회의가 남긴 것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던 2008년 12월 한·중·일 정상이 만나 위기극복을 위한 3국 연대방안을 논의하고 통화스왑 확대 등의 성과를 도출한 적이 있다. 이러한 공조는 대내외적 신뢰회복을 통해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한 사례로 평가되며, 합종연횡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한·중·일의 동반자적 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한·중·일 3국은 세계 경제의 약 2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다. 그러나 농업분야를 보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은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더구나 식량위기와 같은 첨예한 국제적 이슈가 부각되고 있음에도 국제무대에서의 역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에 따라 한·중·일 3국에서는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농업분야 협력모델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3국 농업장관회의의 태동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서로 입



장이 달라 구체화되지 못하다가 역사상 처음으로 이달 14~15일 제주도에서 제1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가 개최됐다. 이는 3국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지 않으면 국내외적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공통된 인식이 기초가 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ASEAN+3 농림장관회의 등 국제회의를 통한 우리나라의 주도적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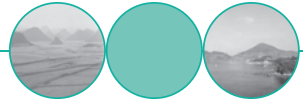
한·중·일 3국은 산업화 및 시장개방 등에 따라 공통적 농업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1.5ha), 일본(2.2ha) 및 중국(2.6ha)의 호당 경지면적은 미국(187ha)이나 프랑스(56ha) 등과 비교해 매우 영세하다. 도시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도 우리나라와 일본은 각각 67%, 72%이고 중국은 31%에 불과하다. 고령화 해소, 농업 생산성 제고, 안정된 식량확보 및 자연재해 예방 등도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다.

제1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식량안보와 자연재해 대응, 동식물 전염병 대응, 연구자 교류, 경제 파트너십 및 글로벌 협력 등의 이슈를 빠짐없이 논의하면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고, 3국 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실질적 방안도 내놨다. 특히 식량안보를 위해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아세안 식량안보시스템(AFSIS), 아시아·태평양 식량안보 정보 플랫폼(APIP) 등을 통해 국제공조를 확고히 하기로 했다. 구제역 등 동식물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무국 개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업분야의 장기적 도전과제의 해결을 위한 토대도 마련했다. 공통 현안 해소를 위해 워크숍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ASEAN+3, G20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 중국과 양자회담을 열어 농업분야의 현안을 해소하는 데도 주력했다. 대(對)중국 농식품 시장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김치, 막걸리, 인삼의 위생기준 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고, 대(對)일본 수출 가속화를 위해 한국산 가금육 수입제한 철폐를 요청했다.

이번 회의는 한·중·일 3국이 농업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출발점이 된 것으로 자평하고 싶다.

최근 어느 방송인이 TV에서 했던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 “1개가 가장 어렵다. 1개를 하면 50개도 할 수 있다. 하나도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한다.” 한·중·일 농업장관회의는 이제 첫걸음을 시작했다. 이 한 걸음이 앞으로 우리의, 그리고 전 세계의 농업발전과 행복증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을 당부드린다.



2012. 5. 11. | 동아일보

일본의 한국농업 배우기

19세기 이후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동북아지역의 강자는 일본이었다. 우리는 조선 후기 흥선 대원군이 쇄국정책을 펼쳐 근대화와 부국강병이 늦어진 반면 비슷한 시기에 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을 단행하고 개방정책을 펼쳐 산업혁명과 경제성장을 이뤘다. 19세기 역사의 교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방의 역사는 자유무역 시대인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국제경제학자 볼드윈은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소외되는 국가가 받게 되는 불이익 때문에 FTA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국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각국은 FTA를 통해 앞다퉀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는 변할 수 있고 변해 왔다.

19세기 적극적인 개방으로 동북아 강자로 군림했던 일본이 21세기 우리 농업의 FTA 대책을 배우고 있다. 얼마 전 니혼게이지아이신문은 ‘한미 FTA에서 배워야 할 농업을 강하게 하는 길’이라는 사설을 게재했다. 일본은 환태평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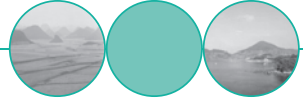
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를 앞두고 한국 농업에서 농업 구조개혁 정책, 농어업 경쟁력 및 체질 강화 정책 등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같은 맥락에서 4월 일본 나가노(長野) 현 의원을 비롯한 대표단 6명이 농림 수산식품부를 방문한 적이 있다. 미국과 FTA를 먼저 체결한 우리나라의 FTA 추진 과정과 농어업 분야 대책 등 우리 농업정책들을 소상히 알아보고 돌아갔다. 일본 대표단은 TPP 협상 타결 시 일본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를 고심하고 있었다.

한편 정부는 2017년까지 농어업 분야에 총 24조1000억 원(세계 지원 포함 54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자하는 '한미 FTA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한미 FTA로 인한 농어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재정 및 세계 지원,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 발동요건을 대폭 완화해 FTA에 따른 피해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발농업 및 수산 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농어업인의 소득기반을 확충한다. 아울러 농어업인의 경영 및 소득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비과세 부업소득 범위 확대, 수입사료 무관세 확대 등 세계 지원, 면세유 공급기간 연장, 공급 대상 추가 등을 통해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고 있다.

한미 FTA가 발효된 지 50여 일이 지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미 FTA가 농어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이른 감이 있다. 시장 개방은 우리 농어업에도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한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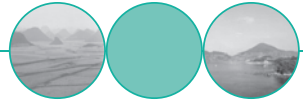
FTA를 우리 농어업의 수출 산업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올해 수출목표인 100억 달러 달성부터 시작해야 한다. 축산과 원예시설 등을 현대화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김치 인삼 파프리카 넉치 굴 등 전략품목을 적극 육성하고, 해외 시장 다변화 전략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독일 신경과학자인 다니엘 레비틴은 어떤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으려면 1만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1만 시간의 법칙’을 발표한 바 있다. 특정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목표를 달성하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다시 한 세기가 지난 후 후대의 평가는 지금 우리가 노력하기에 달렸다.

오감만족 농어촌체험마을

1분기 대한민국 국민의 해외 카드 사용액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는 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다. 거기에 올해 여름휴가 계획을 잡은 사람들 가운데 해외 여행객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보도도 이어진다. 경제는 불황이라지만, 인천공항을 가보면 지금이 정말 불황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물론 ‘한가로운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다’고 말한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바쁜 현대인에게 휴식이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휴식은 내가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기도 하며, 누구나 유익하게 보내기를 원한다. 몇 년 전 TV 광고에서도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고 외치던 광고를 보면서 ‘아! 나도 어디론가 훌쩍 가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특히 요즘은 주 5일 근무제와 주 5일 수업제로 시간으로 보면 여가시간은 분명히 늘어났다. 거기에 조금 있으면 여름휴가 시즌이 되니, 올해 나에게 주어진 휴식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이 시작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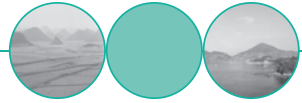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장(場)이 28일부터 4일 동안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2012 농어촌 체험마을 여름휴가 페스티벌’이 개최되는 것이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해 행사 규모의 2배가 넘는 207개 농어촌 체험마을과 지자체가 참가해 맛있는 지역 특산물과 잊혀가는 재미있는 전통놀이를 재현하고, 농어촌의 볼거리·먹을거리·체험거리를 소개한다. 미꾸라지잡기, 다듬이질, 인절미 만들기, 대나무 피리 만들기 등 각 마을의 체험거리는 가족단위 관람객과 어린이 단체 관람객들을 매료시킬 것이다. 도심 한복판에서 다양한 농어촌의 문화 체험을 통해 여름휴가 때 경제적이고 매력적인 농어촌을 선택할 수 있는 각종 정보도 덩으로 얻을 수 있다. 소비자가 농어촌 체험마을을 방문하기 전에 농어촌 체험마을 주민들이 도심지를 찾아 직접 먹을거리와 체험거리를 보여줌으로써 믿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농어촌 체험마을 자체가 낯선 이들도 있을 것이다. 농어촌체험마을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외소득 증대와 농어촌 활력 회복을 위해 2001년부터 집중 육성하고 있는 농어촌 마을단위 공동체다. 이곳에서 농어민들의 생업인 농작물의 파종·수확을 함께 하면서 자연을 즐기는 체험을 하고, 친환경 농산물로 조리한 음식을 먹고, 농어촌 주택에서 자고,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수도 있다.

지난해에만 모두 1860개 농어촌 체험마을 중 1000여 개 마을에 모두 946만 명이 방문해 1286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관광 수입이 농업 생산액보다 높은 마을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충남 청양군 알프스 마을의 경우, 연간 농업 생산액이 1억 원 미만인데 농어촌 체험마을 운영으로 연 5억 원 정

도의 매출을 올려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다. 농어촌 체험마을의 매출 증가는 정부나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도 있었지만 농어촌에서 생업으로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어민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산물이다.

어린 자녀들의 경험을 위해, 그리고 이국적인 정취를 느끼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진정한 휴식과 경험을 위해 농어촌 체험마을로 떠나는 휴식은 어떨까? 올 여름휴가는 이번 행사에 참여한 농어촌 체험마을로 정하고 준비해 출발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농어촌이 거기서 거기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2012 농어촌 체험마을 여름휴가 페스티벌’에 가보기를 다시 한 번 권한다.



2012. 8. 28. | 한국경제

추사 김정희의 또 다른 유산 '향토산업'

경기도 양평에는 뽕나무로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양평 유기농오디사업단' 사람들이 뽕나무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든 것이다. 옛날에는 농사와 더불어 나라의 근본이었지만, 최근에는 뽕나무를 키워 누에를 치고 비단을 짜는 일은 사양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다. 뽕나무는 열매인 오디부터 잎, 가지, 뿌리까지 어느 하나 버릴 게 없다. 또한 가공 과정에 따라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100g에 800원 정도인 생오디를 오디발효액으로 만들면 100g에 3000원이 되고, 오디식초는 3300원, 오디잼은 4000원, 오디와인은 5000원에 팔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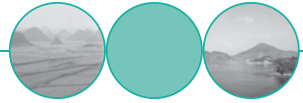
양평유기농오디사업단의 지난해 전체 매출액은 17억원을 넘었고, 그중에서 가공제품의 매출액만 5억원을 넘었다. 이에 힘입어서인지 2009년에 1544ha이던 우리나라 전체의 뽕 재배면적(오디용)이 2011년에는 1751ha로 늘어났으며, 2009년에 281억원에 불과하던 오디 생산액은 2011년에는 388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양평유기농오디사업단의 사례는 지역 농업인들의 의지와 노력에다 정부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원정책이 더해져 함께 만들어낸 성과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농어촌지역의 향토자원을 발굴해 1·2·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처음 시작된 2007년 이래 매년 30개 지구 내외를 신규로 선정해 지원하는 등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소득수준 상승과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호가 다양해지면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농어촌 향토자원이 부가가치를 낳는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을 통해 지역의 향토성 있는 자원들을 2·3차 산업화할 때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의도가 지역 현장의 수요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사양산업 인식되던 향토제품들 현장혁신과 정부지원 어우러져 농촌르네상스 동력으로 부상

‘향토자원’ ‘향토산업’은 예전의 ‘토산품’과는 어떻게 다를까? 옛날에는 ‘안성 유기’ ‘한산모시’ 등의 향토제품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양평 오디’ ‘장흥 헛개’ ‘공주 알밤’ 등이 있다. 시장의 수요를 읽고 이에 맞춰 새로운 상품으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2010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장흥헛개사업단은 음주에 시달리는 직장인들 건강에 좋다는 헛개나무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한다. 지난해 매출액이 70억원에 이르렀고 173명의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었다. 공주 알밤사업단은 건강한 간식거리에 관심이 높아지는 점에 착안해 알밤으로 다양한 가공제품을 생산한다. 사업을 시작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으나 첫해 매출액이 21억원이 넘었고 100만달러 이상의 수출실적도 기록했다.



‘향토산업’은 역사·문화자원 등 무형자원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도 토산품과 구별된다. 경북 영양에서는 340년 전 조선시대 한 사대부가의 안주인이 기록한 최초의 한글 조리서인 ‘음식디미방’에 있는 조리법을 요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요리로 상품화하는 향토사업이 2010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추사 김정희 선생의 고택이 있는 충남 예산에서는 ‘추사체’를 활용해 브랜드 로고 형태로 상품화하는 향토사업이 201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해 매출액이 14억원을 넘었고 새로운 일자리도 185명이나 생겼다.

‘백문(百問)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고 했던가. 이달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고양 일산의 킨텍스에서는 향토산업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12 대한민국 향토제품 대전-농어촌산업박람회’가 열린다. 170개가 넘는 농어촌기업에서 생산한 향토산업 제품들이 출품·전시되며 현장판매도 함께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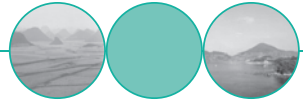
추석명절을 앞두고 있는 유통업체 바이어는 물론,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구매 관계자들,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들에게 토산품을 넘어 새롭게 진화하는 향토자원의 향연, 농어촌산업박람회를 자신 있게 제안하고 싶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해답이다

자동차나 IT 시장을 합친 것보다 규모가 큰 세계 식품시장에서 가장 잘나가는 식품기업은 어디일까? 바로 스위스에 본사를 둔 네슬레(Nestle)다. 네슬레 매출액은 150조원으로 세계 2위 기업인 펩시콜라에 비해 두 배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국내 최대 식품기업 매출액은 4조4000억원으로 세계 최대 기업 대비 30분의 1 수준에 조금 못 미친다.

대표적인 식품기업 매출로 한 국가의 식품산업 경쟁력을 평가해 본다면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네슬레를 비롯해 눈부신 성장을 이룬 세계적 식품기업들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성공 요인은 기술 혁신과 신제품 개발이었다. 네슬레는 분말기술을 활용한 가루수프, 초콜릿 시럽을 부어도 그대로 굳어 바삭해진 쿠키, 냉동건조 기술을 이용한 가루커피 등 시판 당시 고도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들을 개발해 시장을 개척했다.



현재 네슬레는 자체 R&D센터 30여 곳과 글로벌 연구기관 320여 곳을 연계해 신제품 개발에 매진 중이다. 인간 지능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식품과 친환경 식품 패키징 등 차세대 식품을 개발해 세계 식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아울러 신제품 개발에 대한 국가적 뒷받침도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선진국들은 식품산업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 특히 식품기업, 연구기관, 대학들을 지리적으로 집중시켜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클러스터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이탈리아 파마산 치즈, 프랑스 보르도 와인처럼 식품산업이 농어업과 연계돼 지역성이 강한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 결과 네덜란드 식품 클러스터인 푸드밸리는 국가 GDP 대비 10%를 담당하고 있으며, 덴마크·스웨덴 클러스터인 외레순 매출은 1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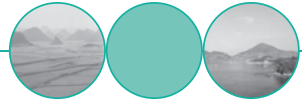
식품산업을 미래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우리나라도 식품산업 선진국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그 핵심에 2015년 전북 익산에 조성될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폴리스(FOODPOLIS)가 있다. 푸드폴리스는 일반 산업단지와는 차별된다. 식품 기술 개발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 교환을 촉진하고, 민간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개발 비용과 리스크를 줄임으로써 기술 개발과 상품화가 선순환되는 패러다임을 형성한다. 정보와 지식은 노동·자본과 달리 많이 축적될수록 생산 기여도가 높아지는 수확체증의 법칙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푸드폴리스 최대 강점은 6개 기업지원시설과 6개 연구기관이다. 이곳에 입주할 국내외 150여 개 식품기업이 생산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품질안전

센터, 기능성평가센터, 패키징센터, 파일럿플랜트, 임대형 공장,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등 6개 지원시설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식품연구원 등 인근 지역으로 이전되는 6개 식품 관련 국책연구기관과 연계해 발효·기능성 식품, 소재식품, 쌀가공식품 등 핵심 분야 연구개발에 적극 나설 것이다.

후발주자인 우리 식품산업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푸드폴리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환영할 만한 일은 국내외 기업들이 푸드폴리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미 많은 국가와 체결했거나 진행 중인 FTA를 통해 경제영토가 급속히 확장되고 있는 우리나라를 수출 거점 기지로 활용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기업 운영비 등 측면에서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해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기업들에 어필하고 있는 것이다.

푸드폴리스가 전 세계 식품산업 메카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는 청사진이 실현돼 푸드밸리, 외레순 등과 함께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2. 9. 19. | 동아일보

농업 융복합산업에서 미래를

생명공학기술이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은 지는 오래다. 세계미래학회(World Future Society)는 정보기술(IT)을 대체하고 미래 50년을 지배할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생명공학기술(BT)을 지목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생명산업의 성공 여부에 국가 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그렇다면 BT의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나는 농업의 융복합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농업은 융복합을 통해 생명산업으로 진화 중이다. 농업에 산업 프로세스를 통합해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지속 생산이 가능한 바이오 에너지와 생분해(生分解) 가능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것이 좋은 예다. 요즘에는 전통 육종에 유전 분석 방법을 도입해 병충해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 품종을 개발하고, 농·생명 소재에서 의료용과 건강 기능성 물질 등을 추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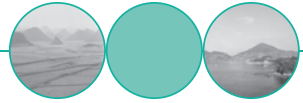
또 다른 전망을 보자. 보건의료분야 정보서비스 업체에 따르면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화학 합성 의약품의 매출액 비율은 2000년 91%에서 2014년 77%로

감소한 반면, 바이오의약품의 비율은 2000년 9%에서 2014년 23%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의약품시장의 무게 중심이 바이오생명산업 쪽으로 옮겨 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자동제어·정보화 기술을 통합해 기후와 같은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유비쿼터스 식물공장이 일반화될 것이다. 또한 농업과 의료가 통합돼 이종(異種) 간 장기이식을 위한 무균돼지 생산과 이식을 통해 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BT와 IT가 만나 DNA 서열 분석 등을 통해 꿈의 신약과 치료법을 개발할 바이오인포매틱스(bioinformatics)도 발전할 것이다.

이런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한 우리의 준비는 어떠한가? 생명산업의 높은 성장 가능성에 비해 투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 전체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3.5%인 반면, 농림수산식품분야는 농업 GDP의 1.7% 수준에 머물고 있다. 농업 관련 생명공학 R&D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BT를 필두로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활용한 생명공학산업이 농업의 외연을 넓히고 다음 세대에 우리 경제의 먹줄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투자 확대에 뜻을 모아야 한다. 미래를 대비하는 이런 노력들은 생명자원의 보고인 자연에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일이다. 이럴 때 1, 2차 산업에 머물고 있는 우리 농림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2012 생명산업과학기술대전'을 연다. '자연에 가치 더하기, 삶에 가치 더하기 (Better Nature, Better Life)'라는 슬로건 아래 생명산업으로 자리매김해 가는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미래가치와 그 중요성을 알리는 장이다. 청명한 가을날,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BT의 현 주소와 나아갈 길을 고민하고 발전하는 소중한 기회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V. 친 서

우리 한우에 대한 사랑이 계속되기를 | 268

AI 방역 관련 장관 서한문 | 270

제1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성료 감사 서한(일본) | 271

제1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성료 감사 서한(중국) | 272

‘미국 소 BSE’ 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 273

국가식품클러스터 서한(해외) | 276

김치, 막걸리 대중 수출지원 서한 | 279

추석 명절에는 우리 농식품으로 사랑과 정성을 전하세요 | 282

설 명절에는 건강한 우리 농수산식품으로 사랑과 정성을 전하세요 | 284

2011. 6. 10.

우리 한우에 대한 사랑이 계속되기를

평소 우리농업과 한우를 사랑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래 전부터 우리 농촌의 중요한 자산이자 농사를 돕는 일꾼이었던 우리 한우는 근대화를 거면서 우리나라 축산업의 가장 큰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더욱 거세진 쇠고기 수입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도 정부와 한우농가가 합심 노력하여 우리 국민들께서 한우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우의 품질을 고급화시키고 쇠고기 이력제, 원산지표시제 등 유통 투명성 높여 한우산업을 어엿한 민족 산업으로 성장·발전시켰습니다.

지난해 구제역이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다행히 대부분 한우농가들은 구제역으로부터 우리 한우를 지켜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구제역 경험을 교훈삼아 방역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선진 축산업, 친환경 축산업을 일구어 나가기 위하여 축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우고기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어려움을 이겨내며 정성껏 한우를 길러온 많은 농가들이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우농가가 용기를 잃지 않고, 한우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오직 한우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에 달려 있습니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한우고기가 다양한 맛을 낸다고 하여 일두백미(一頭百味)라고 하였고, 한국식품개발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우고기는 수입쇠고기 보다 올레인산 함량이 높아 건강에도 더 좋다고 합니다.

맛 좋고 건강에도 좋은 한우고기에 대한 변치않는 사랑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정·운영하고 있는 매주 금요일 ‘한우고기 먹는 날’도 잊지 마시고 꼭 참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우 농가와 소비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2012. 2. 5.

AI 방역 관련 서한문

전국의 가금류 사육농가 및 시장·군수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커다란 아픔을 겪은 바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9월5일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이후 현재까지 발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AI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봄철이 다가오면서 이 지역의 야생철새가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3월부터 5월까지 AI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께서는 관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과 철새도래지와 인근 논·밭 소독, 농장 예찰활동 등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금류 사육농가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을 가지고 출입통제 안내판, 발판소독조 설치, 축사출입시 신발 갈아신기 등 농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AI 발생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2. 4. 20.

제1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성료 감사 서한(일본)

미치히코 카노 장관님!

금번 제1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지해 주신 장관님과 일본 대표단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3국간 농업분야 협력의 획기적인 틀이 마련되면서, 한중일 3국의 농업분야도 한중일 3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중일 3국간 협력뿐만 아니라 장관님과의 소통을 통해 양국간 신뢰를 증진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산 가금육의 일본 수출 재개와 일본의 아태지역 식물보호기구(APPPC/FAO)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한중일 3국간 협력이 한중일 농업분야의 발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전 세계의 번영과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동반자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4. 20.

제1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성료 감사 서한(중국)

한창푸 부장님!

금번 제1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지해 주신 장관님과 중국 대표단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3국간 농업분야 협력의 획기적인 틀이 마련되면서, 한중일 3국의 농업분야도 한중일 3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중일 3국간 협력뿐만 아니라 장관님과의 소통을 통해 양국간 신뢰를 증진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출품인 김치·막걸리·인삼의 위생기준 제정과 우리 배타적 수역내 불법 조업의 방지를 위한 장관님의 협력과 관심에 대해 감사드리며,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한중일 3국간 협력이 한중일 농업분야의 발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전 세계의 번영과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동반자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5. 11.

‘미국 소 BSE’ 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월 25일, 미국측으로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BSE(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습니다. 정부는 관련 사실을 국민께 신속히 알려드리고, 검역을 대폭 강화한 바 있습니다.

현지 조사 및 확인을 위해 지난 4월 30일부터 12일 동안 민·관 합동조사단을 미국에 파견하였습니다. 발생 소의 월령, 비정형 BSE 및 식품으로의 공급 여부 등을 조사하고, 미국의 BSE 관리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미국 BSE 발병 소는 귀표 및 농장 기록 등을 통해 127개월령(10년 7개월)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국립수의연구소와 시료를 분석한 실험실을 방문하여 늙은 소 등에서 발생하는 비정형 BSE이라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BSE 감염소는 승인된 매립지에서 폐기처분 되었고, 식용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육우 농장·도축장·사료 공장 등의 현장 조사를 통해 미국의 사료 관리 및 예찰 체계가 국제 기준에 따라 작동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동안 발생 농장 방문조사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미국 사례와 규정 등을 이유로 여의치 않았습지만, 비대면 조사를 통해, 현재 사육중인 젖소에서 유사 증상 유무, 소 개체이력관리 상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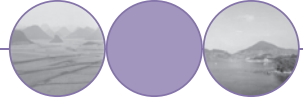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지 조사와 전문가 검토 결과,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산 쇠고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의지와 국민의 우려를 감안하여 현행 검역 강화 조치는 당분간 유지하겠습니다.

아울러, 미국 현지 수출작업장에 대한 정기 점검을 조속히 실시하겠습니다. 유통 중인 수입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특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부정 유통을 막겠습니다.



수입 쇠고기의 유통이력 관리 대상을 중간 유통업체 및 중소 식육판매업체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해정보를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산 쇠고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에게 신뢰와 안심을 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7. 18.

국가식품클러스터 서한(해외)

15억 동북아 식품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귀하의 의지와 희망,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입니다.

기업인으로서 존경과 신뢰를 받고 계신 귀하의 열정에 진심으로 따뜻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탁월한 맛과 기능을 갖춘 새로운 식품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최첨단의 명실상부한 세계적 수준의 식품산업단지과 주거환경을 갖춘 식품산업문화도시입니다!

식품기업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꿈꿔왔던 가장 최적의 기업환경을 갖춘 국가식품클러스터(FOODPOLIS)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대한민국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기업인으로서 더 큰 미래를 설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푸드폴리스는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R&D중심 수출지향형 푸드폴리스는 세계식품시장의 중심이 아시아-태평양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이때, '동북아와 세계식품시장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푸드폴리스는 동북아 최초의 식품전문문화도시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15억 인구의 동북아 중심에 위치, 수출하기 용이한 곳입니다.

푸드폴리스가 조성될 익산은 군산공항·항만, 새만금 신항, 인천공항 등이 인근에 있으며 비행거리 2시간 이내에 일본, 중국을 비롯해 인구 100만 도시가 60여개 존재합니다. 미국, EU 등 47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어 동북아의 어느 국가보다도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입니다.

푸드폴리스는 자체적으로 식품품질안전센터, 식품기능성평가센터, 식품패키징센터 등 3대 R&D센터를 가지고 있으며 식품연구원, 농진청 등 인근의 6대 국책 R&D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적 수준의 R&D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의 연구개발과 생산업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주직원 40여명 규모의 기업지원센터가 입주기업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파일럿플랜트를 설립하여 기업의 신제품개발을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 기업별 맞춤형 최상의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입주기업에게는 각종 세제 지원과 보조금 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통해 최장 100년간 부지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고급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식품인력공급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각 기업이 특정사항을 희망할 경우, 1:1 맞춤형인센티브를 제공해드릴 것입니다.

넷째, 살기좋은 정주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타운하우스, 한옥타운 등 국내외 종사자를 위한 품격있는 주거단지와 함께, 식품문화의 역사와 문화가 흐를 수 있도록 박물관, 전시관 등을 건립하고, 외국인학교, 병원 등 교육, 생활 여건도 최고가 되도록 배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중국, 일본과 비교해도 단연, 기업 운영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법인세율은 22%로서 중국 25%, 일본 39.5%보다 낮으며 외국기업 특례 적용시에는 면제 또는 감면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전기료나 수도료도 일본이나 중국보다 최대 70%정도 저렴합니다.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식품산업의 핵심가치를 알고 있는 대한민국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 노력이 혁신을 일으킬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식품산업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겠다는 의지, 푸드폴리스가 보여주겠습니다.

2012. 8. 29.

김치, 막걸리 대중 수출지원 서한

1. 위생부 Chen Zhu 부장님께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에 부장님께 서신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중 양국은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하며, 김치, 막걸리 등 발효식품의 위생기준 제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5월, 한중일 정상회의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원자바오 총리께 발효식품에 대한 위생기준을 조속히 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한 부장님의 관심 덕분에 지금까지 실무진간에 원만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막걸리 위생기준은 공포 절차만 남겨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8월중 공포되기를 기대합니다. 공포 후 시행까지의 기간도 단축되어 중국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생막걸리를 빠른 시일 내에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치는 CODEX 규격이 설정되어 있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한중이 협력할 경우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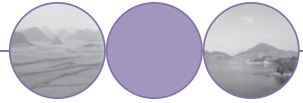
중국측에서도 우리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은 양국 정상간 논의된 사안임을 감안, 부장님의 깊은 관심과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며, 부장님과 위생부에 행복과 번영이 함께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2.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Zhi Shu-ping 국장님께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에 국장님께 서신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다시 만날 시기를 고대하였으나, 양측의 바쁜 일정상 서신으로 인사를 전하게 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장님의 관심 덕분에 식품안전에 관한 양국간 협력 또한 활발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중 양국은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하며, 한국산 동·식물 수입위험 평가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부는 삼계탕과 가금육, 말에 관한 수입위험분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삼계탕의 경우 우리부에서 '07년에 수입위험분석을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원만한 진행을 위한 국장님의 관심을 기대합니다.



또한 말의 경우, 대한민국 마사회에서 경주마 12마리를 중국 마업협회에 기증기로 한 바, 양국이 적극 협력하여 민간차원의 협력을 원활히 뒷받침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식물검역의 경우 우리나라는 파프리카를 최우선 수입위험분석 품목으로 선정하여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현지조사 등 후속절차 진행을 위한 답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도 우리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긍정적 회신을 기대하며, 국장님과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 번영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12. 9. 3.

추석 명절에는 우리 농식품으로 사랑과 정성을 전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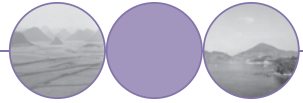
올여름은 어느 해보다 더웠고, 100년만이라는 극심한 가뭄도 겪었습니다.

추석을 코앞에 두고 세력이 큰 태풍 볼라벤도 우리나라를 지나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농촌의 들녘은 노랗게 익어가고 가을 과실들이 도시의 삶에 지친 우리를 고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빠박하게 짜인 일상 속에서 명절은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휴식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고향의 가족, 친구들에게 좋은 일은 축하하고 힘든 일은 격려해주는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리에 정성스럽게 장만한 명절 음식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늘 그러했듯이 이번 추석에도 가족과 지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우리 농식품 선물로 준비해보세요.

지난 여름 무더위와 극심한 가뭄, 큰 태풍을 극복한 농어업인들의 땀과 정성이 그분들께 고스란히 전해질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응원이 더욱 품질 좋고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옛 선인들은 더는 덜도 말고 꼭 한가위만 갈아라라고 할 정도로 추석의 풍요로움을 칭송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휘영청 밝은 보름달처럼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깃들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 9월 추석 즈음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 규 용

2013. 1. 21.

설 명절에는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식품으로 사랑과 정성을 전하세요

안녕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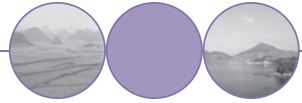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 서규용입니다.

인구 대이동이 일어나는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혹독한 강추위와 많은 눈으로 서민경제는 물론 우리의 마음까지 많이 움츠려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족과 친지가 더욱 그립고, 그들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더욱 절실해집니다.

설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출발을 계획하고 고향의 가족, 친구들과 만나는 명절입니다.

정겨운 우리 명절 설날에 고마운 분들과 정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농수산물식품 선물로 감사 인사를 전해보세요.



우리 농어업인들은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을 정성으로 극복했고, 그들이 생산한 농수산물들은 최고의 맛으로 건강까지 챙겨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농수산물 선물들 통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든든한 응원은 더욱 품질 좋고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올해 설날은 우리 농수산물 선물로 더욱 건강하고 정성이 깃드는 명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선한 희망을 품는 설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3년 1월

농림수산물부장관 서규용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VI. 현장소통

- 안동 구제역 매몰지 방문 | 288
- 부산공동어시장 방문 | 289
- 새만금 사업현장 방문 | 290
- 성주 · 고령 물폭탄 현장 찾아 | 291
- 고추재배농가 방문한 농림부장관 | 293
- 노량진 수산시장 방문 | 294
- 서 농림, 인천공항 검역상황 점검 | 295
- 우리수산물사랑 남산걷기대회 | 296
- 충북, 대청호에 토종어류 등 125만마리 방류 | 297
- 도시농부가 된 어린이들 | 299
- 농업 “대박나길” | 300
- 결혼이주 여성들과 전통행사 | 301
-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 302
- 수출팔기 작목반 파이팅 | 303
- 농진청에 들어선 ‘귀농귀촌종합센터’ | 304
- 버섯농가 시설 둘러보는 서규용장관 | 305
- 서규용장관, 구제역 매몰지 관리실태 점검 | 306
- 공동선언문 서명한 한중일 농업장관 | 307
- 봄배추 모종 나눠주는 농식품부 장관 | 308
- 서울시청 광장에 개장된 양파 · 대파 직거래장태 | 309
- 대한민국 귀농귀촌 페스티벌 개막 | 310
- 2012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개막 | 311
- 헌화하는 서규용장관 | 312
- 꽃게잡이 어업인 격려하는 모습 | 313
- 충남 가음지역 방문... “용수대책 마련” | 314
- 평창서 집 고쳐주기 봉사... 대학생들과 재능기부 활동 | 317
- 91세 농민, 농식품부 장관에게 감사편지 | 319
- ‘폭염 비상’ 축산농가 찾은 서규용 장관 | 321
- 적조현장 찾은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 322
- 향토제품 잔치... 농어촌산업박람회 | 323
- 서규용장관, 벼 백수피해 현장 방문 | 324
- 고창서 ‘제9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열려 | 325
-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천안서 개막... 외국 바이어 몰려 | 327

2011. 6. 3. | 안동

안동 구제역 매몰지 방문

서규용 장관, 안동 구제역 매몰지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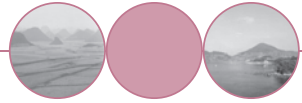
NEWSis () | 기사입력 2011-06-03 19:26



【안동=뉴스시스】 노창길 기자 =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일 오후 경북 안동 구제역 매몰지를 방문해 매몰지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사진=안동시 제공)

photo@newsis.com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일 오후 경북 안동 구제역 매몰지를 방문해 매몰지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2011. 6. 4. | 부산

부산공동어시장 방문

서규용 장관, 부산공동어시장 방문

NEWSIS () 기사입력 2011-06-04 18:20



【부산=뉴스시스】 김인철 기자 =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4일 오전 부산 공동어시장을 방문해 동해어업 지도사무소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photo@newsis.com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4일 오전 부산공동어시장을 방문해 동해어업 지도사무소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11. 6. 11. | 전북

새만금 사업현장 방문

서규용 장관, 새만금 사업현장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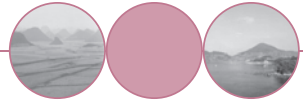
[2011-06-11 14:20 송고]



서규용 장관, 새만금 사업현장 방문

(서울=연합뉴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새만금 사업현장인 33센터 전망대를 방문, 격려하고 있다. 2011.6.11 << 농림수산식품부 >>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새만금 사업현장인 33센터 전망대를 방문, 격려하고 있다.



2011. 7. 12. | 경북

성주·고령 물폭탄 현장 찾아



예산 넓혀서라도 편하게 농사짓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12일 물 폭탄으로 참외·수박 하우스가 쓸대밭이 된 성주·고령의 농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들을 위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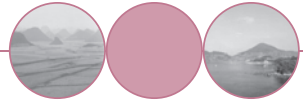
서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참외밭을 방문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현황을 경청한 후 수해현장을 둘러보면서 실의에 빠진 농민을 위로했다. 서 장관은 고령군 우곡면 연리 박재호 씨의 수박하우스와 다산면 호촌리 시설채소단지 등을 잇따라 찾았다.

농민 이능호(65·성주군 선남면 관하리) 씨는 “지대가 낮아 큰비만 오면 참외가 물에 잠겨 농사를 망치고 있는데 제발 침수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배수장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다른 농민은 “이번 폭우로 한 해 농사를 망쳐 생계가 막막하게 된 만큼 하우스 1동(200평)당 최소 200만~300만원의 직접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을 수행한 이양호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미 배수개선지구로 선정돼 있고, 우선순위로 검토 단계에 있는 만큼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 장관은 “예산을 확대 편성해서라도 농민이 편하게 농사를 짓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관계 공무원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폭우로 전국 참외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성주군 참외하우스 3천 969ha 가운데 41%에 해당하는 1천610ha(1천924호)가 침수됐으며, 고령군 우곡면 일대 수박하우스 11ha가 침수됐다.



2011. 9. 3. | 충북

고추재배농가 방문한 농림부장관

고추재배농가 방문한 농림부장관

NEWSIS | 기사입력 2011-09-04 05:08



【괴산=뉴스시스】광신욱 기자 = 충북 괴산군이 농산물 가격 파동 때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단골 방문지가 되는 등 '친환경농업군'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괴산군 강연면 고추재배농가를 방문한 서규용(가운데) 농림부장관이 고추 작황에 대해 농업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괴산군청 제공)

photo@newsis.com

충북 괴산군이 농산물 가격 파동 때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단골 방문지가 되는 등 '친환경농업군'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괴산군 강연면 고추재배농가를 방문한 서규용(가운데) 농림부장관이 고추 작황에 대해 농업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1. 9. 7. |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방문

서규용 장관, 노량진 수산시장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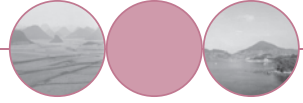
NEWSIS() 기사일련 2011-09-07 19:26



【서울=뉴스시스】 박상훈 기자 =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7일 오후 추석 전 서민 물가 알아보기 위해 노량진 수산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hyaline@newsis.com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7일 오후 추석 전 서민 물가 알아보기 위해 노량진 수산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2011. 9. 7. | 인천

서 농림, 인천공항 검역상황 점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7일 인천공항에서 농림수산식품검역경사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검역탐지견이 발견한 육류를 직접 살펴보고 있다.

2011. 9. 18. | 서울

우리 수산물사랑 남산걷기대회

우리수산물사랑 남산걷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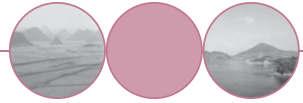
연방뉴스 기사입력 2011-09-18 10:05



(서울=연합뉴스) 18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열린 '2011 우리 수산물 사랑 남산 걷기대회'에서 서규용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출발하기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11.9.18

photo@yna.co.kr

18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열린 '2011 우리 수산물 사랑 남산 걷기대회'에서 서규용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출발하기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11. 9. 30. | 충북

충북, 대청호에 토종어류 등 125만마리 방류



농수산식품부와 (사)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는 30일 충북 보은군 회남면 법수리 대청호에 토종어류 새끼 25만마리와 다슬기 종패(種貝) 100만 마리를 풀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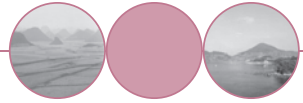
한국마사회 후원으로 열린 이 행사에는 서규용 장관과 안중서 대청댐관리단장을 비롯해 6개 어민단체 회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서 장관 등은 이날 5-10cm 크기의 새끼 붕어와 잉어, 자라, 동자개 등 토종 어류를 풀어놓고 호수 주변에 나뒹글던 쓰레기도 수거했다.

서 장관은 “내수면에 지속적으로 토종어류를 방류해 어민소득을 높이고 낚시 등 레저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보은군도 지난 7월 대청호 유역에 쏘가리와 동자개 등 토종어류 280만마리를 풀어넣었다.

보은군 농축산과 한광복 주무관은 “인공호수의 삭막한 서식환경 속에서 점차 자취를 감추는 토종어류를 되살리기 위해 토종어류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다”며 “올해 방류된 새끼 물고기가 2-3년 자라면 어민들의 주된 소득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1. 11. 11. | 경기

도시농부가 된 어린이들

도시농부가 된 어린이들

연말뉴스 기사입력 2011-11-11 14:16



(수원=연합뉴스) 신영근 기자 =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제16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참가한 어린이들이 서규용(왼쪽 뒤) 농식품부 장관과 함께 도심 텃밭에 상추를 심는 도시 농부 생활을 체험하고 있다. 2011.11.11

drops@yn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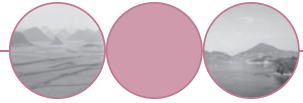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제16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참가한 어린이들이 서규용(왼쪽 뒤) 농식품부 장관과 함께 도심 텃밭에 상추를 심는 도시 농부 생활을 체험하고 있다.

2011. 11. 11. | 경기

농업 “대박나길”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제16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대형 박을 터뜨리며 ‘농업 대박’을 기원하고 있다.



2012. 1. 7. | 경북

결혼이주 여성들과 전통행사

결혼이주 여성들과 전통행사 갖는 농식품부장관

NEWSis() 기사입력 2012-01-07 16:01



【문경=뉴스시스】 7일 오전 서규용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경북 문경 산동농협에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맞이 결혼이주 여성 및 배우자와 오찬 간담회를 열고 전통 떡메치기 행사 등을 갖고 있다. (사진=농림수산물부 제공)

photo@newsis.com

7일 오전 서규용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경북 문경 산동농협에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맞이 결혼이주 여성 및 배우자와 오찬 간담회를 열고 전통 떡메치기 행사 등을 갖고 있다.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경기둔화,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이 상호 협력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2대 회의실에서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서규용 농식품부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협약서를 교환한후 참석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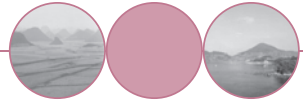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NEWSis () 기사입력 2012-03-07 16:06



【서울=뉴스is】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경기둔화,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이 상호 협력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2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서규용 농식품부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협약서를 교환한후 참석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농림수산식품부 제공)

photo@newsis.com



2012. 3. 10. | 경기

수출딸기 작목반 파이팅!

수출딸기 작목반 파이팅!

NEWS11 | 기사등록 2012-03-11 11:38



【고양=뉴스1】 서규용 농식품부장관은 10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수출딸기 작목반을 방문하며 수출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가 등과 수출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장관은 수출농가에 대해서는 저리 시설자금 지원 등 수출기반 조성과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해 수출농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농가 등도 수출 거래선을 유지하고 수출 농산물의 품질 관리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photo@news11.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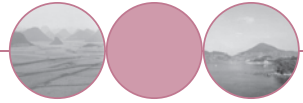
서규용 농식품부장관은 10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수출딸기 작목반을 방문하여 수출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가 등과 수출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장관은 수출농가에 대해서는 저리 시설자금 지원을 통한 수출기반 조성과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해 수출농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농가 등도 수출 거래선을 유지하고 수출 농산물의 품질 관리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2. 3. 12. | 경기

농진청에 들어선 '귀농귀촌종합센터'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농촌진흥청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진청, 농어촌공사, 농협의 귀농귀촌 지원업무를 통합한 '귀농귀촌종합센터' 개소식이 서규용 농식품부장관(왼쪽에서 4번째), 박현출 농촌진흥청장(왼쪽에서 5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12. 3. 31. | 경북

버섯농가 시설 둘러보는 서규용 장관

버섯농가 시설 둘러보는 서규용 장관

NEWSis() 기사입력 2012-04-01 09:37



【경산=뉴스is】 최정준 기자 =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31일 경북 경산에 위치한 버섯농가를 방문해 현장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농림수산식품부 제공)

photo@newsis.com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31일 경북 경산에 위치한 버섯농가를 방문해 현장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12. 4. 7. | 경기

서규용장관, 구제역 매몰지 관리실태 점검

서규용장관, 구제역 매몰지 관리실태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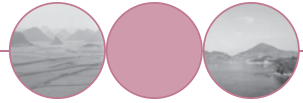
연말뉴스 기사입력 2012-04-08 12:00



(서울=연합뉴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빙기를 맞아 7일 경기도 여주군 구제역 매몰지 현장의 실태를 찾아 관리실태 점검을 했다. 2012.4.8 << 농림수산식품부 >>

photo@yna.co.kr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빙기를 맞아 7일 경기도 여주군 구제역 매몰지 현장을 찾아 관리실태 점검을 했다.



2012. 4. 15. | 제주

공동선언문 서명한 한중일 농업장관

공동선언문 서명한 한중일 농업장관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2-04-15 13:11



(서귀포=연합뉴스) 진지혜 기자 = 제1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가 1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한중일 농업장관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중국 한창루 농업부장, 한국 서규홍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일본 카노 미치히코 농림수산성 대신, 2012.4.15

atoz@yna.co.kr

제1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가 1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한중일 농업장관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2. 4. 16. | 서울

봄배추 모종 나눠주는 농식품부 장관

봄배추 모종 나눠주는 농식품부 장관

(서울=뉴스1) 박철홍 기자
입력 2012.04.16 13:34:54 | 최종수정 2013.03.12 15:22:24

기사소프탈: [f](#) [t](#) [b](#)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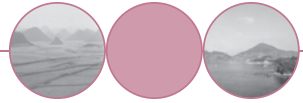


(서울=뉴스1) 박철홍 기자= 봄배추 모종 무료 나눔 행사가 열린 16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시민들에게 배추모종을 나눠주고 있다. 2012.4.16/뉴스1

clpark@news1.kr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봄배추 모종 무료 나눔 행사가 열린 16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시민들에게 배추모종을 나눠주고 있다.



2012. 4. 16. | 서울

서울시청 광장에 개장된 양파·대파 직거래장터

서울시청 광장에 개장된 양파·대파 직거래장터

연말뉴스 기사입력 2012-04-16 14:02



(서울=연합뉴스) 김동진기자=양파 및 대파의 소비촉진을 위해 16일 오전 서울시청 광장에 개장한 직거래장터에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시민들에게 싼값에 대파를 판매하고 있다. 2012.4.16

kimd@yna.co.kr

양파 및 대파의 소비촉진을 위해 16일 오전 서울시청 광장에 개장한 직거래장터에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시민들에게 싼값에 대파를 판매하고 있다.

2012. 5. 4. | 서울

대한민국 귀농귀촌 페스티벌 개막

대한민국 귀농귀촌 페스티벌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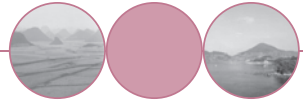
NEWSis() | 기사입력 2012-05-04 12:56



【서울=뉴스is】 박종욱 기자 = 서규용 농림수산물부 장관(오른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4일 오전 대치동 서울국제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린 '2012 대한민국 귀농귀촌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fufus@newsis.com

서규용 농림수산물부 장관(오른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4일 오전 대치동 서울국제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린 '2012 대한민국 귀농귀촌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2012. 5. 8. | 경기

2012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개막

아시아 3대 식품전이자 우리나라 최대 식품 전시회인 '2012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 2012·이하 서울푸드)'이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KINTEX)에서 열렸다. 이날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오영호 코트라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이외에도 마렉 스비키 폴란드 농수산부 장관, 프란츠 피슬러 전 EU농림수산부 장관, 독일, 스페인, 프랑스, 콜롬비아 대사 등 100여명의 주한외교사절이 대거 참석해 각국의 식품 홍보에 나섰다.

'2012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개막

NEWS1 () 기사입력 2012-05-08 13:17



【고양=뉴스1】 이경환 기자 = 아시아 3대 식품전이자 우리나라 최대 식품 전시회인 '2012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 2012·이하 서울푸드)'이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KINTEX)에서 열렸다. 이날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오영호 코트라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이외에도 마렉 스비키 폴란드 농수산부 장관, 프란츠 피슬러 전 EU농림수산부 장관, 독일, 스페인, 프랑스, 콜롬비아 대사 등 100여명의 주한외교사절이 대거 참석해 각국의 식품 홍보에 나섰다.(사진=킨텍스 제공)

photo@news1.com

2012. 5. 18. | 인천

헌화하는 서규용 장관

헌화 하는 서규용 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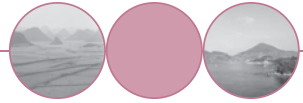
NEWSIS () 기사입력 2012-05-18 19:27



【서울=뉴스시스】 박동욱 기자 =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인천 연평도 평화추모공원을 방문해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농림수산식품부 제공)

photo@newsis.com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인천 연평도 평화추모공원을 방문해 헌화를 하고 있다.



2012. 5. 18. | 인천

꽃게잡이 어업인 격려하는 서규용 장관

꽃게잡이 어업인 격려하는 서규용 장관

NEWS1 | 기사입력 2012-05-18 19:27



【서울=뉴스1】 박종욱 기자 =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인천 연평도 꽃게잡이 조업어선에 승선해 어업인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농림수산식품부 제공)

photo@newsis.com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인천 연평도 꽃게잡이 조업어선에 승선해 어업인을 격려하고 있다.

2012. 6. 9. | 충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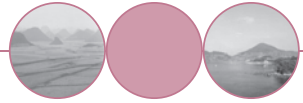
충남 가뭄지역 방문... “용수대책 마련”

한국농어촌공사 충남 지역본부는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9일 충남지역 가뭄이 극심한 서산·예산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 가뭄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농민들을 격려했다고 10일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서산 대호 간척지 현장을 방문, 대호담수호 저수·급수상황과 서산시 팔봉면 대항리 밭작물 가뭄현장을 방문 마늘, 고추, 감자 등 생육상황을 점검했다

대호담수호 저수율은 13.9%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대산지역 공업용수 공급을 중단할 위기에 처해 있다.



서 장관은 “충청남도에 가뭄지속에 대한 대책으로 한해 대책비 25억원을 지난 7일 긴급지원했다”며 “지하수 관정개발 등 용수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당진 삽교호 용수를 운정양수장에서 당진간선으로 용수를 공급해 7419ha 대호지 농업용수와 대산정유3사 공업용수 공급에 차질 없이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충남도주관하에 시·군·한국농어촌공사·수자원공사 관련기관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가뭄대책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서 장관은 또 예산 예당저수지를 방문, 저수·급수상황, 논 모내기 상황을 듣고 문제점과 대책을 협의 했다.

예당호의 저수율은 현재 25%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군(군수 최승우)은 봉산지역외 7면 읍·면에 7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농어촌공사에 한해대책 지하수 관정 20개소 긴급 개발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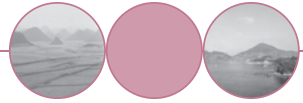
또 서 장관은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진이 고성능 착정기를 긴급 투입, 지하수를 개발에 성공한 예산군 광시면 서초정리 현장을 방문해 시연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농어촌공사는 시·군에서 지하수개발을 요청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장비를 총동원, 비상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하수 관정 개발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김태웅 본부장은 “20일까지 비가 100mm 이상내리지 않을 경우 모내기는 차질 없이 완료하겠지만 어린모의 활착이 어려워 수확량 감소가 예상된다”며 “비상근무체계를 유지, 가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또 “양수기 가동을 위한 양수장비 구입, 하상굴착, 전력료, 유류대 등 농어촌공사에 정부의 한해 대책비 긴급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충남도내 농촌용수개발사업 신규 추진과 저수지 준설, 한해 대책용 관정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그 동안 가뭄극복 종합 대책을 수립 비상근무체계에 돌입 저수지, 양수장, 보 양수기를 총동원, 하천에서 용수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인천 연평도 꽃게잡이 조업어선에 승선해 어업인을 격려하고 있다.



2012. 7. 23. | 강원

평창서 집 고쳐주기 봉사... 대학생들과 재능기부 활동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1일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에서 대학생 자원봉사자 20명과 함께 농어촌 집 고쳐주기 봉사에 참여하며 재능 기부 활동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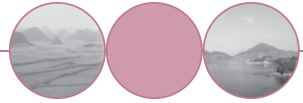
서 장관은 이날 강원대 삼척캠퍼스 건축전공 학생들과 함께 홀몸노인, 조손가정 등 소외계층 12가구를 대상으로 화장실과 주방을 현대화하고 주택 단열을 보강하는 등 주거개선 작업을 벌였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오른쪽)이 21일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마을에서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함께 농어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은 2007년부터 다솜동지복지재단(이사장 정영일)과 한국농촌건축학회(회장 최명규)가 손잡고 전국 건축 관련 학과의 대학생들이 교수를 중심으로 벌여온 농어촌 노후주택 고쳐주기 재능기부 활동 중 하나다.

서 장관은 “오늘 벌인 봉사와 같은 재능기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농어촌의 삶터가 개선되고, 활기찬 농어촌 마을이 되도록 더욱 힘을 쏟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2. 8. 8. | 강원

91세 농민, 농식품부 장관에게 감사편지

“소생(小生)은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좁 찡하였습니다.” 지난달 말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앞으로 도착한 한 통의 편지가 최근 농식품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화제다.

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편지의 주인공은 김승환 씨(91·경기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김 씨는 동아일보 7월 23일자에 실린 ‘서규용 장관, 평창서 집 고쳐주기 봉사’ 기사를 읽은 느낌을 편지에 담았다. 서 장관이 지난달 21일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에서 소외계층의 집을 고쳐주는 봉사활동을 벌였다.

서규용 장관, 평창서 집 고쳐주기 봉사

대학생들과 재능기부 활동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1일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에서 대학생 자원봉사자 20명과 함께 농어촌 집 고쳐주기 봉사에 참여하며 재능기부 활동에 나섰다.

서 장관은 이날 강원대 삼척캠퍼스 건축전공 학생들과 함께 흙길노인, 조손가정 등 소외계층 12가구를 대상으로 화장실과 주방을 현대화하고 주택 단열을 보강하는 등 주거개선 작업을 벌였다.

이번 봉사활동은 2007년부터 다솜지복지재단(이사장 정영일)과 한국농촌건축학회(회장 최명규)가 손잡고 전국 건축 관련 학과의 대학생들이 교수들 중심으로 벌여온 농어촌 노후주택 고쳐주기 재능기부 활동 중 하나다.

서 장관은 “오늘 벌인 봉사와 같은 재능기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농어촌의 살터가 개선되고, 활기찬 농어촌 마을이 되도록 더욱 힘을 쏟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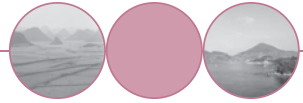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동아일보 7월 23일자 A27면

김 씨는 “이 기사를 일반 독자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그 마을의 농가는 얼마나 가슴 벅차고 기뻐했습니까”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소생도 다른 부처 장관이 그러셨다면 ‘그런가보다’ 했을 것”이라며 “농식품부 장관과 농민이 (소통하는 모습이) 국민화합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소생의 일은 아니지만 장관님 고맙습니다”라고 편지를 맺었다.

이날 서 장관은 “아흔이 넘은 어르신이 정성스레 적으신 편지를 읽고 감동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면서 “앞으로 작은 활동이라도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2. 8. 8. | 경기

‘폭염 비상’ 축산농가 찾은 서규용 장관

유례없는 폭염으로 가축의 폐사가 급증해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8일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후포리의 한 육계 축사를 방문해 내부 온도를 점검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지난달 20일 이후 가축 83만 633마리가 폐사했다고 발표했다.



2012. 8. 10. | 전남

적조현장 찾은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적조현장 찾은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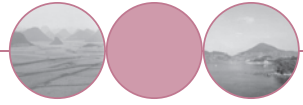
NEWSis() 기사입력 2012-08-10 18:47



【여수=뉴스is】 송창현 기자 =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맨 오른쪽)이 10일 적조발생 해역인 전남 여수시 돌산 동쪽바다를 둘러보며 피해 예방대책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goodchang@newsis.com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맨 오른쪽)이 10일 적조발생 해역인 전남 여수시 돌산 동쪽바다를 둘러보며 피해 예방대책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12. 8. 30. | 경기

향토제품 잔치... 농어촌산업박람회



전국 78개 시·군에서 177개 업체가 참가하는 '2012 농어촌산업 박람회(대한민국 향토제품대전)'가 30일 경기도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했다.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왼쪽부터)과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장, 최규성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 김기웅 한국경제신문 사장 등이 한 업체의 전시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12. 9. 1. | 전북

서규용장관, 벼 백수피해 현장 방문

서규용 장관, 벼 백수피해 현장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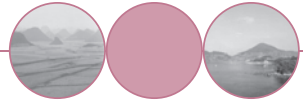
NEWSis() 기사입력 2012-09-01 19:31



【김제=뉴스is】 고석중 기자 = 1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연이은 태풍으로 벼 백수현상이 속출하고 있는 전북 김제시 진봉면 일대 피해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김제시 제공)

photo@newsis.com

1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연이은 태풍으로 벼 백수현상이 속출하고 있는 전북 김제시 진봉면 일대 피해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12. 10. 10. | 전북

고창서 '제9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열려

'제9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가 전북 고창에서 개최됐다.

고창군은 이번 대회가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다른 모습 같은 미래 2020'이란 주제로 9일과 10일 이틀간 고창에서 개최됐다고 10일 밝혔다.

9일 행사에서는 전야제와 함께 자율관리어업 연합회 총회가 개최됐으며 성공사례 발표 등 자율어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10일 군립체육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김중주 자율어업연합회장, 이강수 군수, 박래환 군의장 등 내외빈과 함께 공동체 회원 1200명이 자리를 메워 대회를 축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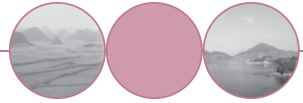
10일 전북 고창 군립체육관에서 '제9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가 열렸다. 기념식 중 내빈들에 단상에 올라 성공적인 자율관리어업의 정착을 위해 서로 협력하자고 손을 맞잡고 있다.

기념식에서 이강수 군수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노력으로 어장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며 “청정한 수산자원을 후손들에게 물려줘 미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기념식을 마치고 구시포항 건설사업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어촌계원 등 주민들을 격려했다.



10일 전북 고창에서 '제9회 자율어업관리 전국대회'가 열렸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고창을 방문한 서규용 농림식품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이강수 군수(왼쪽)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과 '구시포항 건설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12. 10. 30. | 충남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천안서 개막... 외국 바이어 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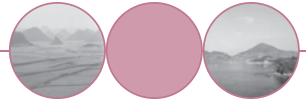
세계적으로 첨단농업기계의 새로운 변화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2012 대한민국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가 30일 충남 천안시 천안삼거리 공원에서 개막됐다.

‘농기계자재는 미래농업의 원동력, 세계로 가는 KIEMSTA 2012’을 주제로 열린 이날 개막식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성무용 천안시장 등을 비롯해 업체 외국 바이어와 관람객 등 7000여명이 찾았다.



이날 박람회장에는 미국과 일본, 중국, 이탈리아 등 전 세계 22개 국가에서 363개 기업체가 참여해 1691개의 전시부스를 운영하는 가운데 개막 첫날 농업인과 관람객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특히 박람회장에는 아프리카 국적의 해외바이어들이 박물관을 찾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 등 선진 기술의 농기계자재를 확인하기 위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



전시관 운영과 함께 부대행사로 열린 중고농기계 경매행사장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으며, 새롭게 출시된 신기종 농기계의 성능을 확인하는 연시장도 많은 인파가 몰렸다.

전시관은 제1관(재배관리), 제2관(재배관리), 제3관(경운정지), 제4관(수확기계), 제5관(작업기), 제6관(축산기계), 제7관(종합형), 제8관(이앙·파종·임업), 제9관(시설자재·해외관) 등이다.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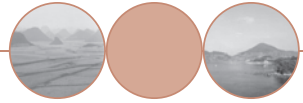
VII. 부 록

서규용 장관 주요일정(농정일지) | 332

VII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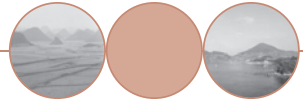
■ 2011년

날 짜	일 정
6월 2일	국회 본회의 취임식
6월 3일	국무회의 현장방문(안동)
6월 4일	부산 공동어시장 방문, 수산현장 방문
6월 6일	제56회 현충일 추념식
6월 7일	국무회의(중앙청사) 국회 본회의
6월 8일	농민단체 오찬 간담회
6월 9일	농식품수확후 관리포럼 발대식
6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
6월 13일	국장회의 케이블 IPTV홍보 촬영(MBN) 기자 오찬 간담회
6월 14일	국무회의 농해수위(업무현황보고) 법사위
6월 15일	농해수위(법안상정) 검역검사본부 현판식(수과원)
6월 16일	확대간부회의 세계 수협의 날 기념식 브라질대사 내방
6월 17일	국정 토론회
6월 18일	국정 토론회
6월 19일	농민단체 간담회
6월 20일	전문지 기자 간담회
6월 21일	국무회의
6월 22일	"한벌꿀"브랜드 선포식 서해5도 지원위원회
6월 23일	상임위(법안의결) 국회 본회의
6월 24일	현장방문(전남) 한미 FTA협의회 식생활교육 박람회(aT) 조선일보 인터뷰 농여촌 핵심인재육성 세미나
6월 25일	현장방문(전남)
6월 27일	국장회의 서울신문 편집국장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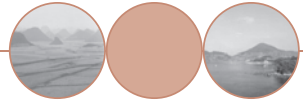
6월 28일	국무회의 법사위 수산단체장 간담회
6월 29일	경제정책조정회의 농식품과학기술포럼 개최식 여직원회 간담회 국회 본회의 농업인력육성 정책토론회
6월 30일	한계저수지 독농이기 준공식 국회 본회의 KTV 정책대담 출연
7월 1일	사료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식생활교육 박람회 서울경제 인터뷰
7월 2일	현장방문
7월 4일	사랑의 김치담그기 행사 동물자원과학회장 간담회
7월 5일	국무회의 노조 간담회 미래한국해양수산선진화 포럼
7월 6일	직원과의 대화(수산정책과) 세계일보 인터뷰 농촌진흥청 업무보고 및 특강 연수원, 농수산대학 업무보고
7월 7일	검역검사본부 평택사무소 점검 산림청 업무보고 현장점검(구제역매몰지 등)
7월 8일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한미FTA협의회 품관원, 종자원 업무보고
7월 9일	현장방문
7월 11일	월례조회 소비자단체 간담회 수협대표내방
7월 12일	국무회의 동아일보 인터뷰
7월 13일	UPOV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축협조합장 워크숍 특강(평창) 신지식농업인회 전국대회

7월 14일	직원과의 대화 KBS 농수산 오늘 녹음
7월 15일	농기계사장단 간담회 식품 CEO 간담회 계룡지구 독농이기 준공식
7월 16일	현장방문
7월 17일	제헌절 경축식(국회의사당)
7월 18일	수해농가 일손돕기 세계물포럼선정위원 내방 김치협회 회장단 내방 SBS 출발 모닝와이드 촬영 세계양봉대회 홍보용 영상촬영
7월 19일	국무회의 확대간부회의
7월 20일	박지원의원 내방 쌀 홍보대사 위촉 및 시식 유통공사 업무보고 수협중앙회 업무보고
7월 21일	직원과의 대화 농업생명연구단지 기공식
7월 22일	여야정협의회 IFAD 총재 내방 메가 리조트 개장식 현장방문(농진청 주관)
7월 25일	농경연 업무보고 및 특강 동아일보 편집국장 간담회 수산과학원 등 업무보고
7월 26일	국무회의 물가관계장관회의 알뜰한 장보기 홍보 산하단체장 간담회
7월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기재부) 과학기술위원 위촉식 문화일보 인터뷰 충북 농업경영인 대회
7월 28일	직원과의 대화(농어촌정책과) 축구대회 시상식
7월 29일	직원과의 대화
7월 30일	현장방문
8월 4일	선농회 간담회 농경연 원장 현안보고 물가관계장관회의 중소기업중앙회장 간담회
8월 5일	을지연습 준비보고 회의(중앙청사) 농협업무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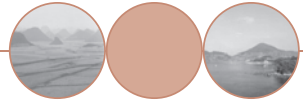
8월 6일	현장방문
8월 8일	국장회의, 을지연습준비 보고회의 국립수산과학원장 현안보고
8월 9일	국무회의 직원과의 대화 농진청 차장 현안보고 농민신문 50주년 대담
8월 10일	CBS-R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 직원과의 대화 농업기자 포럼
8월 11일	서울신문 인터뷰
8월 16일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 을지국무회의 4대강 개방행사 총리 간담회
8월 17일	상임위(현안, 결산)
8월 18일	일일상황보고 YTN 뉴스 출연 국제양봉인대회 유치심사단 내방
8월 19일	상임위(결산, 법안)
8월 20일	현장방문
8월 22일	예결위(종합질의)
8월 23일	예결위, 상임위(법안의결) 본회의
8월 24일	예결위(부별심사)
8월 25일	물가관계장관회의 과수단체장 간담회 전통시장 자매결연 호주대사 내방
8월 26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8월 27일	대구육상대회 개최식
8월 29일	서초포럼 특강 종합상황실 현판식 국장회의 직원과의 대화
8월 30일	국무회의
8월 31일	예결위 본회의
9월 1일	국회 개최식 한여농 전국대회
9월 2일	수의사회 특강 월례조회 시장·군수 워크숍

9월 5일	농어촌산업박람회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위원회 아시아경제 인터뷰 KBS-R 인터뷰
9월 6일	국무회의 농식품수출홍보대사 위촉식 농협 한마음 축제
9월 7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검역검사본부 업무보고 노랑진수산시장 방문
9월 8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광견병 IIE 컨퍼런스
9월 9일	국가정책조정회의
9월 14일	국무회의
9월 15일	경제정책조정회의
9월 16일	김학용 의원 출판기념회
9월 17일	충북 마이스터대학 특강
9월 18일	우리수산물사랑 남산걷기대회
9월 19일	국회(국정감사)
9월 20일	국무회의 기자 간담회 코리아타임즈 인터뷰
9월 21일	경제정책조정회의 국회 상임위
9월 22일	국민농업포럼 토론회 농우회 회장단 간담회 생활개선회 전국대회
9월 23일	장관배 바다낚시대회 시상식
9월 24일	로컬푸드 전국대회
9월 26일	국장회의
9월 27일	국무회의 직원과의 대화
9월 28일	경제정책조정회의 식품산업진흥기본대책 브리핑 세계유기농대회(남양주 체육문화센터)
9월 29일	영농학생 전진대회
9월 30일	치어방류행사(대청호) 누에산물전(잠사박물관-청원) 청원생명축제
10월 3일	쟁점보고
10월 4일	국무회의 바자회 봉사 직원 격려



10월 5일	명사특강 오상 농경지 리모델링
10월 6일	국회 상임위 시, 구제역 방역상황실 개소식
10월 7일	종합감사
10월 8일	사과축제(문경)
10월 10일	국회 본회의 UN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10월 11일	국무회의 여성농업인단체장 간담회 주한이태리대사 내방 해럴드경제 인터뷰
10월 12일	월례조회 직원과의 대화 주한EU상공회의소 회장 내방 GAP회장단 내방
10월 15일	현장방문(벼베기 행사)
10월 16일	러브미농촌사랑 마라톤대회
10월 17일	기자 간담회 국장회의
10월 18일	국무회의 상임위(한미FTA 보완대책)
10월 19일	축산물공판장 개장식 매경 인터뷰 말산업축제
10월 20일	국회본회의(10월20일~10월21일)
10월 22일	4대강 그랜드 오픈
10월 24일	총리영접(구제역 상황실) 수산전문지 사장단 간담회 국회 상임위
10월 25일	국무회의 방역CPX(화성)
11월 5일	장관기 촉구대회
11월 7일	물가관계장관회의 예결위
11월 8일	국무회의 예결위
11월 9일	예결위 식품박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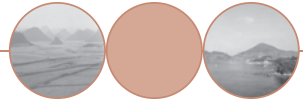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KBS 뉴스라인 출연
11월 12일	KBS 출발드림팀 녹화
11월 14일	예결위
11월 15일	국무회의 예결위
11월 16일	한식홍보대사 위촉 중소기업 간담회 식품안전정책위원회(총리실)
11월 17일	상임위
11월 18일	식생활교육학술대회
11월 19일	장관기 테니스대회 격려 파주장단공추제 행사장 등 점검 공생산농장 간담회
11월 21일	해외출장
11월 22일	해외출장
11월 23일	해외출장
11월 24일	상임위 본회의
11월 26일	현장방문
11월 28일	4대강 준공식 국장회의
11월 29일	국무회의 파이낸셜 뉴스 인터뷰 이통장협의회
11월 30일	과실대전 중앙선데이 인터뷰
12월 5일	월례조회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 특강
12월 6일	국무회의
12월 7일	위기관리대책회의 안성팜랜드 준공식 구제역방제 현장 점검
12월 8일	우수품종상 시상식
12월 9일	재난관리개선대책보고 회의 물가관계장관회의
12월 12일	무역1조달러 기념행사



12월 13일	국무회의 라디오 광고 녹음 호주 농림수산부 장관 내방
12월 14일	농어촌청소년 대상(서울신문사)
12월 15일	어업질서확립 유공자 시상식(대회의실)
12월 16일	연두업무보고 KBS 일요진단 녹화(KBS스튜디오)
12월 17일	떡볶이 페스티벌(일산 킨텍스)
12월 19일	농산물그린포장실천협약식 KBS 라디오 인터뷰
12월 20일	국무회의 이천평생아카데미 특강(이천)
12월 21일	낙농지도자대회 국군장병 위문성금
12월 22일	농어촌대표자 회의 전문지 기자단 간담회
12월 23일	KBS 사랑의 열매 성금기탁(KBS) 농어촌마을대상 시상식(마사회)
12월 26일	불법조업근절 당정협의 충북 과수농가 특강(충주)
12월 27일	국무회의 상임위(법안의결)
12월 28일	법사위
12월 29일	본회의 일간지 기자단 간담회
12월 30일	본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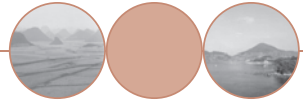
■ 2012년

날 짜	일 정
1월 1일	국립묘지 참배
1월 2일	정부시무식 시무식 신년인사회
1월 3일	국무회의 확대간부회의 BH 신년인사회
1월 4일	농업인 신년인사회
1월 5일	PBC-R 인터뷰
1월 6일	한미 FTA 보완대책 설명회
1월 7일	다문화가족 간담회(문경)
1월 9일	한미 FTA 보완대책 설명회
1월 10일	국무회의 출입기자 간담회 블로거 기자단 간담회
1월 11일	농우회 정기총회(방배)
1월 12일	BBS 라디오 인터뷰 지역민방 보도국장 간담회 수산경영인회장 이취임식
1월 13일	연합뉴스 인터뷰 김치협회 창립총회(aT)
1월 14일	장·차관 워크숍
1월 16일	도매시장 물가점검(가락동) 국장회의 유가공협회장 면담
1월 17일	국무회의 10대 품목 연구클러스터 발대식
1월 18일	CBS-R 김미화의 여러분 출연 KTV 대담 전통시장 물가점검
1월 19일	좋은아침 특강 매경 인터뷰 수출대책회의(대회의실) 사회복지시설 위문(충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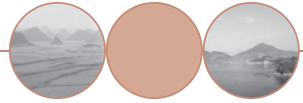
1월 20일	농수산물수급유통관리기관 업무보고(농협) KBS 라디오 농수산오늘 인터뷰
1월 21일	불법조업단속현장
1월 28일	외국인 정책위원회(총리실)
1월 30일	국장회의
1월 31일	국무회의 시·군농정과장 특강
2월 1일	농식품관리, 검역기관 업무보고(검역검사본부) 양돈협회 간담회
2월 2일	식품기업 신년교례회 한국마사회 업무보고
2월 3일	수산전망대회(상공회의소) 산림청, 산림조합 업무보고(수원)
2월 6일	월례조회
2월 7일	국무회의 해외주재관 간담회(국무위원식당)
2월 8일	낙농육우협회 간담회 국회 상임위
2월 9일	상임위
2월 10일	외식산업협회 간담회 수협방송 인터뷰 국회 상임위
2월 14일	국무회의
2월 17일	한농대 졸업식 김치협회 간담회
2월 20일	GPC 최고CEO과정 특강
2월 21일	국무회의 해외농업개발협회 창립총회 국제식품클러스터 포럼 한식세계화추진단 회의
2월 22일	직원과의 대화

2월 23일	쌀전업농 회장단 면담 브리핑(귀농·귀촌종합대책)
2월 24일	기우회 특강 서울경제 인터뷰 현장방문(화성, 안성, 이천)
2월 27일	법사위 본회의
2월 28일	국무회의 G & LT 포럼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aT) 농업계 원로 만찬
2월 29일	물가장관회의 농공기술포럼 특강(aT) 스페인대사(오대성) 면담 해양생명자원법 관련 회의
3월 1일	3·1절 기념행사
3월 2일	새농협 출범기념식 법사위
3월 5일	확대간부회의 식품명인 지정서 수여
3월 6일	국무회의 농협방송 인터뷰
3월 7일	중소기업·농어촌 MOU 명사특강(침주대)
3월 8일	농어촌공사 연찬회 특강(나주) 농어촌공사 신사옥 착공식
3월 9일	무궁화 1호 취향식(부산)
3월 10일	농협 고위간부 연찬회 특강
3월 12일	월례조회 귀농귀촌종합센터 개소식 귀농귀촌 공익캠페인 시사회
3월 13일	국무회의
3월 14일	FAO아태지역 총회(베트남)
3월 19일	총리 농촌현장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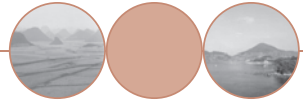
3월 20일	국무회의 산불방지대책회의(강릉) 수출전진대회(aT)
3월 21일	오송하나로마트 개장식
3월 22일	농어업인 삶의 질 실무위원회
3월 24일	현장방문
3월 26일	천안함 2주기 추모행사(대전 현충원) 농식품부 자체평가위원 오찬
3월 27일	국무회의(중앙청사) 소비자단체장 간담회
3월 28일	코리아해럴드 인터뷰
3월 30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위원회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
4월 2일	수협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소셜 기자단 간담회(하이서울 유스호스텔)
4월 3일	국무회의 신지식 농업인상 수여식
4월 5일	제67회 식목일 기념행사(포천)
4월 6일	우리밀 시식행사
4월 9일	국장회의 직원과의 대화
4월 10일	국무회의 우크라이나 대사 면담
4월 12일	귀농귀촌 현장방문
4월 13일	수출대책회의
4월 14일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제주, 4월14일~4월15일)
4월 16일	배추모종 나누기 행사(시정앞광장) 중앙일보 인터뷰
4월 17일	확대 국무회의 외식산업자재박람회 개막식(aT)
4월 18일	농기계박람회 개막식(상주)

4월 19일	농협 안심 한우마을 1호점 개장식(청계)
4월 23일	국장회의 여성정책 조정회의
4월 24일	국무회의 국회 법사위 국회 본회의
4월 25일	시장·군수 워크숍
4월 26일	MBC 인터뷰(귀농귀촌 페스티벌)
4월 27일	이데일리 인터뷰
4월 30일	MBC 인터뷰(귀농귀촌 페스티벌) 직원과의 대화(국제개발협력과)
5월 1일	국무회의 국회 상임위
5월 2일	법사위 국회 본회의
5월 3일	농촌진흥청 창립 50주년 행사
5월 4일	귀농귀촌 페스티벌 개막식
5월 5일	귀농귀촌 아카데미 특강
5월 7일	월례조회 확대간부회의
5월 8일	국무회의 2012 대한민국식품대전 개막식 아그리젠토 시상식
5월 9일	폴란드 농업농촌개발부장관 접견
5월 14일	직원과의 대화(다자협상과)
5월 15일	국무회의
5월 17일	산림조합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잠실)
5월 18일	연평도 꽃게잡이 현장방문
5월 19일	현장방문 귀농귀촌 콘서트(구로)
5월 21일	국장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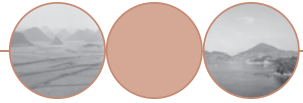
5월 22일	국무회의 직원과의 대화(식량정책과)
5월 24일	현장방문
5월 25일	식사랑 농사랑 운동 대국민 프로모즈(서울광장) 수출대책회의(대회의실)
5월 26일	현장방문
5월 28일	석가탄신일
5월 29일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러시아, 5월29일~6월2일)
6월 4일	중장기전략위원회(중앙청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개원식(인덕원)
6월 5일	국무회의 국장회의 19대 국회 개원식
6월 7일	우유 홍보대사(박지성) 위촉식(조선호텔) 한국소비자교육원 창립 31주년 기념식
6월 9일	장관기 소속기관 축구대회(농촌진흥청)
6월 10일	세계양돈수의사대회(제주)
6월 11일	국장회의 직원과의 대화
6월 12일	국무회의 당정협약-총선관련 실천방안 연안개도국 역량개발 워크숍 만찬(쉐라톤 워커히)
6월 13일	직원과의 대화 파이낸셜 뉴스 인터뷰
6월 14일	도시농업박람회(서울시청광장) 장관배 축구대회 시상식(청사운동장)
6월 15일	가뭄현장 방문 이데일리 TV 인터뷰(여의도)
6월 16일	현장방문
6월 19일	국무회의 OIE 국제표준실험실 인정 현판식(검역검사본부) 여수 EXPO 순시

6월 20일	전국 농하게대학장 협의회 조찬세미나(여수) 축협 조합장회의 특강(안성)
6월 21일	자연산 유통사업단 출범식(방배동)
6월 22일	녹색식생활박람회(aT)
6월 23일	현장방문
6월 25일	국장회의 직원과의 대화(친환경농업과)
6월 26일	국무회의(중앙청사) 화훼 수출현장 방문(로즈피아, 전주)
6월 27일	수산물 수출대책회의(대회의실)
6월 28일	농어촌체험마을 여름휴가 페스티벌(킨텍스)
7월 2일	월례조회
7월 3일	국무회의
7월 5일	중소기업중앙회 워크숍
7월 6일	세계일보 인터뷰
7월 7일	현장방문
7월 9일	확대간부회의
7월 10일	국무회의
7월 14일	현장방문
7월 16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2012 올림픽 선수단 격려
7월 17일	국무회의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7월 18일	직원과의 대화 축산분야 수출대책회의
7월 20일	국회-대정부질문
7월 21일	농어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
7월 23일	국장회의
7월 24일	국무회의 국회 상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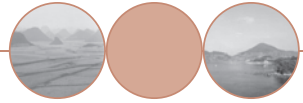
7월 25일	KBS 라디오 농수산오늘 녹화 KTV 정책대담 출연
7월 26일	범국민 우리밀 1kg 먹기 발대식 국회 초청 특강 및 토크콘서트
7월 27일	국회 상임위
7월 28일	현장방문
7월 31일	국무회의
8월 1일	상임위
8월 6일	국장회의
8월 7일	국무회의 제2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리투아니아 농업장관 면담
8월 8일	KTV 인터뷰 폭염 현장방문 한농연 전국대회
8월 9일	전주방송 인터뷰
8월 10일	현장방문
8월 11일	현장방문
8월 13일	실바 FAO 사무총장 면담
8월 14일	국무회의
8월 15일	제67주년 광복절 경축식
8월 16일	직원과의 대화
8월 17일	현장방문
8월 18일	현장방문
8월 20일	국무회의
8월 22일	국회 상임위
8월 23일	국회 예결위
8월 24일	국회 예결위
8월 25일	현장방문

8월 26일	국회 예결위
8월 27일	국장회의 국회 상임위
8월 28일	국무회의 중앙선데이 인터뷰
8월 29일	농식품 지식콘서트 워러브팜
8월 30일	태풍피해현장 방문 농어촌산업박람회
9월 1일	농어업 현장방문
9월 3일	국회 예결위 제311회 정기국회 개회식
9월 4일	국무회의 김장배추 모종 나누기(서울시청 광장) 추석 농수산물 가격안정 대책회의
9월 5일	국회 상임위
9월 8일	농어업 현장방문
9월 1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9월 11일	국무회의
9월 12일	월례조회 뉴질랜드 대사 면담
9월 15일	현장방문
9월 16일	수산물사랑 남산걷기대회
9월 18일	국무회의 식사랑 농사랑운동 심포지엄
9월 20일	제3회 생명산업대전 개막식 종자검정 국제세미나
9월 21일	국회 상임위
9월 22일	현장 방문
9월 24일	FTA 국내대책위원회 수출대책회의



9월 25일	국무회의 귀농귀촌 관련 도로공사 MOU
9월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9월 27일	국회 상임위
10월 2일	국무회의 2012년 수출홍보대사 위촉식
10월 4일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
10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10월 6일	현장방문
10월 9일	국무회의 국장회의 식품명인 지정서 수여식 한여농 여성농업인 대상 시상식
10월 10일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10월 12일	양봉인의 날 기념식
10월 13일	현장방문
10월 15일	물가장관회의
10월 16일	국무회의
10월 20일	현장방문
10월 22일	국장회의
10월 24일	국정감사 종합감사
10월 25일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대산농촌문화상 시상식
10월 27일	현장방문
10월 29일	국장회의
10월 30일	국무회의 국제농업기계박람회
10월 31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11월 1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11월 2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11월 3일	현장방문
11월 5일	전국 이통장 농정세미나
11월 6일	국무회의 상임위
11월 7일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심사 농업발전기원제(광화문)
11월 8일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심사
11월 9일	농업인의 날 기념식
11월 10일	현장방문
11월 12일	올레조회 농민신문 인터뷰
11월 13일	국무회의 상임위
11월 14일	세네갈 해양수산부 장관 예방
11월 15일	권역 사무장 워크숍 미호천 Ⅱ지구 준공식
11월 19일	상임위 전체회의 국장회의 TV 조선 인터뷰
11월 20일	국무회의
11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
11월 22일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11월 23일	KTV 정책대담 출연
11월 24일	현장방문
11월 26일	해외출장(11월25일~12월2일)



12월 3일	국장회의
12월 4일	국무회의
12월 5일	대한민국 우수품종 시상식(AT센터)
12월 7일	선농회 오찬 간담회
12월 10일	PBC 라디오 인터뷰 세종청사 입주식
12월 11일	국무회의 다문화정책위원회
12월 14일	특강(강원도 공직자)
12월 15일	현장방문
12월 17일	확대간부회의
12월 18일	국무회의
12월 20일	사회복지시설 방문 농어촌 마을대상 시상식
12월 21일	어업질서 확립 유공자 시상 국군장병 위문
12월 22일	현장방문
12월 24일	국무회의
12월 27일	북 콘서트(은퇴 없이 부자로 산다)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착공식
12월 28일	농어촌청소년대상 시상식 농식품 수출전문단지 준공식

■ 2013년

날 짜	일 정
1월 1일	국립묘지 참배
1월 2일	정부 시무식 농림수산식품부 시무식 신년인사회
1월 3일	국무회의
1월 4일	KBS 농수산오늘 녹화 농업인 신년인사회
1월 5일	현장방문
1월 7일	국장회의 기자단 오찬 간담회
1월 8일	국무회의
1월 9일	축산인 신년교례회
1월 11일	전국 수산인 신년인사회
1월 15일	국무회의
1월 17일	농촌사랑대상 시상식
1월 22일	국무회의
1월 23일	2013 농업전망 소비자단체장 간담회
1월 29일	국무회의
2월 4일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월 5일	새누리당 대표연설(국회) 국무회의
2월 6일	월례조회
2월 7일	민주통합당 대표연설(국회)
2월 12일	국무회의(세종청사)
2월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
2월 15일	한농대 학위수여식(화성)
2월 19일	국무회의(서울청사)
2월 22일	국무회의(서울청사)
2월 25일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2월 26일	국회 본회의
3월 11일	이임식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